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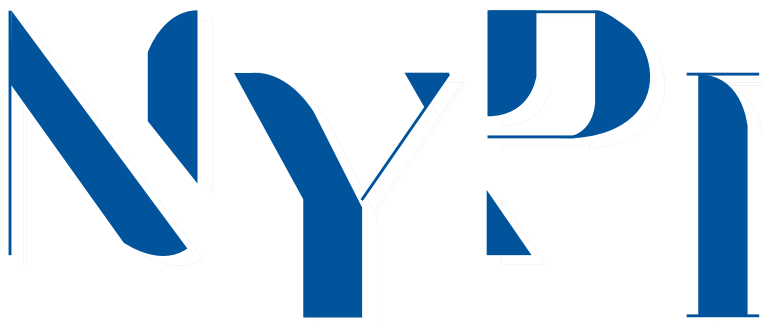
연구보고 19-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사례 조사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유민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60-02
연구보고 19-R17-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 졸업예정자 -해외사례 조사

책임연구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졸업예정자 - 해외사례 조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
협력 연구 기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정지운 부연구위원	-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의 해외사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5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인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에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청년정책이 특정한 문제가 발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분절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은 학교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에 대한 상위 교육을 위한 진로지원, 진로변경 및 중도포기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진로 변경의 사다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청년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 및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청년정책이 사후적으로 발생된 특정한 욕구에 대해서만 지원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지원 정책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지원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시혜적 지원보다는 보장의 개념으로서 청년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이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예방적, 통합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청년, 학교졸업예정자, 예방적 청년정책, 통합적 청년정책

연구요약

1. 개요

-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임. 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진학, 취업, 훈련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
- 이 연구는 진학, 취업, 훈련 중 취업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 연구가 출발선을 넘어 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청년 정책은 사후적 접근보다 사전적 접근, 즉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여러 어려움 등으로 니트(NEET)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분명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나, 이들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따라서 사후적으로 진학, 취업,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대상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진학, 취업, 훈련 상태에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
- 해외사례의 구성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각 나라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진로와 취업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봄. 각 장별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2. 미국사례

- 미국 니트 청년의 수는 2009년 경제위기 종료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16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 중 16.9%인 약 1000만 명의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있음. 청년들의 니트 상태를 예방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음.
- 미국의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직업기술교육으로 미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산업의 고임금, 고숙련, 고수요 직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프로그램임. 고등학교,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지역사회 직업센터 등에서 실시 중임. 둘째,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및 취업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동부 및 교육부의 협력 프로그램임. 특히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정보통신, 재정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립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고용주, 대학교, 인력개발시스템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 간 협력 강조함. 셋째, 경력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처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최근 학교 졸업자가 연방행정기관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은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비경쟁 전환이 가능함. 넷째, 잡콕스로 16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 프로그램임. 이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 최대의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임. 현재 48개 주에 위치한 123개 잡콕스 센터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중임. 다섯째, 유스빌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부 프로그램임. 강점개발 관점에 근거하여 건설업 관련 트레이닝 또는 기타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상담, 리더십 개발 기회 제공. 여섯째, 노동력 혁신 기회법 청년 프로그램으로 14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입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노동부 산하 프로그램임. 교육관련 서비스, 고용 관련 상담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

- 미국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미국 청년 취업 및 진학관련 프로그램의 특징은 향후 진로가 취업이든 진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취업 및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지역사회 고용기관 및 대학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 미국 경제 부흥과 개인 삶의 안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수요 전문 직종 중심의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 프로그램 종료 이후 전환과정(transition)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임.

- 한국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적 교육체계와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둘째, 업무기반 학습 및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셋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함.

3. 영국사례

- 영국 청소년 인구, 진로, 희망직업과 현실, 고용과 노동시장 현황을 통해 영국의 청년 관련 정책과 예방책에 대해 정리하였음. 영국의 한국과 다른 교육체

계(초등 6년, 중등 5년, 상급중등 2년, 대학 3년)와 겹쳐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진학과 취업의 진로 선택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정책은 일자리지원(견습제도와 훈련제도, 퍼지원 인턴십, 직업센터플러스 등), 교육과 훈련지원(9월보장제도, 16세 이후 기술교육, 개츠비 벤치마크, 참여연령 상향, 성인교육, 직업경험과 자원봉사활동), 재정지원(유러피언 사회기금, 16-19 청소년을 위한 보상기금, 청소년참여와 공정기획펀드, 새로운 기업수당, 구직자수당) 및 건강복지관련 서비스 등임.
- 지방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학교, 비즈니스, 공공기관, 자선단체, 교육제공자, 기타 단체들과 연계하여 각 지역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서머셋(Somerset)과 메드웨이(Medway) 사례는 중앙정부 정책 아래 각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임.
-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청년정책과 예방책을 통해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협력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실용적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4. 독일사례

- 독일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자격 그룹에 비해 실직 위험이 훨씬 높고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임. 독일의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직업교육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한 사람의 실업률은 20.0%인 반면,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실업률의 경우는 4.2%로 거의 5분의 1수준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그룹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실업률은 2.6% 가량임.

- 독일의 고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 진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독일에서는 조기에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실시하고 있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독일 교육연구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졸업과 연결 - 양성교육 종료까지의 교육연계(Abschluss und Anschluss -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 프로그램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연방 정부, 연방 주 및 연방 고용기관에서 다양한 자금 지원 수단 등으로 지원. 각 주정부별 프로그램으로 라인란트-팔츠 주 교육부는 2016년부터 학생 역량분석프로그램 'Profil AC'을 시행, 작센주에서는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교, 고용정보센터(BiZ) 및 연방고용센터(Agentur für Arbeit)에서는 직업교육 및 직무 활동 기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이는 전문화 및 평생교육, 취업 시장 전망 지원, 초기 경력 오리엔테이션 지원 등을 포함함.

- 독일은 대학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 진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독일은 JOBSTARTER plu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학 중도포기자에게 기회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습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학과 기업이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여 학사과정 학생들의 실습을 확대하고 있음. 바이에른 주에서는 이원화 대학교육 급격히 확대됨. 작센주의 주정부 지원은 직업아카데미 학생에게 직업교육 급여 보장 지원이 있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 30세 이후부터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대학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해 직업을 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독일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는 이원화 직업교육제도를 통한 이른 직업교육임. 이른 나이에 진학과 취업을 결정한 후,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폭넓은 견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둘째, 견습제도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투자임. 독일의 견습제도는 이른 나이에 현장에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음. 견습제도의 운영이 미래 독일 산업발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견습제도에 대해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넷째, 진로변경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있음. 독일 직업교육의 방향은 진학, 취업, 훈련 등에서 벗어난 저숙련 노동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직업교육과 체계화된 견습제도 등을 운영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숙련 노동자로 성장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5. 스웨덴사례

-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정책은 2014년 도입되어 청년과 관련된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청년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청년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움. 그 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여러 정책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가 청년정책전략 ‘청년 중심’, 지식과 평등을 위한 학교전략,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전략, 청년 NEET 전략 등임. 정책 대상은 스웨덴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은 13-25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 특히 스웨덴 정부는 ELET 청년과 NEET 청년에 중점을 두고 있음.¹⁾

●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함. 고등학교 이상 상급교육과정은 청년이 주 대상이나 학령기 이상의 성인에도 적용됨. 교육부가 주무부처지만, 세부사항을 담당하는 여러 공공기관이 존재함.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육법의 개정을 포함한 교육 부문의 접근이 두드러짐. ELET 청년과 NEET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교육 부문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청년 대상의 교육 부문 핵심정책은 해외유학 증진, 학자금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과 역량 증진, 사회적 포용성 강화 등임. 첫째, 해외유학 증진의 대상은 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 고등교육과정(대학교), 직업훈련 등이며, 실시 지역은 중등(유럽), 고등(유럽+세계), 직업훈련(유럽) 등, 학습과정은 일반 학업, 직업 실습, 프로젝트 교류 등임. 둘째, 학자금 지원의 대상은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일반 성인(실직자, 이민자 포함) 등, 구성은 학업 보조금, 추가 보조금, 학자금 대출 등, 실시지역은 스웨덴 국내, 스웨덴 국외(추가 보조금 및 추가 학자금 대출 가능) 등임. 이민자 학생 및 실직자의 교육 재진입 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실시 중임. 셋째, 기업가정신 함양과 역량 증진은 2000년대 말 기업가정신을 학교 교육에 포함시키는 국가 전략 및 지침 채택,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이 협업 등임.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용성 강화는 교육을 통한 불평등 완화와 기회의 균등 제고의 목적(장애 학생, 이민자 학생 등)으로 실시가 되고, 청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보다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함.

●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이래

1) ELET는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자,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임.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4년에 도입한 ‘청년 중심(Med fokus på unga)’이 현재 스웨덴에서 청년과 관련된 전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스웨덴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청년의 관점(ungdomsperspektiv)’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둘째, 스웨덴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은 관련 법률이나 세부 사업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 그룹은 조기에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청년들(ELET)과 NEET 청년임. 셋째, 스웨덴의 교육 정책의 대상은 비단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다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스웨덴 청년정책에 따른 교육 부문의 접근방법 역시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임.

6. 일본사례

- 일본에서 2018년도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은 54.8%로 사상최고 수준임. 기존의 추천입시뿐 만 아니라 AO(Admissions Office)입시로 입학하는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둘러싼 제도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을 둘러싼 제도도 바뀌어가고 있음. ‘1인 1사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와 기업의 관계가 희박해졌고, ‘교내 선발제도’는 이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학부)을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2009년 68.4%에서 2018년 77.1%로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학부과정을 졸업

한 후 아르바이트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이 14.4%(2009년)에서 8.5%(2018년)로 감소했음. 15-39세 청년 무업자(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고,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의 규모는 2017년 시점에서 71만 명이었으며(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1%), 2009년부터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도에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통신제)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국립 고등학교 15.0%(20개 학교 중 3개 학교), 공립 고등학교 84.0%(4127개 학교 중 3465개 학교), 사립 고등학교 45.9%(1435개 학교 중 659개 학교)임.
- ‘신졸응원 헬로우워크’나 ‘청년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등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나타난 점이 예전과 다름. 교육기관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위한 ‘신졸응원 헬로우워크’,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시간이 지난 청년을 위한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등 지원제도가 있음.
- 스쿨카운슬러는 초등학교의 70%, 중학교의 90%, 고등학교의 80%에 배치되고 있으며, 비교적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상담원(스쿨소셜워커)의 배치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초등학교의 약 30%, 중학교의 약 40%, 고등학교의 10%에 불과함.
- 일본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앞으로의 정책 확대와 기존 정책의 점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지만, 노동시장이 청년 구직자에게 호의적인 현제도 일본이 꾸준히 청년 무업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경제적 지원의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음.

7. 결론 및 제언

- 해외 사례를 검토 결과,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과정의 맥락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음.
- 해외사례에서의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예방적 접근, 대상중심적 접근, 연령통합적 접근, 연계협력적 접근, 부처통합적 접근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각 국가들의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정책들은 물질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일자리 지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러한 지원 방법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지원 방법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맥락에서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해외사례 조사

연구보고 19-R17-1

I. 서론

- 1. 연구개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학교 졸업예정자 3
-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

II. 미국

- 1. 서론 7
- 2. 미국의 교육체계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 9
- 3.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12
- 4. 소결 35

III. 영국

- 1. 개요 41
- 2. 영국의 교육제도 46
- 3. NEET 관련 정책(중앙정부) 50

4. 지방정부 정책	58
5. 요약 및 시사점	65

IV. 독일

1. 배경	69
2.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70
3. 시사점	79

V. 스웨덴

1. 개요	83
2. 스웨덴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89
3. 시사점	129

VI. 일본

1. 서론	135
2. 일본의 교육체계와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137
3.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	141
4. 청년무업자와 은둔형 외톨이	153
5. 요약 및 시사점	179

VII. 결론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85
--------------------	-----

참고문헌	191
------------	-----

표 목차

표 II-1 미국 청소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34
표 III-1 시기별 갭이어	48
표 III-2 영국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53
표 III-3 개츠비 벤치마크(the Gatsby Benchmarks) 8가지 지침 ...	54
표 V-1 스웨덴의 교육체계	93
표 V-2 고등학생 대상 해외유학 증진 프로그램	104
표 V-3 대학생 대상 해외유학 증진 프로그램	105
표 V-4 2019년 보충 수당 현황	107
표 V-5 2019년 여행 보조금 현황	107
표 V-6 2019년 국내 고등교육과정 대상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110
표 V-7 2019년 해외 고등교육과정 대상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112
표 V-8 2019년 입학 보조금 지원액	113
표 V-9 스웨덴 학자금 지원 현황	114
표 VI-1 중등교육기관 재학자 수 (2018)	138
표 VI-2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	139
표 VI-3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2018)	139
표 VI-4 대학(학부) 졸업자의 진로	140
표 VI-5 대학원(석사) 졸업자의 진로	141
표 VI-6 대학원(박사) 졸업자의 진로	141
표 VI-7 2018년도 4년제 대학 입학 지원자 수 및 경쟁률	143
표 VI-8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AO입시 입학자 규모	143
표 VI-9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학교추천 입학자 규모	144
표 VI-10 단기대학 입학 지원자 수 및 경쟁률	144
표 VI-11 전체 단기대학 입학자 중 AO입시 입학자 규모	145
표 VI-12 전체 단기대학 입학자 중 학교추천 입학자 규모	145

표 VI-13 신졸응원 헬로우워크	151
표 VI-14 청년 고용 우량기업 인정 제도	151
표 VI-15 청년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152
표 VI-16 신 잡카드 제도	152
표 VI-17 커리어업 조성금 제도	153
표 VI-18 청년무업자 수	154
표 VI-19 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청년 무업자의 비율	154
표 VI-20 내각부의 청년의 삶에 관한 조사의 문항20번	155
표 VI-21 등교 거부 학생의 규모	156
표 VI-22 고등학교 중퇴자의 규모	156
표 VI-23 대학 중퇴 이유	157
표 VI-24 대학 휴학 이유	158
표 VI-25 히키코모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163
표 VI-26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상담 건수	164
표 VI-27 히키코모리지원센터 연계 유관기관 상담 건수	164
표 VI-28 의무교육단계의 등교거부 아동이 다니는 민간단체의 형태	168
표 VI-29 의무교육단계의 등교거부 아동이 다니는 민간단체 설립 시기	168
표 VI-30 고등학교 중퇴자 사유별 비율	169
표 VI-31 일본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의 역할	170
표 VI-32 스쿨카운슬러 배치 학교 수(2017)	170
표 VI-33 스쿨카운슬러 배치 비율	171
표 VI-34 상담원 배치 비율(2017)	171
표 VI-35 고등학생 장학금부금 지급액	176
표 VI-36 대학생 장학금 유형별 내용	178

그림 목차

그림 II-1. 미국의 교육체계	10
그림 II-2. 미국 청소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범위	13
그림 III-1. 2014년-2019년 청년 NEET 증가 추이	45
그림 III-2. 영국의 교육체계	47
그림 VI-1. 일본의 학교체계	137
그림 VII-1. 해외사례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접근	186
그림 VII-2. 해외사례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접근 및 지원정책	188

○———— 제1장 서론

- 1. 연구개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학교 졸업예정자
-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 연구개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학교 졸업예정자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해외의 정책사례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진학, 취업, 훈련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진학과 취업 이후에도 결국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수적이므로, 이 연구는 진학, 취업, 훈련 중 취업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진학, 취업 프로그램과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가 출발선을 넘어 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청년 정책은 사후적 접근보다 사전적 접근, 즉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여러 어려움 등으로 니트(NEET)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분명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나, 이들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진학, 취업,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대상들(NEET)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진학, 취업, 훈련 상태에 있도록

2)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청년들인 학교졸업예정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 국가들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 선진국들이다. 이 연구는 경제선진국 중에서 다양한 복지체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대륙유럽의 독일, 북유럽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를 가진 5개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아직 청년정책이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해외사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각 나라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진로와 취업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각 장별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각 국가의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정책은 해당 국가의 교육제도,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의 예, 해당 국가의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해당 국가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본문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해외사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제2장 미국

- 1. 서론
- 2. 미국의 교육체계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
- 3.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 4. 소결

1. 서론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집단의 실업률보다 항상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 왔으며, 지난 30년간 미국의 청년들 역시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더욱 더 내몰려왔다. 미국 국세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1980-1990년대에 태어난 청년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위소득은 33,883달러였는데, 이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청년기였던 1980년의 중위소득보다 2000달러 정도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U.S. Census Bureau, 2014).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는 집단 역시 주로 청년층이며, 2008-2009년 경제위기 당시에 미국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경제위기 전인 2007년 10.2%였던 16세-24세의 청년 실업률은 경제위기 종료 직후인 2010년 18.3%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0년 미국 전체 실업률인 10.2%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 2018). 미국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2009년 6월 대침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2019년 7월 기준 9.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는 미국 전체 실업률인 3.7%보다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a; 2019b). 특히 청년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에

3) 이 장은 배정희 박사(前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가 작성하였음.

비해 취업률이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등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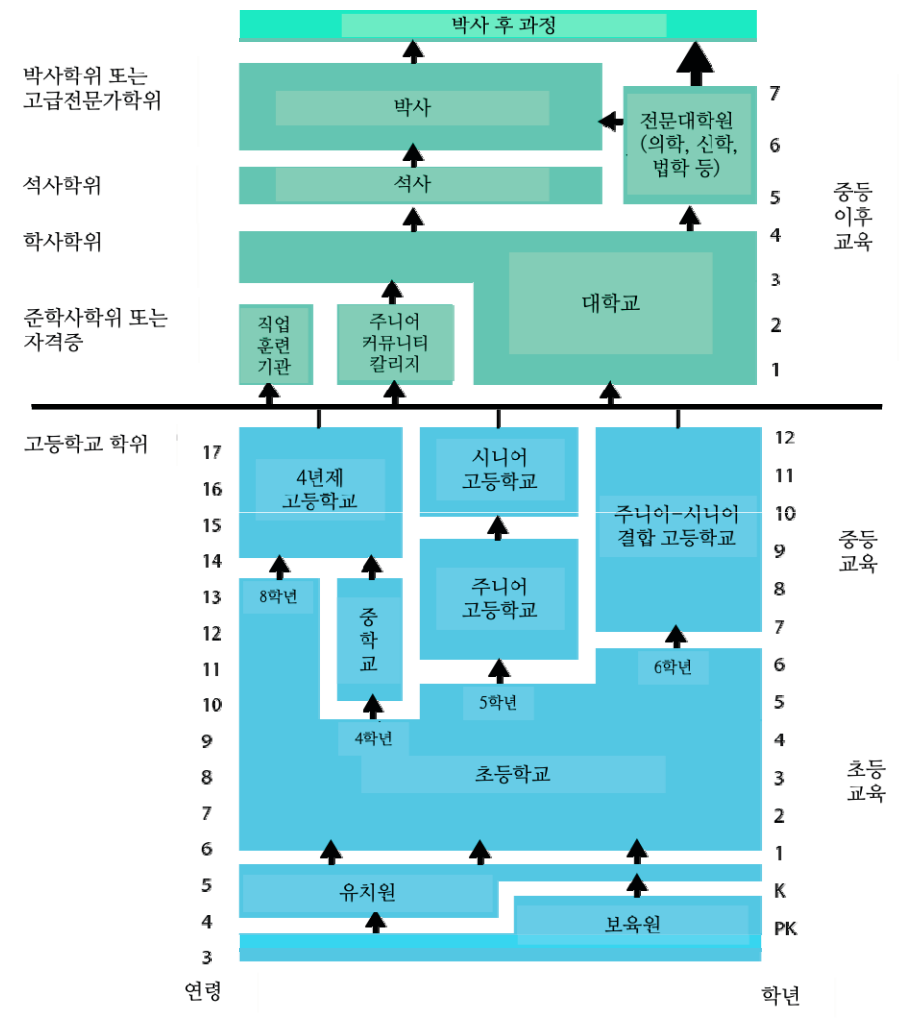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점점 열악해지는 고용환경으로 인해 교육 또는 취업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의 문제는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니트 청년의 수는 미국에서 2008-2009년 경제위기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경제위기 종료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16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 중 16.9%인 약 1,000만 명의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silver, 2016). 특히 여성(19.5%), 2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19.1%), 흑인(22.2%)의 니트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Desilver, 2016). OECD 국가들의 많은 연구들은 청년들의 니트 상태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악화, 약물 남용, 범죄율 증가(Baggio et al., 2015; Goldman-Mellor et al., 2016; Henderson, Hawke, Chaim & Network, 2017)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니트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Bynner & Parsons, 2002).

많은 OECD 국가에서 청년들의 니트 상태를 예방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소득지원 프로그램, 학교 기반 직업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 실습 프로그램 등은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다(Carcillo, Fernández, Königs, & Minea, 2015). 미국 역시 청년층의 취업 및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지역사회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많은 영리기관들도 청년층의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위탁가정 청소년, 이민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들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의 학교-일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먼저 미국의 교육체제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2. 미국의 교육체제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

미국의 청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I-1은 3세부터 시작하는 미국 교육제도를 나타내며, 이는 크게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전체 12년 과정인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초·중·고를 분리하는 과정분류는 주마다 상이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경우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경우가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기간도 4년, 5년, 6년 등으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이 총 8년,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총 4년인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9학년은 보통 고등학교의 첫 번째 학년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을 미국에서는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이라고 통칭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과정은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이라고 불린다. 중등이후 교육에는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9).



* 출처: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t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The structure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그림 II-1. 미국의 교육체계

오늘날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성공적인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통합교육은 주된 화두이다. 미국의 대학교육계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유치원 및 12학년제 교육으로는 대학수업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대비시키지 못한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으며, 미국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미국 청년들이 오늘날의 지식경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단순히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몇 십 년 내에, 미국 모든 직업의 63퍼센트, 그리고 성장 산업영역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고임금 직업들의 90퍼센트가 중등교육 이상, 즉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Balestreri, Sambolt, Duhon, Smerdon, & Harris, 2014),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와 취업을 위한 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미국 교육부는 학생들이 오늘날의 글로벌한 지식 경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학 및 취업 준비 기준안(College-and Career-Ready Standards)을 마련하였으며, 거의 모든 주정부는 이 기준안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안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공한 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9). 각 주정부들은 학년별, 과목별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들에 대해 공통핵심주정부기준안(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대학교 교육, 그리고 취업이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의 경로로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대학교육과 취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청년들이 21세기 글로벌 지식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습득한 지식과 저숙련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수요 성장 산업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능한 선행하여 깊이 있게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과목별 수업은 단순히 해당 과목의 지식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향후 직업 활동과 연관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실질적·통합적 사고방식을 강조한다. 미국 청년층을 위한 대학 진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커다란 정책적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일부 학생만을 위한 제도로 여겨졌던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ological Education)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 모두가 미래의 성공적인 취업과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선행하여 습득하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역시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의 이수와 직업훈련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인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3.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부, 노동부, 인사관리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을 의미하며, 취업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모든 구직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졸업예정자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학교 내 모든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됨으로써, 가능한 이른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준비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계획을 수립한 후,

이후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필요한 학습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취업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특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				
	청년진로연계				
	경로프로그램				
자격요건 프로그램	잡콕스	16-24세 저소득 청소년			16-24세 저소득
	유스빌드				16-24세
	노동력혁신기회법	14-21세 취업취약계층			16-24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림 II-2. 미국 청소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범위

이 절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섯 가지 청소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 직업기술교육,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경로 프로그램, 잡콕스, 유스빌드, 노동력혁신기회법 청소년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그림 II-2는 미국 청소년 취업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범위를 나타낸다. 먼저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고등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직업기술교육과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및 취업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은 경로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행정기관에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또는 취업취약계층 고등학생의 경우 미국 전역의 잡콕스 프로그램과 노동력혁신기회법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대학입시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직업기술교육 경로 프로그램, 잡콕스, 노동력혁신기회법에 따른 청소년 프

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 주로 학교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직업기술교육이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재적을 요건으로 하는 경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잡콥스, 유스빌드, 노동력혁신기회법에 따른 청년 프로그램의 특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1) 직업기술교육 (Career and Technological Education; CTE)

(1) 프로그램 개요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ological Education; CTE)은 미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산업의 고임금, 고기술, 고수요 직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프로그램이며 고등학교,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지역사회 직업센터 등에서 실시된다(Association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2018).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직업교육은 보통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거나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고 학업수준이 낮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현대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직업을 갖기 위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선행 훈련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에 제정되어 1998년, 2006년, 2018년 세 차례 개정된 파킨스 직업기술교육법(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오늘날 직업기술교육의 목적은 미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데 있다(Dougherty, 2016).

(2) 프로그램 내용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에 의해 개발된 16개의 진로 영역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1) 농업, 식품 및 천연자원, 2) 건축, 3) 예술, 영상기술 및 언론, 4) 경영 및 행정, 5) 교육 및 훈련, 6) 재정, 7) 정부 및 공공행정, 8) 보건 과학, 9) 관광업, 10) 휴먼 서비스, 11), 정보 통신, 12) 법, 공공안전, 처벌 및 보안, 13) 제조업, 14) 마케팅, 15)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16) 운송, 유통 및 물류 등. 고등학교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은 이들 전체 또는 특정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 수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오늘날 직업기술교육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교육부의 대학 및 취업 준비 기준안(College-and Career-Ready Standards)에 따라, 학교 교과목의 수업이 곧 대학수업을 위한 준비과정이자 동시에 미래 직무에 대한 준비과정이므로,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 졸업 후 실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Meeder & Suddreth, 2012).

예를 들어, 제조업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관리와 관련된 수업들을 개설하여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 전통적인 교과목이 제조업 직무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직업기술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취득학점 등의 요건은 주정부 또는 프로그램 제공 기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에 있는 아칸소 주(State of Arkansas)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평균 4.9개의 직업기술교육 수업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0퍼센트의 고등학생들은 경영학, 소비자학, 농학 등 특정 산업영역에서 세 개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는 집중과정(concentration coursework)을 이수하였다(Dougherty, 2016).

(3) 프로그램 특성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고등학교, 기술 고등학교, 지역 기술센터, 직업 센터, 2년제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전달된다. 기술고등학교와 같은 전체 학교 모델(whole-school models),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수업 또는 소규모 진로학습 커뮤니티로 진행되는 학교 내 학교 모델(school-within-a-school models),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외부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풀 아웃 모델(pullout models) 등이 있으며, 몇몇 주정부들은 특수한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2013).

직업기술교육 수업은 지역사회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실 밖에서 실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주들은 특정 산업 영역에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실습, 인턴십 등 업무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심화된 직업기술교육의 일환으로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대학교에서 관심분야의 수업을 수강하고, 이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모두 인정하는 이중등록제(dual enrollment) 기회를 제공한다(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2013). 학생, 교사, 지역사회 기관들로 구성된 직업기술학생단체들(Care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은 학생들에게 진로 계획 수립, 리더십 개발, 동기부여 등의 프로그램을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한다(Career &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2014).

(4) 프로그램 현황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94퍼센트의 미국 고등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2014년에는 750만 명의 중·고등학생들과 400만 명의 대학

생, 직업훈련기관 학생 등 중등이후교육과정 학생들(Postsecondary education)이 최소 1개 이상의 직업기술교육을 수강하였다(Association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2019).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 직업기술교육 강화법(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에 서명하면서 매년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약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천억원)가 기술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된다(Perkins Collaborative Resource Network, 2019).

2)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Youth CareerConnect: YCC)

(1) 프로그램 개요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Youth CareerConnect: YCC)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진학 및 취업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2014년 4월부터 미국 노동부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은 특히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정보통신, 재정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 등의 학습 및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공립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고용주, 대학교, 인력개발시스템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 위치한 총 24개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기관들은 고등학교의 학업 및 진로교육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모델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향후 취업을 위한 진로관련 커리큘럼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Youth CareerConnect, 2019).

(2)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크게 1)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2) 학생 모집 및 등록, 3)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4) 전문가 교육의 순으로 운영된다. 먼저 초기 수행 단계에는 지역사회 내 주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고용주 파트너는 특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년진로연계 기관과 함께 전략 및 목표 설정, 트레이닝 자원 제공, 커리큘럼 개발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단계에서는 학생추천, 학교 내 전단지, 지역사회 아웃리치 등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 후, 개별 학교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참여 학생들을 결정한다. 학교에 따라 적격성 여부 판단기준은 다소 상이하지만, 주로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학점, 인터뷰, 추천서, 출석률 등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된다(Maxwell, Whitesell & Bellotti, 2017). 프로그램 시행단계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활동,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활동으로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제기반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소프트 스킬 트레이닝, 리더십 세미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고용주 기관 방문, 현업 종사자 초대 강연, 취업 박람회 참여, 직업체험, 실습, 인턴십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대학 입시 준비 활동으로는 대학교 방문 및 초대강연, 대학교 코칭,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듣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점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중 등록제(dual enrollment), 학자금 등 재정 계획 지원, 수업 커리큘럼 리뷰, 온라인 수업, 튜터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지원은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서, 사례관리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랩어라운드 서비스(wraparound services)를 제공한다(Maxwell, Whitesell & Bellotti, 2017).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 및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교사교육 및 전문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에

서 습득한 전문기술을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의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상이하지만, 24개 운영기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Th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의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4년간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정부로부터 수여한 7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역사회 6개 고등학교의 진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 활용한다. 이 진로 아카데미는 특히 보건의료, 생명공학, 그리고 기타 기술 관련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비영리조직(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노동력 투자 시스템, 그리고 상공 회의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10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여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The White House, 2014). 또 다른 운영기관인 덴버 교육구(The Denver School District)의 경우, 7백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여덟 개 고등학교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일명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진로개발을 위해 활용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턴십 또는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되며, 노동력 투자 기관들과 함께 채용박람회, 산업 아카데미 등을 개최한다.

(3) 프로그램 특성

개별 기관에 따라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 고수요 전문직종인 보건의료, 정보통신, 기술, 공학, 또는 수학 분야 등의 진로교육에 중점을 둔다. 둘째, 주정부의 대학 입시 및 취업 준비 표준안과 학생 개인이 선택한 진로계획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

중심 커리큘럼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고용주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 인턴십,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업계 인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넷째, 개별화된 진로 및 학업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진로계획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학생들이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을 상시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진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의 핵심 커리큘럼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Maxwell, et al, 2017; The White House, 2014).

(4) 프로그램 현황

2014년에 미국 전역 총 24개 기관에 4년간의 청년진로연계프로그램으로 총 1억 7백만 달러(한화 약 1,277억 원)가 수여되었으며, 한 기관 당 지급액은 225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에서 700만 달러(한화 약 84억 원)였다. 24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교육기관, 4개 기관은 비영리 조직, 3개 기관은 노동력개발 관련 기관이었다. 2014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3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의 46%는 저소득층이었다. 24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9학년(고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고등학교 4학년)까지를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약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9학년에(고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에 등록하였고, 20%의 학생은 10학년에, 30%의 학생은 11학년에 시작하였다(Youth CareerConnect, 2019). 취업과 대학입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진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본인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로 프로그램 (Pathways Program)

(1) 프로그램 개요

경로 프로그램(Pathways Program)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학생 및 졸업자 채용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al Management)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경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연방행정기관의 직업들을 탐색해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경로 프로그램은 세 가지 프로그램(인턴십 프로그램, 최근 졸업자 프로그램, 대통령 경영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교육수준 및 상황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내용

가.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정식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연방행정기관에서 유급으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또는 2년제 대학교 등),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등록한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어야 하며, 인턴십 기간 동안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턴십 직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개별 고용 기관에서 주로 운영되며,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인턴들을 최대 1년까지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장기/무기한 인턴 또는 단기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개별 기관들과 인턴들은 인턴십에 대한 기대업무를

설정한 참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인턴업무는 인턴들의 진로 목표 또는 학업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120일 내에 행정기관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자리로 비경쟁전환(non-competitive conversion)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비경쟁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640시간 이상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a).

나. 최근 졸업자 프로그램(Recent Graduates Program)

최근 졸업자 프로그램은 최근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연방행정기관의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1년 프로그램이다. 지원 가능자는 2년 내에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며, 퇴역군인의 경우 6년 내 취득자이다. 고용기관들은 직무훈련에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직무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졸업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직무 트레이닝과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개인별 진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멘토가 배치된다. 최소 1년 이상 졸업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은 행정기관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자리로 비경쟁전환 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a).

다. 대통령 경영진 프로그램(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 Program: PMF)

대통령 경영진 프로그램은 석사, 박사, 또는 전문대학원 등 고급 학위(advanced degree)를 취득하였으며 학문적 우수성, 높은 리더십 잠재력, 그리고 공공분야 업무에의 높은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방정부 최고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으로, 2년간 진행된다. 학생들은 고급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지원하여야 하며, 대학원 마지막 학년부터 지원가능하다. 참여자들은

지원한 연방행정기관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후 직무 트레이닝과 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개인별 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멘토가 배치되며, 최소한 한 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비경쟁전환으로 연방행정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a).

(3) 프로그램 특성

경로 프로그램은 정규 경쟁 고용절차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 인사관리처가 경로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퇴역군인이나 육아 후 학교로 돌아온 경력단절 여성 등 전형적인 나이의 학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최근 학교를 졸업한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들이 경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처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해야 하며, 기관들은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지, 나이, 장애여부, 성적지향, 유전적 정보 등 지원자의 업무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경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관리자는 인사관리처에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경로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참가 동의서에 설정된 개별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경로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한 기관 및 직무는 인터넷 사이트 USAJOBS (<http://usajobs.gov>)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프로그램 지원자는 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참여기관별로 등록해 놓은 경로프로그램 유형, 지원 기간, 급여, 업무 스케줄(풀타임/파트타임 여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현황

2019년 9월 현재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공군성(Department of Air Force),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등 21개의 연방행정기관에서 경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b).

4) 잡콥스(Job Corps)

(1) 프로그램 개요

잡콥스 (Job Corps)는 16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1964년부터 시작되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 최대의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48개 주에 위치한 123개 잡콥스 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학위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학위(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를 취득하며, 업계 인증 자격증명서(industry-recognized certifications) 또는 사전 견습 자격증(pre-apprenticeship credentials) 등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이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의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도 도움을 준다 (Schochet, 2018).

(2) 프로그램 내용

잡콥스 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약 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아웃리치 및 입학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잡콥스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잡콥스 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며,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책임을 배운다. 두 번째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초기 약 60일간 잡콥스 직원과 함께 개인별 진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용방법을 학습하며, 직업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진로 개발 단계에서는 잡콥스 직원 및 고용주들과 함께 산업관련 기술 및 지식을 학습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후, 실질적으로 구직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독립생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네 번째 전환 단계는 잡콥스 참가자들이 성공적으로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된 이후로서, 이들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및 교통수단 지원,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졸업자는 13주, 6개월, 12개월 이후 사후조사에 참여하게 된다(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Job Corps, 2016).

(3) 프로그램 특성

잡콥스 프로그램은 미국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6에서 24세 사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이어야 하며, 아래 소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부조 대상자, 빈곤수준 임금 근로자, 노숙인, 위탁가정 청소년, 무료 또는 감면 급식 대상자 등. 단, 장애가 있는 경우 24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잡콥스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고성장 산업 영역에서 직업기술교육 제공한다: 고급 제조업, 자동차 및 기계수리, 건설업, 금융 및 비즈니스, 보건의료, 국토 안보, 관광업, 정보통신기술, 재생가능 자원 및 에너지, 교통업 등(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Job Corps, 2016).

(4) 프로그램 현황

매년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천억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약 6만 명의 청소년들이 잡콕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1964년부터 현재까지 25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잡콕스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 받았다(Schochet, 2018).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잡콕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잡콕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수준을 가졌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위 취득과 직업 증명서(vocational certificates) 취득률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잡콕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통제집단보다 범죄 가담률이 15%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잡콕스 프로그램의 참여는 프로그램 종료 후 소득을 증가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chet, 2018).

5) 유스빌드(YouthBuild)

(1) 프로그램 개요

유스빌드(YouthBuild)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부 프로그램으로, 매년 250여개의 기관들이 1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스빌드 프로그램은 1970년대 뉴욕주에서 시작된 청년액션프로그램(Youth

Action Program)을 모델로 하여 1990년대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2006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스빌드 기관들은 16세에서 24세까지의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설업 관련 트레이닝 또는 기타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상담, 리더십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건설업종 훈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저소득 또는 노숙인들을 위한 집을 레노베이션하거나 건설하는데 참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업종 외에도 간호조무사, 중장비 기사, IT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Miller, Cummings, Millenky, Wiegand, & Long, 2018).

(2) 프로그램 내용

유스빌드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서비스, 직업훈련 (특히 건설업), 청소년 발달 서비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서비스의 경우, 고등학교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보충교육 및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 이후의 교육에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유스빌드 직업훈련의 전형적인 모델은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를 통해 실질적인 건설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건설 플러스” 모델을 통해서 건설업 외에도 간호조무사, 중장비 기사, IT 전문가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는 리더십 트레이닝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타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유스빌드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리더십 트레이닝은 구조화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실, 작업 현장, 또는 지역사회 모임 등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유스빌드 참여자들은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저렴한 집을 건설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타인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전환 지원 서비스는 유스빌드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사례관리, 생활 기술 훈련, 취업 준비, 1년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생활비 지원, 교통수단 지원, 육아 지원, 거주지원 등(Miller et al., 2018).

(3) 프로그램 특성

유스빌드 프로그램의 참여조건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6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저소득 가정, 이민자 가정, 위탁 가정의 자녀이거나 부모가 수감된 자, 또는 장애가 있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다. 유스빌드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한 전형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단순히 직업훈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강점을 발견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다양한 전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유스빌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한다(Miller et al., 2018).

(4) 프로그램 현황

매년 노동부는 약 8,500만 달러(한화 약 1,010억 원)를 유스빌드 프로그램에 지원하며(Youthbuild, 2019a), 250개의 전국 유스빌드 기관에서 매년 1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Miller et al., 2018). 평균 10개월간의 유스빌드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약 50%의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학습서비스에 참여하며, 약 40%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한다(Youthbuild,

2019b).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 총 75개의 유스빌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4000여명의 참가자들을 4년간 조사한 결과, 유스빌드 프로그램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고등학교 학위취득율, 대학입학율, 고용률, 임금 및 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et al., 2018).

6) 노동력 혁신기회법 청년 프로그램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Youth Program)

(1) 프로그램 개요

노동력 혁신기회법(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이하 혁신기회법)에 따른 청년 프로그램은 14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입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노동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노동력 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따른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참가자 연령기준이 14-21세에서 14-24세로 확대되었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향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업무기반 활동(work-based activities)의 제공,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강조한다(Eyster & Nightingale, 2017).

(2) 프로그램 내용

혁신기회법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교육관련 서비스로는 튜터링, 고등학교 대안 교육, 대학 입시 준비 활동이 제공된다. 두 번째, 고용 상담 서비스에서는 직업 탐색 지원, 노동 시장 정보 제공, 개인별 취업 계획 개발,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한다. 세 번째, 직업훈련 서비스에서는 유급 또는

무급의 근무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여름 및 1년간의 고용 기회, 인턴십,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등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기술 훈련, 기본적인 소프트스킬 훈련, 리더십 개발,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네 번째, 기타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비스로 교통수단 지원, 육아 지원, 독립 지원, 거주지 지원, 포괄적인 상담, 재정 교육 등이 제공된다(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2019; Eyster & Nightingale, 2017).

(3) 프로그램 특성

혁신기회법 프로그램은 16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과 14에서 21세 사이의 대학입시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내 청소년 모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은 최소 75%의 참여자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2019).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내 청소년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노숙인, 전과자, 한부모, 장기 실업자,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 등이 포함된다(Eyster & Nightingale, 2017).

혁신기회법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업무기반의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이 있는데, 현장훈련은 6개월에서 9개월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장훈련을 통해 근로자는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현장훈련 기간 종료 후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구조화된 실습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건설업, 전기전자,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실습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은 고용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실 및 실제

근로현장에서 이론 및 실습을 통합한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둘째, 클라이언트 중심의 지원을 강조한다. 개인별로 진로 코칭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개별화된 테스트와 평가, 워크숍, 구직 기술 강의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성인 멘토가 배치되어 사례관리를 받으며 교육, 취업,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멘토들은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멘토들이며, 멘토들은 반드시 멘토링 훈련을 받고 상당 기간 동안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원 기관들이 거주지,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 간 공조체계가 강조된다. 따라서 혁신기회법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 고용 및 직업훈련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다(Eyster & Nightingale, 2017).

(4) 프로그램 현황

연방정부는 주정부별로 지원금을 할당하는데, 이 때 지원 금액은 지역별 실업자 수와 취약계층 청년의 수를 기반으로 정해진다. 2018년과 2019년 연방정부 지원금의 총액은 약 9억 3만 달러이었으며, 이는 2017년의 약 8억 7천만 달러 보다 3천만 달러 증가한 액수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 15만 명의 청소년들이 혁신기회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2019).

7)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여섯 가지 대표적인 청년 진학 및 취업 지원 정책을

주부부처, 대상자, 서비스 내용, 특성, 현황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표 II-1과 같다. 이 여섯 가지 지원정책은 크게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모두를 위한 일반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 고등학교 중퇴, 위탁가정 자녀 등 부가적인 자격요건이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업기술교육, 청년진로연계프로그램, 경로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부가 실시하는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에서 16개 다양한 진로영역에 대한 진학 및 취업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에서 인턴십, 실습, 현장학습과 같은 실제 근로기회를 통해 직무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업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듀얼 등록제를 통해 관심 있는 대학교 수업을 미리 수강해 보며, 대학 진학을 계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부 및 교육부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은 일부 지역 고등학생들의 경우, 고수요 전문 직종 중심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진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직업기술교육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으나, 보건의료, 정보통신, 재정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 등 고수요 전문 직종을 위한 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진로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최근 2년 이내 졸업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방행정기관 경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업무훈련을 받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연방행정기관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경쟁절차 없이 채용될 수 있다.

특수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잡콕스, 유스빌드, 노동력 혁신기회법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16에서 24세까지의 저소득 청소년들은 노동부 산하 미국 전역의 잡콕스 센터에서 개인별

진로계획 수립 후 직업 탐색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에 다니지만 취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노동부의 노동력혁신기회법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 고등학교 학위 취득, 대학 입시 지원 등 학업 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위기청소년의 경우, 노동부 유스빌드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업종 등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강점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표 II-1 미국 청소년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	경로 프로그램	집콕스	유스빌드	노동력혁신기회법 청년 프로그램
주무부처	교육부	노동부 및 교육부	인사관리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대상자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최근 학교 졸업자	16-24세 저소득 청소년	16-24세 학교 밖 위기 청소년	16-24세 학교 밖 청소년, 14-21세 취업취약계층 청소년
서비스 내용	미국 교육부에 의해 개발된 16개 진로영역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주로 고등학교 내에서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 모두 대비한 창의적, 혁신적 커리큘럼 제공	연방행정기관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수준에 따라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미국 최대 청소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10가지 고성장 산업영역을 중심으로 취업준비 진로 개발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발달지원, 전환 지원 서비스 등	교육, 고용상담 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기타 지원 서비스
특성	• 운영기관에 따른 다양한 모델 • 고용주 및 대학교와 파트너십 통해 현장실습, 인턴십, 이중등록제 기회 제공	• 고수요 전문직종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 고용주 및 대학교들과 파트너십 통해 실질적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진로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전문가 교육 실시	•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가자들은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비경쟁 전환가능 • 연령에 상관없이 현재 정규교육 중이거나 최근 졸업자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고성장 산업영역의 직업기술교육에 초점 • 개별 진로계획 바탕으로 직업탐색능력 향상, 전환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졸업까지 약 8개월에서 24개월 소요	• 강점개발 관점 •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공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 통합적 제공 • 평균 10개월 참여	• 프로그램 참여자의 최소 75%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 • 파트너십 통해 업무기반의 실질적인 직업훈련제공 • 클라이언트 중심의 맞춤형 지원
현황	매년 13억달러 지원, 94% 고등학교 시행, 고등학생 750만명, 대학생 400만명 참여	2014-2018년 24개 기관에 1억7천만 달러 지원, 3만명 청소년 참여	약 20개의 연방행정기관에서 경로 프로그램 실시	48개 주 123개 센터에 매년 15억 달러 지원, 매년 6만명 청소년 참여	매년 8500만달러 지원, 매년 1만명 청소년 참여	2019년 9억 3만달러 지원, 2017년 15만명 청소년 참여

4. 소결

지금까지 미국의 청년 취업 및 진학 관련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주된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ological Education),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Youth CareerConnect), 경로 프로그램(Pathways Program), 잡코프스(Job Corps), 유스빌드(YouthBuild), 노동력혁신 기회법 청년프로그램(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Youth Program)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취업예정자 또는 대학지원자로 이분화 하여 개별적으로 취업 또는 학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향후 진로가 취업이든 대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취업 및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취업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특정 직업에 대한 단기 직무 훈련이 아니며,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전통적인 학과목이 어떻게 실제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수업의 연장선에서 제공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과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학습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능력과 직무능력 모두를 향상시킨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대학교육 이상의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향후 취업시장에 진입예정이므로 대학진학과 취업준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미국 경제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고용기관 및 대학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고용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인턴십, 현장학습, 현업 중

사자 초대 강연, 멘토링, 취업 박람회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 산업현장의 환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직무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는 대학 수업을 미리 수강하고 이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이중 등록제를 실시하며, 대학 투어, 학과 커리큘럼 리뷰, 학자금 등 재정 계획 지원, 대학교 코칭, 튜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미국 경제 부흥과 개인 삶의 안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수요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한 진학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진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있지 않고,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들 자신의 삶과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인가를 고려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일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기술교육은 미국 경제의 성장산업과 관련된 16가지 포괄적인 진로영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진로 연계프로그램은 고수요·전문직 분야인 보건의료, 정보통신, 재정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 등에 특히 한정하여 진학 및 취업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잡콕스 역시 10가지 고성장 산업영역에 대해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건설업 직업훈련으로 시작했던 유스빌드 프로그램 역시 간호조무사, 중장비 기사, IT 전문가 등 현대사회 고수요 직종들을 포함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넷째,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한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개인별 진로 및 취업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개별 진로상담, 멘토링,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기회법 청년 프로그램은 멘토링 교육을 받은 성인 멘토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해 취업관련

서비스 외에도 거주 지원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이후 전환과정(transition)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조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교 등에 입학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이 취업을 유지하거나 성공적으로 학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관리, 생활기술 훈련, 1년간의 사후관리, 생활비 지원, 교통수단지원, 육아지원, 거주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청년 진학 및 취업 프로그램들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은 지난 20년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점점 많은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좋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면서 과연 대학 이상의 교육이 자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2009년 경제 위기 당시 악화되었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개선과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미국의 혁신적인 진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주요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산업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 불안정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합의가 존재했다. 이는 청년층의 단순한 취업여부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며, 이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청년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안교육 과정에서 어떤 과목의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와 혁신적인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현장의 살아있는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고용기관 및 대학교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턴십, 현장학습 등 업무기반 학습과 이중 등록제, 대학 탐방, 커리큘럼 분석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018년 약 70%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로 진학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고수요 전문직종들은 대학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추후대학교육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다시 교육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제3장 영국

- 1. 개요
- 2. 영국의 교육제도
- 3. NEET 관련 정책(중앙정부)
- 4. 지방정부 정책
- 5.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1) 청소년 인구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2019년 기준 영국의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인구변화 추이는 전 연령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대보다는 20대 이상의 연령대, 즉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Statista, 2019). 아동과 청소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본 전제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인 현상이다. 2017년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영국 청소년의 인구 분포는 15세~19세가 전체 인구의 5.8%, 20세에서 24세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7:7).

2) 청소년과 진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일자리에 맞는 다양한 진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 이 장은 허재연 박사(청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시간강사)가 작성하고,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보완 및 감수하였음.

각 급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일자리,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TeachFirst”라는 자선단체의 2017년도 진로지도 향상을 위한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가구 경제수준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전역에 3만7000여개의 대학과정(대학의 학과 교육과정)이 있고, 2만개가 넘는 견습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교육과정과 취업자리가 있다(Ben Gadsby & Kelly Loftus, 2017:7). 그러나 1986년과 비교하면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16세의 49%와 17세 중 32%만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0년 기준으로는 각각 85%와 71%로 학교 재학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학 비율의 증가는 일자리의 질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의무교육이후의 상급학교와 고등교육 기관에 더 오래 재학 하는 것이 노동력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2년까지 저기술 일자리(low-skilled job)의 수는 4백만 정도로 예상되지만, 실제 저기술을 가진 인구는 9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자리 불균형이 예상된다(Ben Gadsby & Kelly Loftus, 2017:7). 그러나 반대로 고기술 일자리 혹은 숙련 일자리(high-skilled job)에 필요한 인력은 천오백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숙련 일자리에는 3백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영국의 노동시장은 인력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Ben Gadsby & Kelly Loftus, 2017:7).

이러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급 학교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개인이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이수 이후 고용시장으로 안전하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나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현재 브렉시트(Brexit)

에 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보수당은 지속적으로 이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는 까닭에 유럽연합이나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고급인력을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⁵⁾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의 진로지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용과 노동시장

2019년 6월에서 8월 사이 16세에서 64세 대상 영국의 고용률은 75.9%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0.2% 낮은 수치이다. 동기간 실업률은 3.9%로 상반기와 비교하면 실업률 역시 0.1%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고용률 수치는 1979년 고용률 통계 집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1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율의 경우도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a:1-4). 비경활(Economic inactivity) 비율도 상반기 집계보다 0.1% 감소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0.4% 감소한 수치이다.

가계 수입의 경우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고소득자의 수입은 2008년 이후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당국은 소득분포 대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계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2012년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2019년만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일자리 증가 추세 여부는 추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a:5-6).

5)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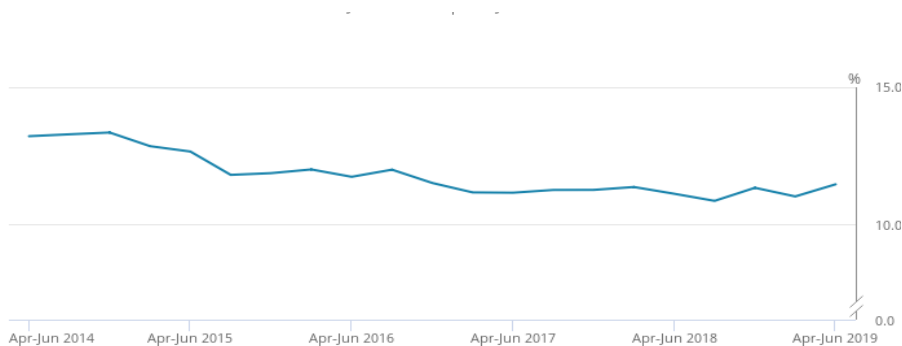
4) 청소년의 희망 직업과 현실

영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서 21세 청소년의 희망 직업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 조사된 16세에서 21세 청소년이 희망했던 직업 1위에서 5위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즉 실제 본인이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청소년에게 조사한 2010년과 2011년에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본인이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희망 직업 1위였던 예술, 문해 & 미디어 분야(작가, 배우, 프로듀서 등)를 희망했던 청소년은 12%에 가까웠는데 실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2%가 되지 않는다. 교육 분야(Teaching and Education)는 약 9%의 청소년이 2위의 희망 직업으로 선택했으나 실제 이 분야를 택한 경우는 5%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초기나 중기 청소년 즉,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가 그들의 실제 직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b).

5) 영국 청년 NEET 현황

2018년 NEET 통계 연례보고서(Department of Education, 2019a)에 따르면 영국 청년 NEET 인구비율은 16-24세 와 18-24세 그룹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16-17세 그룹에서는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9년 8월 영국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사분기(4-6월) 16-24세 청년 NEET 인구는 79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수치는 영국 전체 청년 인구의 11.5%로 2019년 1사분기보다 28,000명, 2018년 2사분기보다

14,000명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 인구는 구직 중이거나 구직 가능한 실업자(41.6%)와 구직의지가 없거나 구직할 수 없는 경제적 비활동 청년(58.4%)으로 분류하였다. Abed(2019)는 영국 전체 청년층 중 NEET 비율에 대해 지난 5년간 중앙값이 11.5%로 나타나 사실상 영국 청년 NEET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의 NEET 증가 추이 변화는 아래 그림 III-1과 같다.



*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b). 노동인구 조사 자료 2019.

그림 III-1. 2014년-2019년 청년 NEET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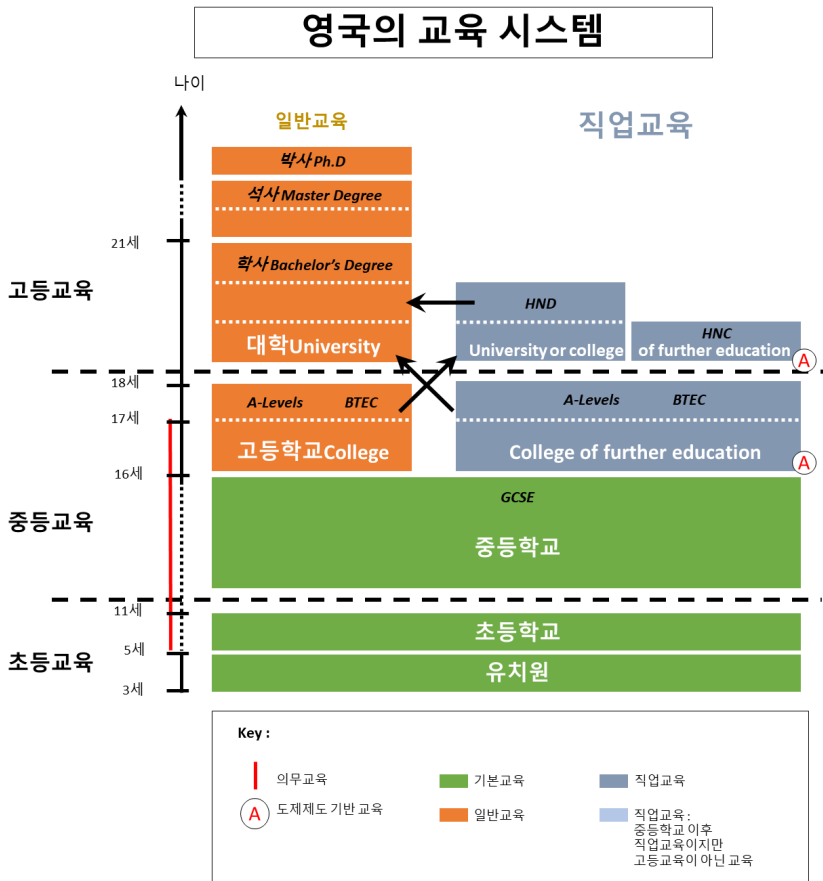
2. 영국의 교육제도

1) 교육체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영국의 교육체계는 3세부터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5세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지만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는 한국과 달리 5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칼리지(College) 과정을 2년 이수해야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받는 졸업증을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줄여서 GCSE라고 하며 이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GCSE 과정까지는 모든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며 이때 청소년의 연령이 16세이다.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상급중등학교는 칼리지(College)라고 부르는데 대학 진학을 위한 칼리지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칼리지(College of further education)가 있으며 이는 모두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중등학교인 칼리지를 진학하는 비율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업을 위한 A-Level을 위한 칼리지가 직업교육을 위한 칼리지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학은 한국과 달리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것과 달리 영국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5년 상급 중등학교(칼리지) 2년, 대학교 3년으로 학제 구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학교까지 교육 연한은 동일하다. 상급고등학인 칼리지까지는 중등교육으로 분류되며 이 모든 중등 교육(중등학교 + 칼리지)은 총 7년으로 구성되어 중등교육만 보면 영국이 한국보다 1년 길다.



* 출처: Mavoieproeurope (2019). <http://mavoieproeurope.onisep.fr/en/initial-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in-europe/united-kingdom/> 2019년 10월14일 인출. 저자 재구성.

그림 III -2. 영국의 교육체계

2) 갭이어(Gap year)

1960년대 영국의 청년들이 학제 중단(Year Out)을 통해 교육과정 이외 활동으로 경험을 쌓고자 시작된 갭이어는 1990년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제

중단 추세가 뚜렷하게 증가되면서 보편화되었다. 국내외봉사활동, 인턴, 여행, 교육, 창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경험적 활동을 위해 중등교육과정 이후 본인이 속해 있던 교육과정이나 교육경력에서 벗어나, 대학진학 이전에 자신의 흥미, 취미와 적성을 찾는 일정시간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Jones(2004)는 16-25세 시기별 갭이어를 분류하고 중등교육과정이 끝나는 16세에 시작되는 갭이어(A1)부터 직장인의 전환시기(G)까지 11단계로 구분했다.

표 Ⅲ-1 시기별 갭이어

구분	갭이어(Gap year)의 유형 분류
A1	16세 졸업 이후 계획된 갭이어(planned post-school at 16)
A2	18세 졸업 이후 계획된 갭이어(planned post-school at 18)
A3	18세 졸업이후 비의도적 갭이어(Default post-school at 18)
B1	대학 과정 중(Undergraduate break in study)
B2	대학원 과정 중(Postgraduate break in study)
C	대학졸업 직후(Immediate post-university)
D1	대학졸업 후(Break in post-university)
D2	연계된 대학원 과정 중(Postgraduate combined with course)
E	직장 생활 중(Employment break)
F	훈련과정 직후(Immediate post-training)
G	복합적인 시기(Complex gap year)

* 출처 : Jones, A. (2004: 22).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집필자가 번역하여 사용함.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예: 야생동물 보호프로젝트, 아동돌봄과 교습, 제3세계 학교건립 돕기 등), 영국 국내외여행, 국내외에서의 유급 고용(스포츠지도자, 캠프 리더, 영어교사, 안전요원, 스키강사 등), 일자리 체험(인턴십), 파트타임 학습과정(TEFL 자격증과정이나 제과제빵, 목공, 요리, 등 새로운 언어나 실용적 기술 습득), 레저 활동 등 할 수 있다.

Jones(2004)는 청년들의 갭이어 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직업선택의 형성과

발전, 개선된 고용가능성과 직업 기회 확대, 비학업적 기술과 자격 취득, 생활 기술습득(자기주도성, 결정능력, 문제해결, 리더십,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일정 정도의 대학 학업 성과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반면, 학생들의 학업 동기 상실이나 갭이어 후 정규 교육과정으로 돌아오는 데의 어려움, 무계획적인 갭이어로 인한 시간 낭비, 개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부채 가능성, 대학의 소수 전공이나 과목영역에 따라 갭이어를 보낸 사람이 불리할 수 있는 것 등을 결점으로 지적했다.

갭이어 통계자료(2018)에 따르면 해마다 약 230,000명의 18-25세 청년들이 갭이어를 하고,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갭이어가 대학의 전공선택에 도움이 되었다(60%)”, “갭이어 후 좀 더 진지하게 학업에 임하게 되었다(66%)”, “갭이어가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느꼈다(80%)”, “갭이어 기간 동안 영국내서 일했다(80%)”라는 대답이 있었다(Year out group, 2019).

반면, 136개 영국 대학을 대표하는 영국대학들(UKK: Universities UK)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학생들의 6.6%만이 학위 중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는 독일(28%), 호주(20%), 미국(16%)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이다. 이는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한 시기에 학생들이 삶의 경험보다 공부에 집중해 가능한 한 빠른 진로결정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UKK기관장인 Stern은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희생하는 것은 영국 학생들이 그들의 경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들보다 24% 더 적게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학생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율은 2014년 이후 2년 동안 단지 2% 증가했고, 2020년까지 해외 연수에 대한 비율을 2배로 늘리고 전체 국내 학생의 13%를 목표로 하고 있다(The Telegraph, 2018.09.01.).

3. NEET 관련 정책(중앙정부)

청년 NEET 인구 감소를 위한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교육과 훈련, 고용안정, 소외 청소년 고용가능성 개선, 직업센터(Jobcentre Plus)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Powell, 2018).

1) 일자리 지원

(1) 견습(도제)제도와 훈련제도(apprenticeship and traineeship)

정부는 견습생의 장기적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해 그들이 직업 특수 기술을 갖도록 2020년까지 잉글랜드 지역에 3백만 개의 견습제 시작(apprenticeship starts)을 목표로 한다.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806,500개의 견습제가 시행되었고, 정부는 법령(2016년 복지개혁 및 근로법 제정)에 2020년까지 목표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24세 이하의 직업이 없고 경력이 거의 없으나 취업이나 6개월의 수습직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은 훈련제도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 훈련과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9b).

(2) 직업전략

2014년 12월 12-18세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직업교육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CEC(the New Career and Enterprise Company)는 고용주 주도의 정부로부터 독립된 회사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CEC는 직업과 기업펀드(the Careers and Enterprise Fund)를 조성하고 2016년 50개 직업과 기업프로그램에 5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잉글랜드 지역

진로지도 개선을 위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시행될 직업전략안(Careers strategy)을 발표했는데, 핵심 사항으로 학교와 대학은 청년과 그 부모들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게재하고 모든 학교와 대학의 진로지도사(Careers Leader)는 직업 교육을 안내해야한다. 2020년 말까지 모든 학교와 대학은 기업 어드바이저⁶⁾와 접촉 기회를 갖고, 학교는 CEC의 지원으로 모든 청소년이 7-13학년까지 적어도 매년 한번씩 STEM고용주를 포함한 고용주와의 7번의 만남을 제공해야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7a).

(3) 성인교육(Adult Education)

19-23세 청년에게 GCSE⁷⁾에 상응하는 Level 2 또는 A-Level에 해당하는 Level 3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 무료 교육의 기회와 19세 이상의 실업자를 위한 무료 훈련교육을 제공한다(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2018).

(4) 피지원 인턴십(Supported Internship)

학습장애와 장애를 가진 청년은 피지원 인턴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통 1년간 지속되고 적어도 6개월의 무급직을 포함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청년의 고용지원이 가능하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7b).

6) 기업 어드바이저(Enterprise Advisor)는 자신의 사업경험과 전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고용주들과 연계하고 학교나 대학의 수석교사 또는 수석리더십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교육의 핵심이 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업의 지원자이다.

7)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는 영국의 중등교육 일반자격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통해 청소년 미래 진로에 큰 영향을 준다.

(5) 학교 청소년을 위한 직업센터 플러스 지원

2016년 1월에 시작되어 지역 직업센터 플러스 어드바이저들이 12-18세 학생들에게 노동 시장과 견습제와 훈련제도와 같은 가능한 직업 선택에 대해 조언해준다. 각 학교는 어드바이저들에게 받는 지원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직업 체험 계획이나 일대일 조언을 포함할 수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6).

(6) 직업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은 구직자 수당을 받고 있는 16-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8주 현장 실습을 제공한다. 직업 시행(Work Trials)은 구직자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최장 30일 동안 구직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행종료시 해당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는 지역 단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Government UK, 2019a).

2) 교육과 훈련 지원

영국의 학교졸업예정 대상 정책 및 서비스는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학교급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한 설명은 아래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영국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명칭	September Guarantee	Post 16 Skill Plan	Gatsby Benchmarks
주무부처	교육부/지방교육청	비즈니스 혁신&기술부/ 및 교육부	교육부
대상자	16세, 17세	16세 이후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서비스 내용	• 2007년 처음 도입 •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해의 9월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청이 대상 청소년에게 상급 중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도제제도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 2016년 도입 • 고급 노동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이 목적 • 직업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16세 의무교육 이후 진학하게 되는 상급중등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함	• 2018년 교육부의 진로지도 정책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 민간단체가 개발하고 각 급 학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함 • 이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 • 학교의 종류와 급에 다른 다양한 성취 도달목표를 8가지로 나누어 제시
특성	• 현재 각 지방교육청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미국에 비해 낮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개혁하고자 함 • 고용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기존의 직업교육 개혁한 마련 • 견습제도 프로그램 투자 강화 • 질 낮은 자격증 폐지 • 영어 수학교육 강화 • 니트청소년 비율 감소를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8가지 벤치마크를 제시하여 각각의 벤치마크를 도달하도록 하며, 각각의 벤치마크 수준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함 • 개별학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전담인력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이 개별진로지도도를 통해 상급학교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위에 언급한 개츠비 벤치마크에 대한 8가지 지침 기준과(표 III-3)과 관련 법적 의무와 필수요건(표 III-4)은 다음과 같다.

표 III -3 개츠비 벤치마크(the Gatsby Benchmarks) 8가지 지침

지침	지침 기술
1	안정적 직업프로그램 (a stable careers programme) 모든 학교와 대학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운영위원이 알고 이해하는 직업교육과 지침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2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서의 학습 (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미래의 학업선택과 노동시장 기회에 대한 질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잘 아는 어드바이저의 지원이 필요하다.
3	각 학생의 필요 다루기 (Addressing the needs of each student) 각 학생은 다른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하고 이에 알맞은 조언과 지원을 해야한다. 학교 진로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균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한다.
4	교육과정 학습과 직업 연결하기 (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모든 교사는 커리큘럼학습과 직업을 연계해야한다. STEM교과목 교사는 광범위한 미래의 진로를 위해 해당과목의 관련성을 강조해야한다.
5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만남 (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모든 학생은 직업, 고용, 작업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다수의 학습기회를 가져야한다.
6	작업현장 체험 (Experiences of workplaces) 모든 학생은 작업장방문, 작업관찰,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기회를 탐색하고 네트워크 확장해야한다.
7	추가교육 접하기 (Encounters with further education ⁸⁾) 모든 학생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학습기회를 알아야한다. 여기에는 학업과 진로, 학교, 전문학교, 대학 및 직장에서의 학습이 포함된다.
8	개인지도 (Personal guidance) 모든 학생은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 내부(교직원)이나 외부의 직업 어드바이저와 지도 면담 기회를 가져야한다. 중요한 학업이나 직업 선택 시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모든 학생의 개인적 요구에 맞게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 출처 : Careers and Enterprised(2019). Understand the Gatsby Benchmarks.

그 외에 참여연령 상향(RPA: Raising the Participation Age) 정책은 청소년이 최소한 18세 생일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정규교육과정, 직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파트타임 교육, 또는 견습제나 훈련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8).

8) 추가교육(FE: further education)은 영국에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이 아닌 16세에 끝나는 중등교육 이후의 모든 교육이 포함된다.

표 III-4 법적 의무와 필수요건

시기	실행
진행중 (2012년 9월부터 법적 의무)	- 공립학교, 대안학교, 추가교육, 대학준비과정학교에 다니는 8학년(12-13세), 13학년(17-18세), 19-25세의 모든 학생들은 교육 및 의료제도를 통해 독립된 진로지도를 받아야 한다. - 독립된 직업안내는 공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정 조직, 교육제공자 또는 작업부문에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교육, 견습제, 고등교육과정을 포함해 유용한 훈련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행중 (2018년 1월부터 법적 의무)	- 모든 학교는 승인된 기술교육자격이나 견습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8-13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제공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 연명을 게재해야한다.
2018년 1월 - 2020년 말까지	- 모든 학교는 개초비 벤치마크를 사용해 직업제공 개선을 하고 2020년 말까지 이 지침에 충족해야한다.
2018년 9월부터	- 모든 학교는 직업프로그램을 이끌 진로지도자 역할에 지명된 사람을 임명해야한다.
2018년 9월부터	- 모든 학교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을 게재해야한다. 학교나 대학은 정기적으로 정책연명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된 내용에 덧붙여 정책연명을 발표해야한다.

3) 재정지원

(1) 16-19세 청소년을 위한 보상기금(16 to 19 Bursary Fund)

2011년 교육유지수당(EMA: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을 대체한 정책으로 16-18세 청소년에게 16세 이후 필요한 교재비, 교통비, 기타 교육관련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 이 기금에서 2011/12년에 1억8천만 파운드와 2017/18년에 1억3천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Government UK, 2019b).

(2) 고용주 국민보험 분담금 폐지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4월에 21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고용주 국민보험 분담금을 폐지하였고, 2016년 4월부터 소득체계에 따른 25세 이하 전업생도 이에 포함되었다.

(3) 유러피언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청년층과 취업난을 겪는 사람들의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기금 지원한다. 장애인을 포함 소외계층에 초점을 두고 실업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정부는 2018년 7월, 2020년 말까지 합의된 EU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⁹⁾ 가정 하에도 보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HM Treasury, 2018).

(4) 청소년참여와 공정기회펀드(Youth Engagement and Fair Chance Funds)

2014년 5월에 출범한 청소년참여기금(Youth Engagement Fund)은 14-17세 청소년의 교육성과 향상을 통해 고용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정기회펀드(Fair Chance Fund)는 집이 없는 18-24세 청년에게 지속적인 주택, 고용,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Cabinet Office, 2014).

(5) 새로운 기업 수당(New Enterprise Allowance)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멘토와 함께 일하며 최대 26주(13주 동안 주당 65파운드, 이후 13주 동안 33파운드, 총 26주 동안 1,274파운드) 수당을 받고, 창업비용에 관한 대출신청(최대 2만5천 파운드)이 가능하다

9)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이 EU탈퇴할 때 아무런 협의 없이 탈퇴하게 되는 것.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9).

(6) 청소년 의무제(Youth Obligation)

2017년 4월에 소개된 제도로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¹⁰⁾을 청구한 지 6개월 이내 일자리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18-21세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6개월 후 견습제나 훈련제도 신청, 직업 기반 기술 습득 또는 직업연수가 가능하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7).

(7) 16-17세 청소년을 위한 혜택

집을 떠난 대부분의 16-17세 청소년들은 지역 당국의 사회 복지서비스 부서에서 주택 및/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 부모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구직자에게 구직수당, 주택수당, 유니버설 크레딧 및 기타 혜택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18세 이상 청년을 위한 혜택

18세 이상의 청년 실업자, 취업 가능자 또는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자는 구직자의 수당(JSA: Jobseeker's Allowance)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복지지원

위에 전술된 직업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Support) 및 재정 지원 부분(구직수당, 유니버설 크레딧, 고용지원 수당, 장애세금혜택, 등) 모두 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은 생활비를 보조하는 지불금

(1) 복지수급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프로그램(Welfare to Work Programmes)

직업과 건강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12개월 이내 일자리를 찾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Government UK, 2017).

(2) 국민건강서비스 장기계획(the Long-term Plan)

2019년 1월에 발표된 NHS 장기계획안은 2020/21년까지 매년 7만 명의 아동과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2012/24년까지 최소한 345,000명의 아동과 청년들이 NHS가 후원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학교나 대학 기반의 정신건강지원팀을 통해 지원을 받게 할 예정이다(The NHS Long-Term Plan, 2019).

4. 지방정부 정책

지방정부의회는 2020년에 50억파운드 이상의 펀드 격차를 예상하고, 지방정부 협회(LGA: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같은 단체는 모든 청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기술제공을 지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발전된 지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LGA회장 Hawthorne(Abed, 2019)은 16세 이후 진로 안내와 기술 예산 및 권한을 각 지역에 이양함으로써 의회는 청소년 지원 개선을 위해 학교, 대학, 고용주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협회는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NEET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메드웨이(Medway)지역에서는 NEET 인구가 2017/18년 같은 기간 대비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사이 거의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메드웨이카운실(Medway Council)은 NEET, 청소년 범죄자 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1-2-1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팀을 운영했다. 블랙풀 카운실(Blackpool Council) 경우는, 청년 니트와 접촉할 수 있게 지역 추가교

육 전문대학과 대학준비과정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핵심고용지원 지역 제공자에게 고용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해 4주간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 사우스웍 카운실(Southwark Council)은 2018년 동안 900명 이상의 청년과 만나며 매주 2회 방문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정보, 조언 및 지도를 했고, 모든 NEET 또는 NEET가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 지원을 할 어드바이저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에 있는 서머셋주(Somerset County)와 남동부 켄트 주(Kent County)에 있는 메드웨이(Medway) 두 지역의 NEET 관련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1) 서머셋 사례

서머셋 교육비즈니스 파트너십(Somerset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은 서머셋 주 전역에 걸쳐 고용주와 교육제공자의 연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무료서비스이다. 비즈니스와 교육협력은 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격려, 직업기회 알림,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 육성에 중점을 둔다. 고용주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제공자들이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견습직을 포함한 지역 결원 게재와 함께 학생들이 16세 이후 선택사항과 작업장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돕는데 특히, 16세 이후 학업 또는 취업의 효과적 전환으로 NEET 위험성에 있는 청소년을 돕는데 힘쓴다(Somerset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2019).

(1) 일자리 지원

서머셋 지역카운실(Somerset County Council)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을

위험이 높은 500명 이상의 11-12학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교와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16세 이후 선택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모든 대학에는 학생, 학부모,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NEET 예방 담당자가 있고 보통 학생지원팀 내에 배치된다.

서머셋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긍정적 사람들(Positive People)¹¹⁾’은 실직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필요에 맞춰 개인 개발, 건강과 웰빙,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생활기술 개발을 돕는다.

웨스트서머셋(West Somerset)에는 IT시설 이용, 검색 및 작업 지원, 직업검색과 지원하기, 면접준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커뮤니티고용 허브가 있다.

(2) 교육과 훈련지원

교육과 훈련지원을 지원하는 서머셋 사례는 우선 교육지원서비스(SSE: Support Services for Education)¹²⁾가 있다. 이는 모든 교육제공자와 학교, 아카데미, 추가교육기관, 조기교육기관, 보육 기관, 자선단체 및 지역 당국 같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과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훈련제도는 견습직이나 직업을 갖고 싶으나 아직 적절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최장 6개월에 이르는 훈련제도는 청소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준비를 도와 미래 직업에 대비하는 업무경험을 갖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11) 긍정적 사람들(Positive People)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기술을 쌓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 참여,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다양한 활동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2) 교육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s for Education)는 교육지원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기관이 교육개선패키지, 맞춤형 전문지원, 비즈니스 및 관련 서비스 과정과 컨퍼런스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재능 아카데미(Young Person's Talent Academy)는 EDF¹³⁾에너지와 서머셋 주카운실과 함께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부모와 협력하여 그들의 학업과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

데본과 서머셋의 청년 기술 프로젝트(the Devon & Somerset Skills for Young People project)는 NEET이거나 NEET 위험에 처한 15-18세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고용가능성 기술, 디지털기술, 식품위생, CSCS카드¹⁴⁾, 지게차 균형잡기 훈련, 갈등관리, 영어/수학 등이 포함된다.

On Your Bike는 Taunton과 Bridgewater에 지점이 있는 자선단체로 자원봉사자들의 자전거 정비 강좌를 통해 개인 개발과 자전거 정비지식을 제공한다.

국가시민서비스(NCS: National Citizen Service)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15-17세 청소년을 소그룹으로 모아 진행하는 정부지원 2-4주 프로그램이다. 야외 팀빌딩 연습, 생활기술 배우기, 지역사회기반 특별행동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개 여름에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허브(Careers Hub)는 Career and Enterprise Company(CEC)와 협력하여 South West Local Enterprise Partnership(HotSW LEP)이 출범시킨 전국 20개 커리어허브 중 하나로 양질의 공정한 직업정보, 조언, 지도를 함으로써 청소년들 직업교육 향상에 도움을 준다.

2) 메드웨이(Medway) 사례

메드웨िका운실(Medway Council)은 청년층이 직업 기회를 가지고 메드웨이 지역 성장에 기여할 2020년 5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Medway Council, 2017).

13) EDF 에너지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 생산과 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회사이다.

14) 건설기술인증제도(CSCS: 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 카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개인이 현장에서 하는 일에 적절한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 청년들은 배우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청년들은 지역과 국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다.
- 청년들은 직업과 기술 발달 기회를 지원받는다.
- 참여장벽 극복하기.
- 청년들의 일하고 배우는 준비성 증진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한다.

(1) 일자리 지원

카운실은 취업전(pre-employment)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취업센터 플러스(Jobsentre Plus)와 협력한다. 예를 들어, NHS¹⁵⁾가 지원하는 강좌는 미드켄트 전문대학에서 한 달간 훈련을 제공했고 참여자들은 그 후 건강과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를 얻고, 그 중 60%가 고용보장이 되었다.

카운실은 취업전 과정 후 고용확보가 되지 못한 지원자에게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기술 향상 등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카운실은 지역학교의 학생들에게 2주간 GCSE 수준의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환경에서 일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2) 교육과 훈련지원

2017년 10월에 시작된 견습생 개발 프로그램은 견습생들에게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평가기술, 육체적 웰빙, 건강한 식습관 등 다양한 생활 기술 주제에 대해 7일 반나절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견습생들은 교육과 취업기회, NUS 견습생카드¹⁶⁾, 레저/소매 서비스에 대한

15)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국민건강서비스이다.

16) NUS (NUS: National Union of Students)견습생 카드는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에서 할인받을 수 영국 견습생을 위한 할인카드이다.

할인이용, 이력서쓰기와 고용 가능성 워크숍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견습제 아카데미(Apprenticeship Academy)의 혜택을 받는다.

모든 견습제 결원은 런던, 켄트 및 지역 대학과 미드켄트전문대 채용박람회와 카운실과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 광고된다.

교육과정은 기술자격증, 영어/수학/ ICT 역할별 자격증과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로 구성되고 견습 기간은 12-18개월(레벨2), 18-24개월(레벨3)로 나뉘며 견습생 90%이상이 과정을 마친다.

(3) 지역특성 프로젝트

미드켄트 대학(Mid Kent College)의 정규과정 학생들은 고용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업무경험을 갖게 된다. 학교는 업무경험 과정을 연간 최소 100시간으로 늘렸고, 정부기술계획(the Government Skills Plan)과 T-Level¹⁷⁾ 개발 측면에서 2020년까지 연간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카운실은 켄트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공동커리큘럼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켄트 고용가능성 포인트제도(the University of Kent's Employability Points Scheme)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각기 완료한 활동에 대해 고용가능성 포인트를 요청하고 각 학년 말에 보상 신청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으로 기업과 조직이 제공하는 유급인턴십, 프로젝트 배치, 업무경험, 훈련,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고도로 숙련된 학생들과 접촉하며 소중한 직업 경험 기회와 미래 잠재적 고용 창출을 돕는다.

미드켄트 대학은 16세 이상(연령 상한제 없음)의 청소년들에게 중간, 고급, 고등 견습제도를 제공한다.

17) T-Level은 2020년-2022년 사이 잉글랜드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사반 자격(UK Parliament, 2019).

(4) 취약계층 지원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는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들을 돕고 지원 투자하고 있다. 켄트주 카운실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지원고용에 대한 조항을 늘렸다. 또한 고난도 기술 부족뿐만 아니라 팀워크, 문제해결, 자기신념, 자기관리 등 소프트스킬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년들에게 직업의 세계, 어떤 방향을 택하고 싶은지, 현재 본인이 가진 기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업무와 업무 에티켓 등에 대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지역 당국은 취업과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25세까지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메드웨이는 현재 16세 이후 학생들을 위해 419개의 교육건강관리계획(EHCPs: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s)을 유지하고 이는 향후 2020/21년에 더 증가할 것이다.

스킬넷(Skillnet)은 장애나 자폐증 청소년(16-25)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2017년 9월에 8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메드웨이 프로그램으로 고용주들에게 SEND를 가진 청소년의 채용을 적극 설득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브래드필드 아카데미(Bradfields Academy)는 말하기, 언어, 정서, 감각, 신체 및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수전문교육을 해공하며, 포럼(the Forum)은 장애청소년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부모, 가족, 보호자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NHS와 메드웨이 카운실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단체와 함께 일한다.

5. 요약 및 시사점

영국의 청소년 대상 진로와 취업지원 실태와 서비스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이 현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진로지도나 고용시장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과 장기간의 준비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대상의 진로지도나 취업교육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로지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현재 영국의 취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영국은 2016년 개편된 시민교육과정에서조차 경제관련 교육을 별도로 포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나름대로의 청소년대상의 경제와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진로와 취업지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고급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간의 저임금, 저기술 일자리로의 취업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진로와 취업지원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한국과 달리 특정 직업에 대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임금, 저기술로 대변되는 단순 사무직 관련 업종이나 이에 필요한 단순 기술을 함양하는 것보다 개인의 기본적인 직무와 진로와 관련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은 위에서 제시한 교육체계에서 드러나듯이

교육제도가 한국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의 공조체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핵심역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진로역량은 학교의 교과교육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밖 경험과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도 다양한 진로역량 관련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지
도(Youth Work)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은 진로와 취업에
관한 교육이 영국에 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
에서 산발적으로 직업위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Youth Work)분야
의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관점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관점
에서 여러 교육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로지도와 진로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4장 독일

- 1. 배경
- 2.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 3. 시사점

1. 배경

2016년에 독일에서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직업교육자격을 갖추고 졸업한 사람의 경우 실업률은 4.2%로 나타나지만, 직업교육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경우 실업률은 2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단계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직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실업률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직 위험이 훨씬 높고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졸업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찍부터 다양한 경로와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연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교육연구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졸업과 연결 - 양성교육 종료까지의 교육연계(Abschluss und Anschluss—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 프로그램이며 조기에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연방 정부, 연방 주 및 연방 고용 기관에서 다양한 자금 지원 수단 지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사례분석으로 각 주정부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으로 라인란트-팔츠 주 교육부가 2016년부터 실시한

18) 이 장은 유진영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콜로키움 발표자료를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음.

학생 역량분석프로그램 ‘Profil AC’, 작센 주에서 실시한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교육연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외에 학교, 고용정보센터(BiZ) 및 연방고용지원센터(Agentur für Arbeit)에서도 직업교육 및 직무 활동 기회를 맞춤형 제공, 전문화 및 평생교육, 취업 시장 전망을 지원하고 있다.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와 달리 대학의 졸업예정자의 경우 실업률은 2.6% 정도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최근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JOBSTARTER plu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학 중도포기자에게 기회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습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학과 기업이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각 주정부의 지원이 있는데 작센 주의 경우 직업아카데미 학생에게 직업교육 급여를 보장하는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타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 30세 이후부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해 직업 찾는 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1)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1) 고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 진학지원 서비스: 독일의 학비지원, 생활비지원 등

2016년에 독일에서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연방차원에서 직업교육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한 실업률은 20.0%로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실업률의 경우는 4.2%로 거의 5배나 높았다.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그룹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은 2.6%만이 실업률을 보였다. 독일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은 다른 자격 그룹에 비해 실직 위험이 훨씬 높다. 동시에, 그들은 고용되어 실업자를 벗어날 기회가 훨씬 적고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비숙련 근로자는 실업자의 거의 절반(50%)을 차지하며, 비숙련근로자의 15% 정도만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보장보험 의무에 준해 일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Statistik der Bundesagentur, 2019).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교졸업자로서 취업을 할 경우 직업교육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독일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독일 사회는 자격(Qualifikation)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격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하급의 일자리를 얻거나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독일에서는 조기에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독일 교육연구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졸업과 연결 - 양성교육 종료까지의 교육사슬(Abschluss und Anschluss -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① 교육연계 이니셔티브(Bildungsketten)

교육연계 이니셔티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방 정부, 연방 주 및 연방 고용 기관의 다양한 자금 지원 수단이 조정된다. 이 이니셔티브 교육연계의 중요한 활동분야는 직업오리엔테이션, 학교에서의 개별 지원 및 학교와 직업 훈련 또는 대학교육 간의 연계이다. 이러한 지원방침에 대한 요구는 매우 크다.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며 직업교육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면서 학교를 중단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이처럼 나름대로 교육과 미래전망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방황하지만, 회사는 이런 청소년

들을 견습생으로 찾고 있다. 따라서 학교재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오리엔테이션 주제 외에 직업분야에 대한 실용적인 테스트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이 실시된다.

A. 잠재력 분석:

잠재력 분석은 7학년 또는 8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개별 직업 오리엔테이션의 첫 단계에 해당됨.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 숨겨진 재능 및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함. 잠재력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받고 결과적으로 직업지향과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됨.

B. 직업체험 기회제공: 산업체 탐방

실질적인 진로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8 학년부터 시작됨. 청소년들은 2주 안에 전문지도하에 최소 3개의 전문 분야를 알아가게 됨.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성향과 재능을 테스트 받고 미래의 직업 선택에서 직업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통찰력을 얻게 됨. 이를 기초로 하여 추후 실습(인턴십) 경험을 쌓게 되는데 이 과정은 연방 고용 기관의 조치에 의해 뒷받침됨.

C. 개인적인 지원 및 자원봉사 지원:

독일 교육연구부(BMBF)가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로 자금을 조달한 경력지원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49조 사회보험법(SGB) III에 포함되었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지원받고 직업훈련까지 지원됨.

2015년부터 경력지원프로그램은 연방고용서비스의 ESF Federal Career Entry Program에 있는 2,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음. 학교와 직업훈련 사이의 전환과정에서 초기 자격, 보조 훈련 또는 직업훈련 전 조치와 같은 추가

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9a).

사례1: 라인란트-팔츠 주

라인란트-팔츠 주 교육부는 2016년부터 학생 역량분석(Kompetenzanalyse) 프로그램 ‘Profil AC’을 시행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 졸업 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진로를 찾도록 본인의 장점과 능력을 알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잠재적 능력을 포함한 학생의 포괄적인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학생역량 분석 프로그램인 ‘Profil AC’는 7학년부터 시행하는데 개인 또는 그룹별로 컴퓨터를 활용한 테스트와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다. 이는 학력 분석과는 다르게 팀 능력, 이해력, 이성적 사고 등 학제적이고 직업과 연관된 능력을 분석한다. 컴퓨터를 토대로 한 이 분석은 인지적, 방법론적, 직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독일어, 수학, 영어 능력도 대상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하여 장점을 파악한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인식하고 교사가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학생의 역량 프로파일은 학생과 교사가 학습, 지원, 직업선택 방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토대로 활용된다. 이 역량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는 다양한 연습을 통해 역량 분석 실행방안과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을 제공받는다. 때로 잠재력(역량)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교사는 2일간의 연수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Profil AC’ 프로그램은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7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었고 2017년에는 90개교, 2021년까지 주 전체 학교가 확대되어 실행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역량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교육 또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인란트 팔츠 주 교육부는 역량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단점이 아닌 장점에 대해 알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진로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은 이를 통해 미래 직업진로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학생을 새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 개별 지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부모 또한 자녀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62).

사례2: 작센 주

작센 주 교육부는 독일연방과 지역의 고용지원청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실시 중인 교육연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청년)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등교육 1-2단계 학생을 위한 연방, 주, 연방 고용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개발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김나지움 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력 분석을 시행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특히 김나지움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력 분석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잠재력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작업장에서 조기에 개별적으로 실습하며 직업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작센 주는 주 내에서 일괄적으로 ‘프로필 AC 작센(Profil AC Sachsen)’ 잠재력 분석과정을 통해 7학년 학생의 장점과 흥미를 분석하고 있다. 그 후 학생들은 8학년 때 시행하는 작업장 학습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발달시키고 연계하여 9학년 학생의 의무인 기업 실습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 노동부는 학교 졸업 후에 직업으로의 이행기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작센 주가 연방고용청 및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나지움 학생도 구조적인 직업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작센 주 고용지원청 또한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진로교육 관련 모든 방안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모든 청소년이 직업예비교육 시작부터 직업교육 종료 때까지 조기에 질 높은 개별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교육 중도포기를 방지하여 기업이 미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71).

② 고용지원센터(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의 지원

학교, 직업정보센터(BiZ) 및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직업 교육 기회, 직무 및 활동, 전문화 및 평생 교육, 취업 시장 전망, 신청 절차 및 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생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조언: 청소년의 경력 포부, 목표, 기대 또는 두려움과 문제에 대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본인의 강점을 대화의 중심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자조를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교육에 대해 토론할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 해당 지역에서 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직업교육과 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지역 내에서 어떤 직업이 회사와 학교에서 훈련되는지를 알려주며 지역의 회사와 직업학교를 학생들에게 긴밀히 연결시켜준다. 또한 모집 및 입학요건뿐만 아니라 신청 및 등록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고용 시장에 익숙하도록 연습시킨다. 이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발시험 및 면접 준비를 위한 팁도 제공한다.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직업 훈련을 시작하거나 직업훈련 중에 생계를 유지하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 직업선택테스트(BWT) 제공: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 학생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자가 문의를 도와준다. 상담자는 회사가 원하는 학생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선택테스트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고용기관의 인터넷 포털 및 정보 브로슈어에서 직업 선택, 직업 및 교육 주제에 관한 많은 정보와 제안을 찾을 수 있다(Bundesagentur fuer Arbeit, 2019).

③ ‘직업선택패스(Berufswahlpass)’ 실시

청소년이 해당 분야에서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업관련 활동을 기록하는 ‘직업선택패스(Berufswahlpass)’를 실시하여 조기에 자신의 직업을 찾고 이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

A. 직업선택패스의 개념(구상)

중요한 사회 문제로서 초기 경력 오리엔테이션을 다룬다. ‘직업선택패스(Berufswahlpass)’은 전국적인 보급과 연방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청소년에게 동반자 역할뿐만 아니라 직업 및 연구 지향의 주요 도구가 되어왔다.

B. 직업선택패스에서 제공하는 것

- 자기 이니셔티브, 자기 책임 및 오리엔테이션 기술을 장려하고 개별 학습 계획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함
- 진로 오리엔테이션 내용구성을 제안하고 학교 내부의 진로 및 학습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투명하게 만들
-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명확히 하고 학습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다루고, 초기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함
- 직업선택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문서화(예 : 산업체 실습, 교육적 프로젝트, 학교 및 과외 활동 등을 기록)
- 학교에서 직장과의 취업으로 전환과정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함(Bundesagentur fuer Arbeit, 2019)

2)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1)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 참여자는 60-70%, 대학교육 참여자는 30-40%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원화 직업교육 참여율도 몇 년간 정체 상태로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의 비율은 각각 50%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기관 프로그노스에이지(Prognos AG)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17%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92).

(2) 대학중도포기자

독일의 대학 진학률 증가와 함께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2017년 현재 독일 대학생의 29%가 대학을 성공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업을 포기한 이유로는 학업 능력부족이 가장 많았으나 학업을 위한 동기가 부족하거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독일 교육연구부는 대학 중도 포기생을 지원하는 JOBSTARTER plus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중도포기자들을 이원화 직업교육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공회의소, 대학 및 고용 기관과 같은 네트워크 파트너와 졸업생을 위한 자문 및 추천 구조 구축, 직업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경력 및 경력 전망에 대한 조언, 지원 과정 및 교육 장소 검색에서 졸업생 지원, 연수생으로 졸업생을 채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조언, 학생들에게 산업체 교육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 전략 및 교육적 도구를 개발, 회사의 요구 사항 프로필을 청년의 지원자 프로필과 일치시키는 일 등을 지원한다(Jobstarter, 2019).

3) 성인 대상 정책 및 서비스

(1) 직업교육훈련 30세 이후부터 프로그램(Ausbildung ab 30 Programm)

일반적으로 16-17세에 시작하는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30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며 어떤 이들은 먼저 졸업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직업분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을 일찍 만들어 자녀를 먼저 보살피거나 돈을 빨리 벌어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몇 년 동안 일한 후 새로운 직업교육 훈련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훈련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이는 큰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일부 회사는 특히 시작부터 이러한 훈련생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미 전문적인 활동 능력과 개인적인 수준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에서 은퇴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일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현재 2~3년의 훈련을 받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2~3년간의 훈련기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30세 이후부터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것은 다음의 경우처럼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다.

- 훈련 후 지속적인 교육 덕분에 많은 개발 기회가 있음
 -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원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적어짐
 - 직업훈련 후 급여가 미숙련 근로자의 월급보다 높음
 - 향후 전망 개선
 - 실업자일 경우 이 기간 후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높은 기회가 제공됨
- (Ausbildung, 2019)

(2) 아카데미 실업자는 계속교육을 통해 목표도달

독일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매년 약 400,000 명의 대학을 졸업 한 사람들 중 약 20%가 일자리를 찾는 데 6개월이 필요하고, 15%는 1년이 필요하며, 졸업생의 12%가 첫 직장을 얻는데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또 고등 교육 연구소(HIS)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 후 1년이 지났지만 두 명 중 한 명만이 영구 직업을 갖게 되며 특히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실직 졸업생이 비교적 적은 것은 소위 MINT 전공(수학, 컴퓨터 과학, 과학 및 기술 분야)으로 90%는 산업 수요 때문이다. 지리학자, 임업, 지리학자 및 경제학자조차도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카데미 실업자들은 직업 대신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속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종종 프로그램의 IT, 미디어, 기술 또는 상업용 직업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모듈식이며 과목 전반에 걸쳐 수강할 수 있고 특히 사립 교육 기관의 경우, 훈련생과 미래 고용주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 배우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제안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Karrierebibler, 2019).

3. 시사점

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른 직업교육이다. 독일 사회의 이원화 직업 교육은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여 직업교육을 받게 하므로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은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른 나이에 진학과 취업을 결정한 후,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폭넓은 견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견습제도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투자이다. 독일

의 체계화된 직업교육은 이른 나이에 인턴십 등으로 현장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독일의 견습제도는 이른 나이에 현장에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또한 견습제도의 운영이 미래 독일 산업발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견습제도에 대해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변경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는 독일의 대학 진학비율과 졸업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진로변경을 위해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 직업교육의 방향은 진학, 취업, 훈련 등에서 벗어난 저숙련 노동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직업교육과 체계화된 견습제도 등을 운영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숙련 노동자로 성장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5장 스웨덴

- 1. 개요
- 2. 스웨덴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 3. 시사점

1. 개요

1) 스웨덴의 청년정책

스웨덴은 1994년부터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Ungdomspolitik)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스웨덴 청년정책의 초점은 청년들이 직장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지침은 정부 기관의 결정 및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를 다루는 공공 부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스웨덴은 광범위하게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나라이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교육부(Utbildningsdepartemente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장기적 차원에서 스웨덴의 청년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과 의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가을 스톡홀름(Stockholm), 예테보리(Göteborg), 옌쇠핑(Jönköping), 말뫼(Malmö), 룰레오(Luleå) 등 5개 도시의 청년들과 더불어 상담 및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3년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청년정책인 ‘청년 중심(Med fokus på unga-en politik

19) 이 장은 김기수 박사(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시간강사)가 작성하였음.

för goda levnadsvillkor, makt och inflytande; With youth in focus—a policy for good living conditions, power and influence)’을 제안하게 된다. 청년정책의 목표와 범위 등에 다룬 스웨덴 정부의 본 제안은 2014년 스웨덴 의회(Riksdag)에서 통과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나아가 2015년 11월 ‘청년 NEET를 위한 전략(Vägar framåt-strategi för unga som varken arbetar eller studerar; Ways forward—a strategy for young people who neither work nor study)’을 발표(U2015/05478/UF)하기도 하였다(Regeringskansliet, 2019).

2) 스웨덴 청년정책의 목표와 내용

2013년에 제안되어 2014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현 스웨덴 청년정책의 핵심 목표는 “모든 청년들이 양호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²⁰⁾는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에 관련된 스웨덴 정부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청년의 관점(ungdomsperspektiv; youth perspective)’에 기초해야 한다. 청년의 관점은 인권을 바탕으로 하며 청년은 배경과 조건을 달리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년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모든 청년이 사회에서 영향력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있어 이러한 목표 및 방향 설정에 따라 스웨덴 청년정책은 교육, 고용, 민간 경제, 주택, 건강, 권력, 문화 및 여가 등 청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하게 되는데, 2014년 도입된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현재 13-25세 청년들의 요구 사항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la ungdomar ska ha goda levnadsvillkor, makt att forma sina liv och inflytande över samhällsutvecklingen.”

- 청소년 관련 정부 결정과 행위에 대한 새로운 목표
- 청소년정책의 범위, 실현 및 평가
- 2014-2017년 실행 프로그램 40여 가지
-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에 관해 다루는 법률의 개정안 포함.
- 청년정책의 제안에 따른 제반 영향

3) 스웨덴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

2013년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을 13-25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년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6-25세 사이의 아동 및 청년 1,000명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련 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법률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에 대한 연령 범주는 관련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스웨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대상 중심 그룹은 교육과정에서 조기에 이탈(ELET: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하는 청년과 청년 NEET이다.

(1) ELET 청년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료하지 못한 16-20세 사이의 청소년이 중점 대상이다. 스웨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 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는 교육법(Skollagen; Education act)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하다(Sveriges Riksdag, 2019).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6-20세 사이의 청소년이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그들에 대해 적절한 개별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해당 조치는 대체로 청소년 개인으로 하여금 중등교육과정을 시작하거나 완료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제반 조치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은 2014년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2) 청년 NEE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스웨덴 정부는 청년 NEET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해당 청년들을 위해 2018년까지 정부가 취할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청년들로 하여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초점은 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NEET에 대한 정보 축적,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등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로 전환한 청년에 대한 분석,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 NEET를 위한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 및 기존 협업체계의 개발에 있어 정부의 지원, NEET 및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정 등이 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정책 대상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청년 NEET를 위한 국가 코디네이터(Samordnare för unga som varken arbetar eller studerar; Coordinator for young people who neither work nor study)’(스웨덴 정부, 2019)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15-25세 사이의 청년 NEET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협약(Om samverkan för att minska ungdomsarbetslösheten; Ordinance on cooperation to reduce youth

unemployment)’(Insyn, 2019)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계약 및 훈련과정에 포함되는 16-24세 사이의 청년

4) 청년정책 거버넌스

(1) 청년 관련 법규

현재 스웨덴에는 청년들의 권리와 요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령을 예로 들 수 있다(Sveriges Riksdag, 2019).

- 특정 기능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 청소년보호법(Lag med särskilda bestämmelser om vård av unga; Care of young persons act)
- 교육법(Skollagen; Education act)
- 고등교육법(Högskolelag; Higher education act)
- 부모규약(Föräldrabalken; Parents code)
- 사회복지서비스법(Socialtjänstlagen; Social services act)

스웨덴 의회는 2010년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해 다루는 모든 법률을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공식화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2017년 스웨덴 정부는 해당 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2020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될 수 있도록 입법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 기관

- ① 정부와 교육부(Utbildningsdepartemente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정부는 청소년정책의 실행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 책임이 있으며, 교육부는 청년 정책을 관장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담당한다. 또한 개별 부문 청년정책의 목표 및 후속조치를 포함한 전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Regeringskansliet, 2019).

② 청년 및 시민사회청(Myndigheten för ungdoms-och civilsamhälles frågor; The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

청년 및 시민사회청은 스웨덴 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MUCF, 2019).

- 청년의 생활여건, 태도 및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전국적 차원으로 전파
-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청소년 관련 통계 작성
- 청년의 생활여건, 힘,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이의 전국적 전파
-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활동
- 자치단체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식기반 청년정책 개발 지원
- 상기한 활동에 있어 젠더 편향 및 차별 금지

③ 기타 정부기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청년 NEET를 위한 국가 코디네이터(Samordnare för unga som varken arbetar eller studerar; Coordinator for young people who neither work nor study)’를 임명하였다. 코디네이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NEET를 위한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

터는 청년 및 청년 대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년의 견해와 관점이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신규 이민자 고용을 위한 대표단(Delegationen för unga & nyanlända till arbete; Delegation for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and newly arrived migrants)’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 임무를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학교감독원(Skolinspektionen; The Swedish Schools Inspectorate)’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에 관해 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학교감독원은 2016년에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조기 이탈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개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Skolinspektionen, 2019).

이밖에도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tatistics Sweden)’은 청년 관련 통계작성과 배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Statistiska centralbyrån, 2019),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교육 조기 이탈 방지 등을 위한 제반 조치에 책임이 있다(Skolverket, 2019).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rådet; The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는 교육에 대한 개인의 필요와 고용주의 요구 수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Folkbildningsrådet, 2019).

2. 스웨덴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1) 스웨덴의 교육 및 훈련체계

(1) 개요

스웨덴 교육법(Skollagen)에 따라 모든 스웨덴 사람은 거주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중등교육(고등학교 과정; gymnasieskola)을 받을 수 있다²¹⁾. 이에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재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법에 따른 핵심 과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장생활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적 장애를 비롯하여 일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고등학교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중등교육에 있어 조기 이탈자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

스웨덴의 모든 청소년들은 9년간의 의무교육 과정(grundskola)을 마친 후 중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에 따르면,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중등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비율은 1% 정도였다. 과도한 결석 등의 사유로 중등교육 과정에 바로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초급 고등학교 프로그램(introduktionsprogram; introductory programmes)이 제공된다. 대부분은 학생들은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전체 학생 중 2%는 1학년 때 학교를 떠나며, 전체적으로는 3년 안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약 5% 정도이다. 초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2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24%, 고등학교를 3년 안에 끝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은 약 35%이었다 (Skolverket, 2019).

(2) 구성

스웨덴 의회와 정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단계에 대해 설정한 목표치에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에 부합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게 된다. 교육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입법 체계 내에서

21) 스웨덴 교육법 제8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본 법률의 특별 조항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그의 지리적 거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학교 시스템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Alla ska, oberoende av geografisk hemvist och sociala och ekonomiska förhållanden, ha lika tillgång till utbildning i skolväsendet om inte annat följer av särskilda bestämmelser i denna lag.)”

해당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내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조직 구성, 개발 및 평가를 포함하는 지역 학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Regeringskansliet, 2019).

- 유아 교육 및 보육
- 의무학교
- 지적장애 학생을 특별교육(särskolan)
- 고등학교
- 지자체 성인교육
-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특별교육(särvux)
-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 svenskundervisning för invandrare)

초등학교 9학년 차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할지, 즉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가능한 한 프로그램의 수와 입학 예정 학생의 수를 일치시킨다. 간혹 지원자가 할당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의무학교의 최종평가에 따라 결정하기도 한다.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른 거주지별 우선순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학교(friskolor) 역시 대체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비용의 부담이 없다.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독립학교도 존재한다.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중등교육 과정은 18개의 국가 프로그램과 5개의 입문 프로그램(introduktionsprogram; introductory programme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프로그램은 다시 12개의 직업 프로그램(yrkesprogram;

vocational programmes)과 6개의 고등교육(대학) 예비 프로그램(högskoleförberedande program; higher education preparatory programmes)으로 나뉜다. 발달 장애나 뇌 손상 등으로 인해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무상으로 특별고등학교(USSILD: Gymnasiesäterskola)에 다닐 수 있다. USSILD에는 총 4년 과정으로 구성된 9 개의 국가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이 있다.

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인 대학(Komvux: kommunal vuxenutbildning; municipal adult education)이나 성인고등학교(folkhögskola; folk high schools)에 입학할 수 있다. 해당 학교를 마치게 되면 ISCED-level 3(중등교육 수료) 또는 ISCED-level 4(비 3차 고등교육 자격) 자격을 취득한다.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전문대학(yrkeshögskola), 단과대학(högskola), 종합대학(universitet)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에는 ISCED 레벨 4와 5를, 단과대학에는 ISCED 레벨 5를, 종합대학에는 종합대학은 ISCED 레벨 6과 7을 부여한다.

표 V-1 스웨덴의 교육체계

일반 교육				진학 선택	성인 교육
구분	연령	학년			
고등교육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25 이상		박사과정		
	23-24		석사과정(1~2년)		→
	22		석사 예비 과정		
진학 선택	19-21		학부과정(2~3년)	↑	→
중등교육	16-18	1-3	일반교육/직업교육		→
초등교육	진학 선택			↑	
	15	상급 학년			
	14				
	13				
	12				
	11	중급 학년			
	10				
	9				
	8	초급 학년			
	7				
진학	6		예비학년		
선택	1-5		유치원	유치원 외	

(3) 관리운영

① 부처 간 협력

스웨덴 정부의 관점은 교육과 노동 사이에 협력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제대로 훈련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원활하게 학교에서 직장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해당 협약은 보통 관련 분야 직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무 시간 중에 직무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까지 직장에 기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구조와 조건을 개발하는 정부과제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② 관리운영의 주요 주체

교육 부문 관리운영에 관한 주무 부처는 스웨덴 교육부(Utbildningsdepartemente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이다. 교육부 산하의 다음 기관들이 세부 분야를 담당한다.

A. 교육청(Skolverket;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유치원 활동(förskoleverksamhet; preschool activities), 학내 보육(skolbarnsomsorg; school-age childcare), 초등학교(grundskola), 고등학교(gymnasieskola),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Komvux)을 담당한다. 교육청은 해당 부문들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자치단체 및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 전반적 운영 및 교육의 질과 결과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B. 학교감독원(Skolinspektionen; The Swedish Schools Inspectorate)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는 물론 독립학교 등이 교육 부문과 관련된 현행 법률과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모든 학교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며, 독립학교의 신규 설치 시 자격을 부여할 책임도 맡고 있다. 한편으로 보조금 신청에 따른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고등학교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감독도 시행한다.

C. 특별교육청(Specialpedagogiska skolmyndigheten; The National Agency for Special Needs Education and Schools)

특별 학교 및 교육 분야에 대한 공적 자금의 할당을 담당한다. 특히 장애와 관련된 특별 교육 관련 학교 운영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Specialpedagogiska skolmyndigheten, 2019).

D. 교육연구원(Skolforskningsinstitutet; 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성인교육 분야의 교사 및 기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및 평가를 위한 제반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및 개발을 장려하고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Skolforskningsinstitutet, 2019).

E. 고등교육청(Universitetskanslersämbetet; The Higher Education Authority)

고등교육의 질을 파악하고 고등교육 기관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청은 스웨덴 고등교육에 관한 공식 통계를 담당하며,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한다(Universitetskanslarsämbetet, 2019).

F. 고등교육위원회(Universitets- och högskolerådet; The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스웨덴 고등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및 해외에서의 학력 인증 문제를 담당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협력 문제를 담당한다(Universitets- och högskolerådet, 2019).

G. 학자금 지원위원회(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The Board for Study Support)

학업을 위한 재정 지원 등 학생들의 제반 사회적 조건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해당 운영방법의 평가와 후속조치에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2019).

H. 전문대학청(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The 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전문대학에 관한 모든 공적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기관의 주요 임무는 전문대학과정에서 제공할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각 대학에 지원할 공적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며, 교육의 품질 및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요구 분석 등의 과업도 수행한다. 유럽 평생학습제도 인증(EQF)의 스웨덴 담당 부처이기도 하다(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2019).

I. 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rådet; The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의회와 정부가 주도하여 기구로, 성인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배정 및

성인교육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Folkbildningsrådet, 2019).

2) 청년 대상 교육 관련 핵심 정책: 해외유학 증진

(1) 개요

2011년 11월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고등교육 수료자의 20%, 전문대학 수료자의 6%가 해외에서의 유학 및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해외유학 증진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각급 고등학교 교장은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해외유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감독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해외유학 증진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스웨덴의 각 조직 및 개인으로 하여금 국제적 교류 및 상호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The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는 스웨덴, 북유럽 이웃 국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²²⁾. 이 기관은 유치원, 각급 학교,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전 교육 부문에서 국제적 교류 및 상호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대체적으로 각급 학교나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조직이 고등교육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한 기금을 신청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이를 심사하여 통과하게 되면, 학생이나 직원을 다른 국가로 파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22) 이에 모든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https://www.utbyten.se/>)를 운영 중에 있음.

(2) 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

스웨덴에 거주하는 중등교육과정 학생들은 재학 중인 각자의 학교를 통해 다양한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대부분의 스웨덴 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해외의 동급 교육기관과 다양한 협약을 맺고 있어 이를 활용한 해외유학 및 실습이 가능하다.

①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유학정보

실업계 고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성인 직업교육 분야의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증진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② 중등교육 부문 협력을 위한 북유럽 협약(Nordic Agreement on Co-operation on Upper Secondary School Education)

본 협약에 따라 북유럽 국가²³⁾의 모든 청소년들은 이웃 북유럽 국가의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 협약에 따라 개별 북유럽 국가들은 이웃 국가에서 온 청소년들이 자국 청소년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해당 협약은 북유럽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타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Nordic Council, 2019).

23) 북유럽협의회(Nordic Council)에 가입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5개 주권국가와 이들 국가의 해외 자치영토인 그린란드, 올란드 제도, 페로 제도 등 3개 자치령

③ 노드플러스 프로그램(Nordplus Junior)

북유럽 국가 및 발트해 국가²⁴⁾ 유치원, 초등학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학교 등의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 학생 및 교사의 교환, 학생들의 직업실습 등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④ Erasmus+ mobilitet skola(Erasmus+ Mobility)²⁵⁾

직업교육과정 학생(직업학교의 학생 및 도제 포함)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해외의 직업학교나 직장(기업 또는 관련 조직)에서 진행된다. 젊은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직업학교의 졸업생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⑤ 1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스웨덴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독일, 스페인, 또는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스웨덴에서 받았던 교육과정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스웨덴 학생들은 현지 언어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 성적이나 평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매달 학업 보조금 및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24)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25)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의 해외유학 관련 홈페이지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아래에 소개하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 및 직능 관련 인력교류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음.

⑥ Atlas praktik(Atlas Practical Training)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관련 교육기관에 다니는 성인들이 외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개발함은 물론 문화교류 및 언어능력 향상 등에 있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습은 파견 국가의 관련 직장 및 조직에서 진행하게 된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3) 고등교육과정(대학교)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는 스웨덴 대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학생들은 각 개학을 통해 다양한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스웨덴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 노드플러스 고등교육 프로그램(Nordplus högre utbildning; Nordplus Higher Education Programme), 린네-팔메 프로그램(Linnaeus-Palme partnerskap/Linnaeus-Palme planering; Linnaeus-Palme Programme)²⁶⁾ 등이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대부분의 스웨덴 대학들은 다른 나라의 대학과 자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3-12개월 동안 스웨덴 외의 국가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그 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해당 프로그

26) 스웨덴 출신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칼 린네(Carl von Linné; Carl Linnæus, 1707-1778)와 정치가였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 1927-1986)의 이름을 딴 것임.

램의 관리는 고등교육위원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체류 국가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각자의 대학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통해 해외 체류에 따른 초과 비용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②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석사 프로그램(Erasmus mundus gemens amma masterprogram; 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문적인 학위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의 대학생들은 본인이 재학 중인 스웨덴 대학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공동석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환프로그램과 달리 공동석사 프로그램에는 등록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비, 생활비, 그리고 등록금 일부가 포함된 보조금의 신청은 가능하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③ 노드플러스 고등교육 프로그램

북유럽 및 발트해 지역 국가에서 진행되는 학석사 수준 유학 및 교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여 기관들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노드플러스 프로그램은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개발과 결과 활용, 공동 학술연구 활동, 학생 및 교수진 간 이동을 지원한다.

④ 린네-팔메 프로그램

경제적 발달이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의 고등교육기관과 추진하는 장기적 차원의 양자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이외의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류협력은 교수진과 학생의 교환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각 프로젝트는 그 주된 목표를 참여 학생 및 교수진의 전문역량을 개발하고, 해당 문제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채용 기회를 증진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하는데 두어야 한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⑤ 에라스무스 청년활동(Erasmus+ virtuellt utbyte; Erasmus+ Youth in Action)

비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은 특히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최근에는 이민자 청소년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78명의 신청자 중 134명에게 지원이 승인되었다(2015년에는 각각 193명 중 126명, 2014년에는 각각 152명 중 100명)(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4) 성과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은 학습을 목적으로 한 스웨덴 젊은이들의 유럽 내 이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최소 2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재학 중에 있는 18~34세 사이의 스웨덴 학생들 중 17%가 최소 3개월 이상의 해외유학을 경험하여, 애초에 유럽연합이 목표했던 20%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는 스웨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해외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약 6%는 완전한 해외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직업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약 10%가 최소 2주 이상의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했던 기준치인 6%를 상회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중 70%는 해외 직장에서, 나머지

30%는 해외 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2014년 기준 18~34세 인구 220만 명 중 약 70만 명이 학습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25%의 사람은 언어학습, 스포츠 및 수학여행, 회의, 사례조사 등의 비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유학을 포함한 유럽 내 고등교육의 사회적 사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Eurostudent 프로젝트에 따르면, 스웨덴의 고등교육 이수자 중 약 14%가 해외유학 및 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이 수치는 타 유럽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해당 국가에 정착하거나 가정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친척들과의 분리나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웨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학습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V-2 고등학생 대상 해외유학 증진 프로그램

구분	주무부처	대상자	내용	특성
Athena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생 성인	-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증진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 -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 - 학습장애 고등학교 학생 포함	해당 학교 교사도 신청 가능
Nordic Agreement on Co-operation on Upper Secondary School Education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생	- 북유럽 국가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웃 국가의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타국에서 온 청소년이 자국 청소년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타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 보조를 학생의 본국에 - 요구하지 않음
Nordplus Junior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 북유럽 국가 및 발트해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교환 프로그램 - 직업실습 등을 위한 보조금 신청	해당 학교 교사도 신청 가능
Erasmus+ mobilitet skola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생 성인	- 직업교육과정 학생(도제 포함)에게 최대 1년 동안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의 직업학교나 직장(기업 또는 관련 조직)에서 진행	- 직업학교의 졸업생 및 -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를 - 퇴직한 사람도 신청 가능
1년 해외연수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생	- 독일, 스페인, 또는 프랑스에서 1년 간 공부하는 프로그램 - 스웨덴에서 받았던 교육과정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에 참가	- 매달 학업 보조금 및 기타 수당 신청 가능 - 현지 언어로 참여 가능
Atlas praktik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생 성인	-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외국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실습은 파견 국가의 관련 직장 및 조직에서 진행	직업학교 성인도 신청 가능

표 V-3 대학생 대상 해외유학 중진 프로그램

구분	주무부처	대상자	내용	특성
Erasmus Programme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대학생	3-12개월 간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유럽연합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 체류 국가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비용 담당 - 본래 대학에서 보조금 지급
Erasmus mundus gemensamma masterprogram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대학원생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문 학위 프로그램 - 제학 중인 스웨덴 대학이 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 등록금 부과 - 여비, 생활비, 등록금 일부가 포함된 보조금 가능
Nordplus högre utbildning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대학생 성인	-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에서 진행되는 학석사 수준 프로그램 - 네트워킹 구축, 프로젝트 개발/활용, 공동 학술연구 활동 등 중심	교수진 간 이동도 지원
Linnaeus-Palme partnerskap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대학생	- 개발도상국과의 장기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교류협력은 교수진과 학생의 교환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의 형태	국내외 채용 기회 증진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에도 관심
Erasmus+ virtuell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비 학생 청년	- 비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신청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중심	최근에는 이민자 청소년에게 우선순위 부여

3) 청년 대상 교육 관련 핵심 정책 2-학자금 지원²⁷⁾

(1) 개요

스웨덴의 학자금 지원위원회(CSN: 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The Board for Study Support. 이하 CSN)는 학업 보조금(studiebidrag; student grant) 및 학자금 대출(studielån; student loans) 등 학자금(studiemedel; student finance) 지원 및 학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 해당 제도의 평가와 후속조치에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및 학생 대상 금융서비스는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 지원,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 지원, 기타 학자금 및 학생 금융서비스가 있다.

(2) 중등교육과정(고등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의 학생을 위한 학자금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해 봄 학기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은 다양한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학업 보조금(studiebidrag; student grant), 보충 수당(extra tillägg; supplementary allowance), 기타 보조금이 있다.

① 스웨덴 국내에서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A. 학업 보조금

고등학교에 정규 재학 중인 16세 이상의 학생은 CSN으로부터 학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한 달에 1,250SEK이며, 보통 9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10개

27) 해당 내용은 스웨덴에서 학자금 지원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학자금 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sn.se/>)에 소개된 내용을 갈무리해 정리한 것임.

월 간 지급된다. 학업 보조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단결석 시 학업 보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학생 보조금을 환불하게 될 수도 있다. 16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18세까지는 보호자에게 지불하고 18세 이후부터는 학생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B. 보충 수당

학생 가족의 세전 소득이 연간 125,000SEK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는 당해 학년도(7월 1일~6월 30일) 가족의 전체 소득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표 V-4 2019년 보충 수당 현황

(단위: SEK/세전 기준)

월간 소득	월간 보조금 액수
85,000 이하	855
85,000-104,999	570
105,000-124,999	285

C. 여행 보조금(inackorderingstillägg; boarding supplement)

독립고등학교나 성인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중 다른 장소에 거주해야 할 경우, CSN에 여행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의 고향에는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학생의 집과 학교 간의 거리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본래 거주하였던 자치단체에 여행 및 체류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표 V-5 2019년 여행 보조금 현황

(단위: km, SEK)

집-학교	0-44	45-84	85-124	125-174	175-224	225-599	600-899	900-1,299	1,300이상
월간 보조금	1,190	1,315	1,460	1,625	1,770	1,875	1,980	2,160	2,350

D. 견습 수당(lärlingsersättning; apprenticeship allowance)

고등학교의 견습 프로그램이나 직장 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설되는 기초 고등학교의 견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식대 및 여행 등에 소요되는 보조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의 액수는 학업 기간 동안에 걸쳐 한 달에 총 1,000SEK이다.

② 국외에서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스웨덴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정규 재학 중인 학생도 20세가 되는 해 봄 학기까지 스웨덴 모국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스웨덴 국내에서 중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학업 보조금은 16세 이상의 학생이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매일 1,250SEK를 지급한다. 아울러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무단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 받았던 학업 보조금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18세 이전까지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업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20세가 되는 해 봄 학기까지 지급받게 된다.

기타 보조금 및 수당의 종류 역시 스웨덴 국내에서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 그에 따른 지급액의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통해 통학하는 경우에는 통학 보조금(Bidrag för dagliga resor)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이 EU 및 EEA 역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또는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스웨덴 국적자이지 외국 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일지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스웨덴 국외에서의 중등교육과정에 대한 학자금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3) 고등교육과정(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는 학업 보조금(studiebidrag; student grant)과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studielån) 등이 있다. 20세가 되는 해 가을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20세 미만인 학생일지라도 대학교 등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대학생을 위한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은 학자금은 당연히 추후에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율은 2019년 기준 0.16%를 적용하고 있다.

① 스웨덴 국내에서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A.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대학(högskola; university college), 종합대학(universitet; university) 또는 전문대학(yrkeshögskola; vocational college) 등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상기한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성인대학(Komvux: kommunal vuxenutbildning; municipal adult education)이나 성인고등학교(folkhögskola; folk high school) 과정에 다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의 규모는 학업 참여율(전업 학생인지 아닌지 등), 학업 참여 기간, 학생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19년 학자금 지원액의 경우는 다음의 표 V-6에 제시하였다.

표 V-6 2019년 국내 고등교육과정 대상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SEK)

구분	1주	4주	20주
보조금	809	3,236	16,180
대출	1,860	7,440	37,200
전체	2,669	10,676	53,380

B. 기타 신청 가능한 보조금 및 대출

- 학생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은 추가 아동을 신청할 수 있다.
- 25세 이상이라면 기존의 직장경력을 통해 특정 최저 소득을 받았던 경우에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의무교육 또는 중등교육 과정에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업 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는데, 특정 과목 교사의 학위 취득과 연계된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CSN이 해당 학생이 추가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해당 금액의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 학업과 관련하여 거처를 달리 해야 한다든지 특정한 여비가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은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C. 학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요건

- 학자금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등록해야 해당 지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정규 교육시간의 최소 50%, 최소 3주 이상 참여해야 한다.
-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56세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과 활동 지원, 병가 수당 및 기타 추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 정해진 기간에 한해서만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a.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 최대 240주
 - b. 중등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수준에 따라 최대 80주 또는 120주
 - c. 의무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의 수준 및 현재 학업 수준에 따라 최대 40주, 80주 또는 100 주
- 이전에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또는 입학 보조금(studiestarts - stöd: education entry grant)을 통해 학업에 참여한 학생이 새롭게 보조금이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학점에 관한 요건은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한다.

② 해외에서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A.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스웨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스웨덴 모국에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세가 된 해의 가을 학기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 등 중등교육과정에 개설된 언어코스에 대해서도 해당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학업 보조금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의 생활 및 체류비 증가에 따른 해외유학 특별 학자금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의 규모는 학업 참여율(전업 학생인지 아닌지 등), 학업 참여 기간, 학생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19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V-7 2019년 해외 고등교육과정 대상 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SEK)

구분	1주	4주	20주
보조금	809	3,236	19,180
대출	1,860	7,440	37,200
특별 대출	581	2,324	11,620
전체	3,250	13,000	65,000

해외유학에 따른 학자금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스웨덴 시민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라 스웨덴 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외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해외유학에 따른 고등교육 부문 학자금 지원을 스웨덴에 신청할 수 있다.

B. 기타 신청 가능한 보조금 및 대출

해외 유학에 따른 여행경비, 보험료 및 수업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추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EU/EEA 역내인지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추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5세 이후부터는 기존의 직장경력을 통해 최저 소득을 받았던 경우라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학자금 및 학생을 위한 대출

① 입학 보조금(studiestarts - stöd; education entry grant)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위해 의무교육 또는 중등교육과정을 밟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다. 전일제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주 동안 지급한다.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특정한 기간에 걸쳐 실직 상태에 있는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학업 보조금이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코뮌

(kommun)에 신청하면 해당 코뮌이 지급 여부를 평가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입학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1회당 4주 분을 지급한다. 학생이 지급받는 보조금 액수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 참여율, 학업 참여 기간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19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V-8 2019년 입학 보조금 지원액

(단위: SEK)

구분	1주	4주
전일제 학업 참여(100%)	2,208	8,832
부분 학업 참여(75%)	1,655	6,620
부분 학업 참여(50%)	1,106	4,424

② 가정용 가구 및 집기를 위한 대출(hemutrustningslån)

지자체의 난민정착계획(kommunala flyktingmottagandet; municipal refugee resettlement scheme)을 적용받는 난민 학생의 경우, 가구 및 기타 집기 구입에 따른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침대, 의자에서부터 접시나 냄비 등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음식, 휴대전화, 집세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출금의 규모는 난민 학생 가족의 수 또는 거주하는 집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가구 및 집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은 첫 대출 후 2년 후부터 상환하기 시작해야 한다.

③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대출(körkortslån)

피고용 상태에 있는 학생은 CSN에 B종 운전면허(B-körkort; category B driving licence) 취득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구직이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연령은 18세 이상 47세 이하여야 한다. 최대 15,000SEK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취득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표 V-9 스웨덴 학자금 지원 현황

구분		항목	내용	규모	비고
고 등 학 생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의 학생 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 봄 학기까지 가능 -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할 시 환불	학업 보조금	16세 이상의 학생(보호자)에게 지급 18세 이상은 직접 수령 가능	1,250SEK /매월	국내/ 국외
		보충 수당	학생 가족의 세전 소득이 낮은 경우 신청 가능	소득에 따라 상이	
		여행 보조금	재학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거리에 따라 상이	
		견습 수당	견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식대 및 여행 등에 소요되는 보조 비용	1,000SEK /월 한도	
		통학 보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 신청		
대 학 생	- 대학생 - 성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학생	학업 보조금	20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신청	학업 참여율, 학업 기간 등에 따라 상이	국내/ 국외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019년 기준 0.16%		
		추가 아동수당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기타 추가대출	25세 이상의 최저 소득자는 추가 대출 거주지 및 통학 관련 추가 대출		
		해외 특별 대출	생활 및 체류비 증가에 따른 특별 대출		국외
기 타	- 장기 실직자 - 초중등교육 미수료자	입학 보조금	- 학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		국내
	난민 학생	가정용 가구 및 집기를 위한 대출	가구 및 기타 집기 구입에 따른 대출	가족 수 등에 따라 상이	
	피고용 상태에 있는 학생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대출	구직 가능성 증진 목적의 대출		

5) 청년 대상 교육 관련 핵심 정책 3-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1) 개요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육 부문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관련한 정치적 논의가 있었다. 특히나 기술 개발과 세계화로 인해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 내에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정치적 합의도 있었다. 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 및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2009년 스웨덴 정부는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웨덴의 국가 전략으로써,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전략(Strategi för entreprenörskap inom utbildningsområdet; Strategy for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 and Training, dnr. U2009/3635/G)’(skolverket, 2019)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치창출로 연결하는 것이다. 가치는 기업, 공공 부문 및 단체 활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²⁸⁾

해당 전략에 따르자면 사업 계획, 시작 및 관리운영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업가정신이 교육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에는 프로젝트 관리나 위기관리 등 기업 활동의 외부에서도 유용한 일반적인 기술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와 창의력을 증진하는 것도 기업가정신 교육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는 중등교육과정 및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사업을 시작

28) “att utveckla nya idéer och omsätta dessa till något värdeskapande i exempelvis företag, offentlig verksamhet eller föreningsliv.”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학 수준에 적용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아이디어의 상업적 생존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 실제 기업을 설립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기업 활동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및 실질적 연구가 포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서 전개되는 기업 활동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은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경제 및 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 The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Tillväxtverket, 2019).
 -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중등교육과정의 정책에 통합되어 강조되었다.
 - 중등교육과정이 직장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였다.
-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직업교육 등의 부문에서 진행 중인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의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스웨덴 정부는 교육법의 개정이라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커리큘럼의 변화도 수반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은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며, 현재에도 스웨덴 교과목표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사고 및 혁신적인 사고를 고양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업가

적 기능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및 추후의 학습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²⁹⁾”

(2) 상급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정신 반영

① 중등교육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기실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스웨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적용할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중등교육과정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 교육청이 판단하기에, 지역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스웨덴의 중등교육과정에서도 기업가정신을 결합한 각종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증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심화, 학생 간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 및 협력도 증진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청년사업(Ung Företagsamhet; Junior Achievement Sweden)은 비영리기관으로 1980년부터 자체의 교재 및 교사 지침서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핵심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활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Ung Företagsamhet, 2019). 이를 위해 학교는 물론

29) “Skolan ska bidra till att eleverna utvecklar kunskaper och förhållningssätt som främjar entreprenörskap, företagande och innovationstänkande. Därigenom ökar elevernas möjligheter att kunna starta och driva företag. Entreprenöriella förmågor är värdefulla för arbetslivet, samhällslivet och vidare studier.”

기업 및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관련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② 고등교육과정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진지한 이론교육에서부터 실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전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고등교육청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 기업가정신에 중점을 둔 대학 프로그램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현황에 따르면 51개 대학 중 37개 대학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개 대학에는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15개 대학에는 프로그램과 학위 과정 모두가 개설되어 있다(Tillväxtverket, 2019). 해당 프로그램과 과정은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보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석사 과정에 관련된 두 개의 프로그램은 필수 논문의 일환으로 실제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것도 있다.

아울러 보다 실무에 집중하는 전문대학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매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혁신과 개선에 주안점을 둔 ‘자기주도(initiativkänsla)’나 ‘가치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Värdeskapande projektledning)’ 등의 용어로 기업가정신을 대체하기도 한다.

(3) 기업가정신 관련 지원 정책

①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스웨덴 교육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각급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이

장려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이에 2010년 학교 관계자 및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진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와 용기-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Skapa och våga; -Om entreprenörskap i skolan; Create and dare-About entrepreneurship in school)'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skolverket, 2019).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개념과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 차례 개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스웨덴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학습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국의 대학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기업가정신 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2016년 가을에는 린네대학교(Linnaeus University; Linnéuniversitetet)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인정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였다(Linnaeus University, 2019).

북유럽 각료이사회(The Nordic Council of Ministries)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기구인데, 2011년부터 북유럽 국가에서 기업가정신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가 더욱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The Nordic Council of Ministries, 2019).

② 스타트업 관련 정보 지원

경제 및 지역성장청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공공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선 서비스 ‘Startlinjen(Starting Line)’
-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팟캐스트
- 유럽연합의 지원에 따른 스웨덴 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 The Tax Agency) 역시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일반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또 다른 주요 주체이다. 국세청은 청년 기업가를 위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스웨덴 청년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기구가 스웨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기업 연계 프로그램 ‘UF-företagande(Company Programme)’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대학도 혁신 및 상담 관련 부서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부서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취업정보는 물론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린쇠핑대학교(LiU: Linköpings universitet; University of Linköping)의 혁신 프로그램 ‘Liu Innovation’(University of Linköping, 2019), 왕립공과대학(KTH: Kungliga Tekniska högskola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의 혁신 프로그램 ‘KTH Innovation’(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2019), 스톡홀름대학교(SU: Stockholms universitet; University of Stockholm)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SU Inkubator’(University of Stockholm, 2019)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스웨덴 청년들은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제동하는 다양한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ofisam’은 스웨덴 경제 및 지역성장청, 공공고용청(Arbetsförmedlinge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및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The Social Insurance Agency)이 공동 협력해 제공하는 웹 서비스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

는 공공기관에게 스타트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ofisam, 2019).

‘Verksamt’는 스타트업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의 시작, 개발, 운영 및 종료 등에 관해 국세청, 기업등록청(Bolagsverket; The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경제 및 지역성장청 등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Verksamt, 2019).

③ 스타트업 및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자금 지원

스웨덴에서 스타트업 관련 공적 자금 지원은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청년들을 위해 조성된 별도의 공적 자금도 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공공 고용청의 자금 지원

고용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스타트업과 관련해 좋은 비전을 가진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 또는 개발 수당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구직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청년들은 특별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B. 농업위원회(Jordbruksverket)의 자금 지원

최초로 농업을 시작한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농업 관련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농업 관련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Jordbruksverket, 2019).

C. Almi företagspartner(Almi Enterprise Partner)

스웨덴 의회가 주도하여 만든 기구로 프로젝트 단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교육,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기업인, 유럽투자자금

(European Investment Fund)과 연계된 청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Almi, 2019).

6) 청년 대상 교육 관련 핵심 정책: 사회적 포용성 강화

(1) 개요

스웨덴의 교육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은 ‘모두를 위한 학교(En skola för alla: a school for all)’이다. 이것은 개인의 배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먼저 일반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은 개인적으로 장애나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또는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 역시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장애 학생들이 지닌 기능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목적의 지원에 소요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일반 교육과정에도 특수 교육 목적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särskola)
-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specialskolan)
-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교육(gymnasiesärskolan)
- 청각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교육(riks gymnasiet för döva och hörselskadade)
-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특수교육(riks gymnasium för svårt rörelsehindrade)

-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특별교육(särvux)

(2) 정규교육과정 관련 정책

스웨덴은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Statsbidrag för ökad jämlikhet): 스웨덴 정부는 2017년 국가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스웨덴 교육청은 2017년 기준 총 5억 SEK(약 7,000억 원)의 보조금을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교부하는 과제를 담당하였다(Skolverket, 2019).
- 방학 중 교육: 교육기관은 방학 기간 동안 의무학교 8학년과 9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지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는 학생, 특히 고등학교 국가프로그램 자격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이 제도는 2017년에 발표되었는데, 관련 비용으로 자치단체는 총 6,000만 SEK(약 900억 원)를 증액하여 학교에 교부하였다.
- 숙제 지원: 학생들의 숙제 지원을 위해 2016-2019년에 걸쳐 연간 약 3억 9,000만 SEK(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각종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0SEK(약 15만 원)의 기본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3) 이민자 청년

2015년 기준 약 75,000명의 아동과 청년이 스웨덴에 새롭게 이주하였다. 이중 약 45,000명이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동년 기준 75,000명의 이민자

청소년이 스웨덴의 전체 16~18세 인구의 8%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을 기해, 이민자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가 수행해야 할 필수 업무가 되었다. 교육청은 기술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특정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시행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자치단체는 새롭게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상당한 경제적 보조를 받고 있다. 약 980억 SEK(약 1조 5,000억 원)이 신규 유입된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도록 각급 자치단체에 교부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이민자 청소년을 수용한 자치단체에는 추가로 2억 SEK(약 350억 원)이 지원되었다.

(4) 청년에 대한 인식

① 사회적 응집 강화와 기회의 균등 진작

학습지도 교육프로그램(rektorsprogrammet)은 학교장이나 유치원 관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모든 아동과 학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법규 및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 책임자의 의무, 그리고 특별한 지원(särskilt stöd)을 요하는 학생이나 활동 제한(funktionsnedsättningar)이 있는 학생들에 관해 중점을 두고 있다(Skolverket, 2019).

2017년 1월 1일부터는 학교가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차별금지법(Diskrimineringslagen; Discrimination Act)이 발효되었다(Sveriges Riksdag (2019)). 이 개정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유치원, 학교 및 교육법에 의해 규제되는 제반 교육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별, 성 정체성, 인종, 종교 및 신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 차별로 귀결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성폭행을 포함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도 해당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② 청년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스웨덴 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NEET 를 위한 국가 코디네이터(Samordnare för unga som varken arbetar eller studerar; Coordinator for young people who neither work nor study)를 운용하였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해당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토록 하는 데 있으며, 정책의 조정은 정부기관 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해당 주체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Regeringskansliet, 2019).

대체적으로 스웨덴에서 청소년 대상의 정책에서 모든 청소년은 문제 요인이 아니라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긍정적 관점으로 파악되어왔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 센터 및 청소년 클럽 등을 포함한 제반 청소년 활동은 자치단체의 소관이다. 해당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신앙공동체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관리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스웨덴 정부는 NEET, 폭력 및 급진화 위험이 있는 청소년, 이주민이나 소수민족 출신 청소년, 청소년 LGBT, 장애 청소년 등 취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통

지역의 보건센터나 학교, 시민사회단체, 경찰, 청소년 센터, 청소년 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 시스템 개선

스웨덴 학교위원회(Skolkommissionen; The School Commission)는 스웨덴 각급 학교의 학습 성과, 교육의 질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017년에 제출된 보고서 '지식과 평등을 위한 학교전략 수집(Samling för skolan-Nationell strategi för kunskap och likvärdighet)'에 따르면, 스웨덴 학교 시스템은 심각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분열되고 파편화된 학교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 간 협력은 물론 기타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Regeringskansliet, 2019).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한 교육서비스 주체 강화
(Stärkt huvudmannaskap genom statligt stöd och samverkan)
- 학교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Kompetensförsörjning till skolväsendet)
- 교사 및 학교 운영자의 전문성 증진
(Lärares och skolledares professionella utveckling)
- 핵심 업무 교육 및 학습지도
(Kärnuppgifterna undervisning och skolledarskap)
- 학교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증대
(Ökat nationellt ansvar för skolans finansiering)
- 학습과 계발을 위한 환경 개선
(En god miljö för lärande och utveckling)

- 적극적인 학교 선택 강화 및 학교 간 분리 해소
(Aktivt skolval och minskad skolsegregation)
- 커리큘럼 개발 및 평가 시스템 정착
(Läroplansutveckling och utvärderingssystem)

2017년 가을 스웨덴 정부는 학교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학교 간 형평성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5)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 및 안전한 활용

① 개요

2015년 스웨덴 정부는 교육청에 유치원 및 의무학교를 위한 IT 전략과 고등학교를 위한 IT 전략 두 가지를 연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였는데, 보고서(Uppdrag att föreslå nationella it-strategier för skolväsendet)에 따른 IT 전략은 두 가지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시스템은 디지털화의 잠재력에 따라 특화될 수 있고 디지털 도구 및 리소스는 결과의 개선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Regeringskansliet, 2019).

상기한 두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 고등학교 관리매뉴얼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할 책무가 있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관리 책임자는 전략적으로 디지털 개발 과제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고등학교 교직원은 업무에 적합한 디지털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도구 및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 단위는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교육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 디지털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디지털 자료도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정부는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술과 수학 등 의무교육 과정의 다양한 과목에서 프로그래밍은 독특한 요소로 사용된다.
- 학생들이 소스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학생들은 디지털 텍스트, 미디어 및 도구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 학생들은 디지털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비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 활용 및 온라인 안전 증진

스웨덴 미디어위원회(Statens medieråd; The Swedish Media Council)는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석·보급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각급 학교와 도서관을 위해 미디어 및 정보 활용에

관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도 한다(Statens medieråd, 2019).

‘MIL(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me’라 불리는 디지털 교육 자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메시지를 대하는 청소년들의 대응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더불어 해당 미디어와 관련한 평가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MIL for me’는 유럽안전네트워크(European network Insafe)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및 정보 활용 관련 최우수 교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시사점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4년에 도입한 ‘청년 중심(Med fokus på unga)’이 현재 스웨덴에서 청년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스웨덴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청년의 관점(ungdomsperspektiv)’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중심’ 정책을 기초로 ‘지식과 평등을 위한 학교전략(Samling för skolan)’,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전략(Strategi för entreprenörskap inom utbildningsområdet)’, ‘청년 NEET 전략(Vägar framåt)’ 등 세부 전략의 도입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은 관련 법률이나 세부 사업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 그룹은 조기에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청년들(ELET)과 NEET 청년이다. 즉 이들 대상 그룹이 다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청년들이 향후 학업과정 및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웨덴 청년정책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상기한바 스웨덴의 청년정책에 따른 핵심 대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스웨덴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법의 개정을 비롯해 교육 부문을 통한 접근방법을 두드러진다. 특히 스웨덴의 교육이 비단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다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스웨덴 청년정책에 따른 교육 부문의 접근방법 역시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안에 관련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특히 눈에 띄는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해외유학 증진, 학자금 지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역량 증진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라는 특징을 대별할 수 있겠다. 먼저 해외유학 증진 정책을 통해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성인, 그리고 그에 관련된 교사와 교수까지도 포함함으로써 조기에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용 관련된 실무 경험과 자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서도 중등교육과정(고등학생) 이상 연령대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교육에 관련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기 실업자와 이민자 등 비록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했거나 종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00년대 말부터 기업이 정신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가능 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도 특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비단 중등교육과정이나 고등교육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은 물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방법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스웨덴 사회에 존재하는 제반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장애 학생이나 이민자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자 하는 면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겠다. 이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특히 교육 부문에서의 접근방법을 통해 스웨덴이 청년문제 해결에 관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교육이 당면한 청년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기회를 잠시 놓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균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스웨덴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웨덴의 청년정책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제6장 일본

- 1. 서론
- 2. 일본의 교육체계와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 3.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
- 4. 청년무업자와 은둔형 외톨이
- 5. 요약 및 시사점

1. 서론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고등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탱한 것은 ‘1인 1사 제도(一人一社制)’와 ‘교내선발제도’에 기초한 ‘일본적 고졸 취업시스템(日本の高卒就職システム)’이다(日本労働研究機構, 1998). 성적이라는 사전의 교내 선발절차가 고등학교와 기업의 신뢰관계를 담보하여 수준이 높은 고졸 노동력을 보내는 ‘일본적 고졸취업메커니즘(日本の高卒就職メカニズム)’이 존재했다(荻谷, 1991).

그러나 거품경기 붕괴 이후 일본의 신규 고졸 노동시장이 축소했고, 고등학교의 취직지도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다. 교내 선발 절차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없다거나 기업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정할 수 없는 단점이 밝혀졌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취직지도의 단점이 지적되었다. 고등학교와 기업의 관계가 희박해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지 못했던 청년,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청년, 취업해도 퇴직하여 장기간 무업자로 살고 있는 청년 등 많은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에서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신졸자’를 원하므로 실업기간

30) 이 장은 유아마 아쓰시 박사(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박사연구원, 大阪市立大学 都市研究プラザ 博士研究員)가 작성하였음.

이 길어진 청년들은 다시 취업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무업자로 사는 청년도 존재한다. 15-39세 청년 무업자(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고,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의 규모는 2017년 시점에서 71만 명이었으며, 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달한다. 또한 내각부 추계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절대적 규모는 적어도 17.6만 명(2015년 시점) 존재한다(内閣府, 2010: 34; 内閣府, 2016: 10). 또한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40-64세도 적어도 36.5만 명 존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内閣府, 2019: 11).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교육체제,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과제, 대책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교육체제와 중등교육 졸업 이후의 진로(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를 통계데이터로 전체적으로 간략히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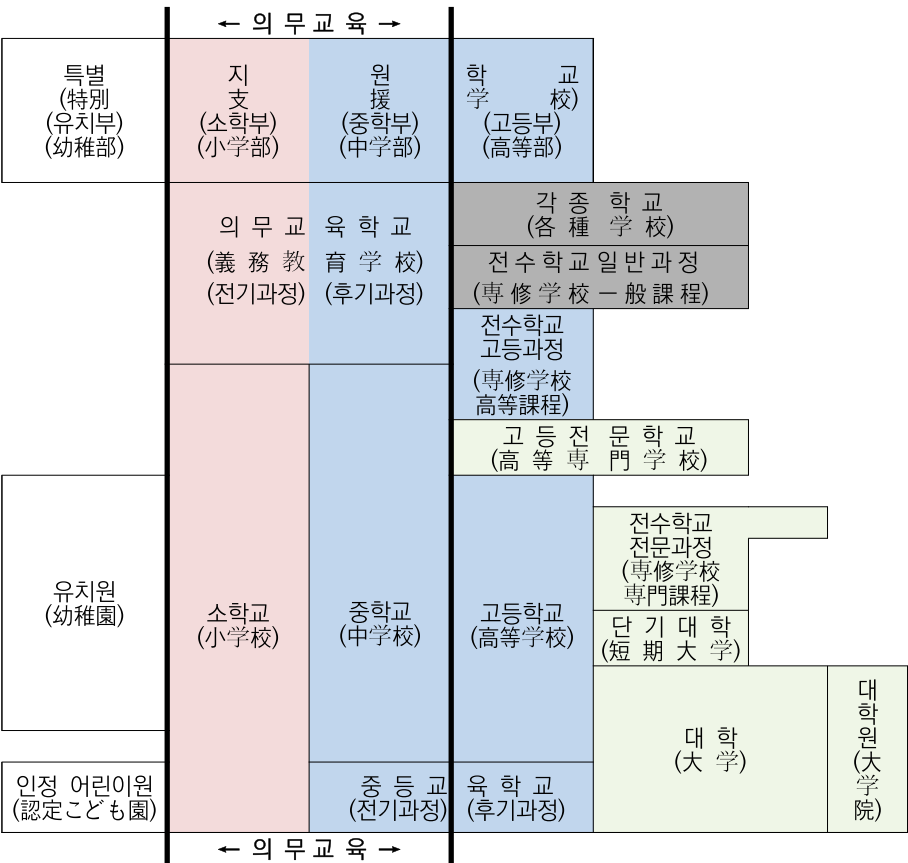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로 대학진학 관련 제도, 전통적인 일본적 고졸취업시스템, 중학교의 직업체험과 고등학교의 인턴십,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하여 중등교육 졸업 이후의 청년을 둘러싼 제도를 확인한다.

이어서 일반적인 진학·취업 경로를 벗어난 청년의 규모, 즉, 청년무업자,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학생의 규모를 확인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조사한다. 즉, 후생노동성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연혁, 내용, 최근동향, 유관기관 등을 정리하고 문부과학성의 문부과학성에 의한 등교 거부 아동·청소년 지원을 조사하고 의무교육단계의 주된 지원, 의무교육 이후의 주된 지원,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의 배치상황, 고등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위 조사내용에 기초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교육체제와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1) 일본의 교육체계

(연령) 3~5	6~11	12~14	15~17	18~		
(학년)	1~6	7~9	10~12	13,14	15,16	17~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 등	교 육	고 등	교 육	



* 출처 : 内閣府(2018: 264).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30honpen/pdf/sanko_10_01.pdf에서 2019.10.15. 인출

그림 VI-1. 일본의 학교체제

일본의 학교체계는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일본에서는 ‘소학교’라 부름) 6년간과 중학교 3년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중등교육 후기는 고등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등교육으로 대학과 대학원이 마련되어 있다. 보통 초등학교의 6년간의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6년간에 교육을 중등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을 고등교육이라 부른다. 각 시기의 특수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실기실습교육을 하는 ‘전수학교’,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학교’, 일반학교도 전수학교도 아닌 ‘각종학교’(자동차교습소, 외국인학교, 일본어학교 등)가 존재한다.

2) 중등교육 이후 진로

(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일본에서 2018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 중등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의 수는 약 420만 명이다.

표 VI-1 중등교육기관 재학자 수 (2018)

(단위: 명)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고등학교	3,235,661	8,579	2,184,920	1,042,162
중등교육학교	32,325	2,999	22,367	6,959
특별지원학교	143,379	2,945	139,661	773
전수학교	653,132	368	24,956	627,808
각종학교	123,275	-	531	122,744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1)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10년 전부터 매년 약 106만 명 수준이다. 그들의 진로를 보면, 절반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8년도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은 54.8%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나머지 약 15%는 전문학교에 진학

하고, 약 18%가 취업한다. 고등학교와 같은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하거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은 5.3~5.4만 명이며,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6~7%가 된다.

표 VI-2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

(단위: 명)

	졸업자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취업	아르바이트	비취업· 비진학	기타
2009.3	1,065,412	574,333 (53.9%)	156,363 (14.7%)	193,615 (18.2%)	13,592 (1.3%)	54,678 (5.1%)	74,035 (6.9%)
2018.3	1,061,565	581,958 (54.8%)	169,058 (15.9%)	186,289 (17.5%)	6,987 (0.7%)	53,199 (5.0%)	64,528 (6.1%)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4)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 * 주) 1. '취업'은 '대학·전문대' 중 취직 중인 자를 포함함
2. '기타'는 전수학교 입학자,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입학자, 불명, 사망 등

또한 2018년 시점에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를 보면, 약 310만 명이다. 그 중 290만 명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며, 단기대학은 12만 명, 고등전문학교는 5.7만 명이다.

(2) 대학 졸업자의 진로

표 VI-3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2018)

(단위: 명)

		합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2,909,159	608,969	155,520	2,144,670
	학부	2,599,684	439,833	136,297	2,023,554
	대학원	합계	153,132	16,125	84,756
		석사과정	96,044	10,573	56,483
		박사과정	50,678	4,851	18,838
		전문직과정	6,410	701	9,435
단기대학		119,035	-	6,221	112,814
고등전문학교		57,467	51,545	3,756	2,166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2)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대학(학부)이나 단기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규모를 보면, 10년 전부터 매년 55~56만 명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도의 경우, 그중 약 12%가 대학원에 진학했고 77%는 취업했다. 2018년도에 대학(학부과정)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은 8.5%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14.0%(2009년)에서 11.8%(2018년)로 줄어들었다.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의 비율은 68.4%(2009년)에서 77.1%(2018년)로 증가했고, 동시에 학부과정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은 14.4%(2009년)에서 8.5%(2018년)로 감소했다.

표 VI-4 대학(학부) 졸업자의 진로

(단위: 명)

	졸업자	대학원	취업	아르바이트	비취업·비진학	기타
2009.3	559,539	78,265 (14.0%)	382,485 (68.4%)	12,991 (2.3%)	67,894 (12.1%)	17,955 (3.2%)
2018.3	565,436	66,830 (11.8%)	436,156 (77.1%)	8,684 (1.5%)	39,854 (7.0%)	13,971 (2.5%)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7)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 * 주) 1. '취업'은 '대학원' 진학자 중 취직 중인 자를 포함함
 2. '기타'는 임상연수 중 의사, 불명, 사망 등

2018년도에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진로를 보면 약 78.5%가 취업했다. 이는 석사과정 수료자의 취업률로는 사상최고수준이다. 석사과정 수료자의 나머지 10%는 박사과정 등에 진학했고, 나머지 약 10%(약 7700명)는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했거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학부과정 졸업자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고,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하거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이 줄었다.

표 VI-5 대학원(석사) 졸업자의 진로

(단위: 명)

	수료자	대학원 진학	취업	아르바이트	비취업·비진학	기타
2009.3	73,811	8,379 (11.4%)	55,243 (74.8%)	944 (1.3%)	7,411 (10.0%)	2,053 (2.8%)
2018.3	71,446	6,923 (9.7%)	56,089 (78.5%)	864 (1.2%)	6,828 (9.6%)	954 (1.3%)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10)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 주) '취업'은 '대학원' 진학자 중 취직 중인 자를 포함함

2018년도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학위 미취득자 포함)의 진로를 보면, 약 68%가 취업했다. 석사과정 수료자의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상최고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했거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 약 24% (약 3800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석사과정 수료자와 비슷하게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으나,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한 사람의 수가 약간 늘었다.

표 VI-6 대학원(박사) 졸업자의 진로

(단위: 명)

	수료자	취업	아르바이트	비취업·비진학	기타
2009.3	16,463	10,579 (64.3%)	636 (3.9%)	3,386 (20.6%)	1,904 (11.6%)
2018.3	15,658	10,603 (67.7%)	833 (5.3%)	2,981 (19.0%)	1,267 (8.1%)

* 출처 : 文部科学省(2018d: 11)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 주) 1. '수료자'는 수학기간 이상 재학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만기 퇴학한 사람을 포함
2. '기타'는 대학원 진학, 임상연수 중 의사, 외국대학 입학자, 불명, 사망을 포함

3.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

1) 진학 관련 제도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일반입시, 추천입시('지

정교 추천'과 '일반 추천'), AO(Admissions Office)입시의 3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일반입시는 일반적인 입학시험방식이다.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서는 대학 공통의 대학입시센터시험(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과 대학마다 작성한 2차 시험의 결과로 학생을 선발한다. 2차 시험 없이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결과만으로 선발하는 국립대학·공립대학도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보통 대학마다 작성한 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다음으로 추천입시 중 '지정교 추천(指定校推薦)'은 대학에서 지정 받은 특정한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입시이다. 주로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마다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할당 받고 있다. '지정교 추천'의 경우 먼저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학업성적, 스포츠, 과외활동의 실적을 기준으로 추천할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그 학생이 대학에서 추천입시를 받는다. 고등학교에서 추천 받은 학생은 거의 합격한다. '지정교 추천'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신뢰관계에 입각한 제도이며, 학생의 자퇴를 막기 위해 학생에게 하나의 학교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반 추천'은 고등학교에서 '일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지정교 추천'과 달리 사실사 지원 후 대학에서 보는 시험에서 선발된다. 일반적으로는 서류, 면접, 논술로 선발하지만, 교과과목의 시험을 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AO입시는 대학의 입학관리본부(admissions office)가 수험생의 특징을 보고 선발하는 방식이다. 추천입시와의 차이점은 학교의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다.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과목의 학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통 서류심사, 면접심사, 논술심사로 선발한다. 수험생의 개성이나 창의성에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학입학시험은 각 대학의 학위수여 방침(diploma policy), 교육과정 방침(Curriculum policy), 입학선발방식(admission policy)을 일정

정도 존중한 평가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투명성 있는 입학자 선발을 위하여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65조의 2에 따라 2017년도 4월 1일부터 모든 대학에서 위 3개 방침의 결정·공개도 의무화하였다(文部科学省, 2018e).

먼저 2018년도의 국립대학 지원자 수, 공립대학 지원자 수, 사립대학 지원자 수를 합치면 473.6만 명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1년에 2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몇 개 대학이든 지원할 수 있으며, 전체 지원자 473만 명이라는 수치는 누적 지원자 수이다.

표 VI-7 2018년도 4년제 대학 입학 지원자 수 및 경쟁률

(단위: 명)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입학 지원자 수	375,827	163,627	4,196,461	4,735,915
경쟁률	3.9배	5.3배	8.8배	7.8배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 주)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몇 개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음.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경우, 전기전형(2월 말)에 국공립대학 중 1개 대학, 후기전형(3월 상순)에 국공립대학 1개 대학밖에 시험을 볼 수 없음. 물론 국공립대학 지원자도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몇 개든 사립대학의 시험을 볼 수 있음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를 보면, 2018년도 시점에서 약 10%가 AO입시로 입학했음을 알 수 있다. AO입시 활용은 사립대학에서 활발하고, 국공립대학에서는 2~4%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에 들어 AO입시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표 VI-8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AO입시 입학자 규모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국립대학 입학자	2.8%	2,794	3.3%	3,249	3.7%	3,603
공립대학 입학자	2.2%	690	2.4%	761	2.8%	899
사립대학 입학자	10.6%	50,531	10.7%	52,020	11.4%	55,329
합계	8.9%	54,015	9.1%	56,030	9.7%	59,831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추천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는 AO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 보다 많다. 추천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는 AO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의 3~4배 수준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4년제 사립대학 입학자의 약 40%가 추천입시로 입학한다. 공립대학은 24.6%, 국립대학도 12.2%가 추천입시로 입학한다. 추천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는 AO입시로 입학한 입학자의 규모와 달리 최근에 큰 변화가 없다.

표 VI-9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학교추천 입학자 규모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국립대학 입학자	12.1%	12,013	12.2%	11,953	12.2%	11,949
공립대학 입학자	24.4%	7,527	24.4%	7,664	24.6%	8,008
사립대학 입학자	40.1%	191,823	40.5%	197,378	41.0%	198,057
합계	34.8%	211,363	35.2%	216,995	35.5%	218,014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다음으로 단기대학 입학 지원자의 수를 보면 2018년 시점에서 약 8만 명이며, 전체적인 경쟁률도 4년제 대학보다 낮다.

표 VI-10 단기대학 입학 지원자 수 및 경쟁률

(단위: 명)

	공 립	사 립	합 계
입학 지원자 수	6,139	74,632	80,77
합계	2.4배	1.3배	1.3배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단기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AO입시 적용률이 높다. 사립대학에서 공립 대학보다 AO입시 실시률이 높다는 점, 최근에 들어 AO실시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4년제 대학의 추세와 같다.

표 VI-11 전체 단기대학 입학자 중 AO입시 입학자 규모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공립대학 입학자	3.3%	104	4.5%	138	5.1%	136
사립대학 입학자	22.9%	12,532	24.8%	13,082	26.5%	13,326
합계	21.9%	12,636	23.7%	13,220	25.4%	13,462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私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또한 단기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추천입시 적용률도 높다. 사립대학의 경우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공립대학에서도 4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VI-12 전체 단기대학 입학자 중 학교추천 입학자 규모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공립대학 입학자	43.5%	1,352	42.3%	1,308	43.3%	1,162
사립대학 입학자	61.9%	33,840	60.6%	31,985	58.3%	29,291
합계	60.9%	35,192	59.6%	33,293	57.5%	30,453

* 출처 : 文部科学省(2018f) 平成30年度国公私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2) '일본적 고졸취업시스템'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순조 롭게 이루어졌다. 고등학교로부터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지탱한 것은 '1인 1사 제도(一人一社制)'와 '교내선발제도'에 기초한 '일본적 고졸 취업시스템(日本

的高卒就職システム)’이다(日本労働研究機構, 1998). 성적이라는 사전의 교내 선발절차가 고등학교와 기업의 신뢰관계를 담보하여 수준이 높은 고졸 노동력을 보내는 ‘일본적 고졸취업메커니즘(日本的な高卒就職メカニズム)’이 존재했다(苅谷, 1991).

그러나 거품경기 붕괴 이후 일본의 신규 고졸 노동시장이 축소했고, 고등학교의 취직지도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다. 교내 선발 절차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없다거나 기업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정할 수 없는 단점이 밝혀졌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취직지도의 단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고졸 취업자의 감소로 고등학교의 취직지도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드물었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 53).

이를 분석한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8)에 의하면 ‘1인 1사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와 기업의 관계가 희박해졌고, ‘교내 선발제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졌다. 학교와 기업의 관계라 함은 보통 5년 이상 연속해서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채용하고 있음을 말하지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8)에 의하면, 5년 이상 지속되는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 ‘1인 1사 제도’

‘1인 1사 제도’에 대한 양적 조사는 거의 없지만, 全国高等学校校長会就職対策委員会(2017)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1,389개 학교 중 복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9.5%이며, 복수지원으로 취직할 수는 416건이었다. 고등학교의 취직지도에서 복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1인 1사 제도’가 주류이다.

‘1인 1사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는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학생의 취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학에서의 ‘지정교 추천(指定校推薦. 성적이나 활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는 제도)’과 비슷한 이미지이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직할 확률이 낮고, 채용에 드는 비용도 낮다. 물론 기업의 경우, 그 산업에 구직자가 많이 모이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7).

(2) 교내 선발

교내 선발(校内選考)에 대해서는 시차가 있으나 도쿄대학 교육사회학연구실(東京大学教育社会学研究室)의 1983년 조사와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의 2010년 조사로 전국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1983년 조사는 취업자 3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2010년 조사는 취업자 5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 차이가 나지만, “구인수 이상의 학생을 기업에 추천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1983년 24.9%에서 2010년 31.9%로 늘었고, “희망이 겹쳐서 희망하는 직업에 지원할 수 없는 학생이 없다”는 응답은 1983년 39.2%부터 2010년 59.4%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교내 선발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판단된다(堀有喜衣, 2016;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54에서 재인용).

교내 선발 감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 수의 감소로 희망하는 기업이 겹치지 않는 것이다. 구인수가 구직자수보다 많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제 학부모에게 교내 선발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학생의 기치관이 다양해져 학교에서 추천하는 기업에 그대로 가지 않게 되었다. 셋째, 정해진 기업에 학생을 보낼 경우 조기에 이직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 스스로 희망하는 기업에 취직하면 직장 정착률이 인상이 있다는 것이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9: 8).

2018년 3월의 국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의 전일제(일반적인 교육 시간) 혹은 정시제(오전부 또는 오후부로 이루어지는 등 교육시간이 짧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교졸업자 1,061,494명 중 취업희망자는 187,715명(17.7%)이었다. 전체 취업희망자 중 취업자는 98.1%(184,094명)이었고, 미취업자는 1.9%(3,621명)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희망자의 취업률과 여성 취업희망자의 취업률 모두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남성 98.5%, 여성 97.4%로 남성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이 약간 높다. 학과별로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을 보면 공업과(99.5%), 상업과(99.2%), 복지과(99.1%), 농업과(99.0%), 수산과(98.8%), 간호과(98.4%), 가정과(98.4%), 정보과(97.7%), 종합학과(97.6%), 보통과(96.3%)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文部科学省, 2018:1).

3) 중학교의 직장체험과 고등학교의 인턴십

중학교의 직장체험이나 고등학교의 인턴십은 학생이 교사나 보호자 이외의 성인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직업적성이나 장래설계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적극적 직업선택능력이나 높은 직업의식이 양성될 수 있고, 교육과 직업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학습의욕이 상승할 수 있고, 직업에 필요한 현실적 지식과 기수에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된다(内閣府, 2018:70). 중고등교육의 주된 프로그램은 중학교의 직장체험과 고등학교의 인턴십이다.

(1) 중학교의 직장체험

2018년도에 중학교의 직장체험 실시율은 국립 중학교 61.3%(65개 학교 중 46개 학교), 공립 중학교 98.6%(9,449개 학교 중 9,319개 학교), 사립 중학교

32.9%(720개 학교 중 237개 학교)이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4). 거의 모든 공립 중학교가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 중학교의 실시율은 현저히 낮다. 공립 중학교의 직장체험 기간은 “1일” 13.7%, “2일” 31.8%, “3일” 37.5%, “4일” 3.6%, “5일” 12.0%, “6일” 0.2%, “불명” 1.2%이며, 대부분이 2, 3일 실시하고 있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3).

(2) 고등학교의 인턴십

2018년도에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통신제)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국립 고등학교 15.0%(20개 학교 중 3개 학교), 공립 고등학교 84.0%(4,127개 학교 중 3,465개 학교), 사립 고등학교 45.9% (1,435개 학교 중 659개 학교)이며, 사립학교에서는 인턴십이 저조하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 2). 공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에서도 “재학 중에 한번이라도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34.9%이다. 또한 보통과(일반적인 학과) 22.3%, 직업 관련 학과(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69.2%로 직업 관련 학과에서 인턴십을 경험률이 높다고 알 수 있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9). 공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의 인턴십 체험기간은 “1일” 31.0%, “2~3일”이 50.7%, “4~5일” 12.8%, “6~10일” 2.4%, “11~29일” 2.5%, “30일 이상” 0.5%로 대부분 “1일” 또는 “2~3일”이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9). 공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통신제)의 인턴십 사전교육시간은 “1~5시간”이 가장 많고, 65.8%이다. 인턴십 사후교육시간도 “1~5시간”이 가장 많고 67.0%이며, 사전교육시간의 내용으로서는 “인턴십의 목적을 설정·확인시키는 교육”, “매너 교육(인사, 전화)”의 비율이 높다. 사후교육시간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 작성 등 인턴ships을 평가시키는 교육”의 비율이 높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1, 2).

4)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지원

고등학교 졸업 이후나 대학 졸업 이후에 순조롭게 취업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로는 ‘신졸응원 헬로우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 ‘청년고용우량기업인정제도(若者雇用優良企業認定制度. 별칭, ‘유스에일’), ‘청년 헬로우워크·서포츠테이션(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サポステ)’, ‘신 잡카드제도(新ジョブカード制度)’, ‘캐리어업조성금제도(キャリアアップ助成金制度)’ 등이 있다.

‘신졸응원 헬로우워크’는 고등학교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며, ‘잡 서포터’가 청년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청년을 기업에 연계하는 지원이다.

‘청년고용우량기업인정제도’는 청년 개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즉, 청년채용·육성에 적극적이고 청년고용관리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후생노동대신이 ‘유스에일’ 인정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정보발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와 매칭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서 가점을 주기도 한다. 청년 ‘헬로우워크·서포츠테이션’은 장기간 프리터나 청년무업자로 살았던 40대 전반까지의 청년을 청년에게 기본적 취업준비지원부터 ‘트라이얼고용’(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청년을 시용, 청년과 기업이 맞으면 취업할 수 있음)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 잡카드제도’는 구직자의 자격이나 경력부터 직업경험, 평가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캐리어업조성금제도’ 정규고용을 촉진하는 보조금이다.

표 VI-13 신졸응원 헬로우워크

명칭	신졸응원 헬로우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
운영주체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워크
대상	고등학생, 신졸자, 졸업자
내용	• 대학원·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 등의 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에게 특화한 '신졸응원 헬로우워크'를 전국 57개소(2018년 1월 시점)에 설치. 무료서비스 제공. •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신졸' 취급하도록 기업에 홍보. 구직자에게 정사원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취업 후 정착지원 강화. 졸업까지 취업하지 못했던 졸업자에게 졸업 후 '잡 서포터(ジョブサポーター)'에 의한 개별지원. • '신졸응원 헬로우워크'의 '잡 서포터'와 대학의 캐리어 카운슬러 간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학교의 협력으로 미취업 학생의 정보를 얻어 '잡 서포터'가 전화로 '신졸응원 헬로우워크'를 소개하는 등 학생에게 연속적인 취업지원을 제공. • 미취업학생을 위하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면접설명회를 개최.

* 출처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2018: 246-24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표 VI-14 청년 고용 우량기업 인정 제도

명칭	청년고용우량기업인정제도(若者雇用優良企業認定制度)_유스에일(ユースエール)
운영주체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워크
대상	신졸자 등
내용	• 청년채용·육성에 적극적이고 청년고용관리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후생노동 대신이 '유스에일' 인정기업으로 인정. 기업의 정보발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와 매칭. • '유스에일' 인정기업의 조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소. • 특혜: 헬로우워크에서 중점적으로 홍보, 인정기업을 위한 취업설명회 • 기업 상품이나 광고에 인정마크 사용 허가, 청년 채용육성지원 보조금 • '캐리어업 조성금(キャリアアップ助成金)', '인재개발지원조성금(人材開発支援助成金)', '트라이얼고용조성금(トライアル雇用助成金)',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 졸업 후 3년 이내인 구직자 등 채용청착코스)' •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 의한 저금리 융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가점평가

* 출처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2018: 246-24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표 VI-15 청년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명칭	청년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サポステ)
운영주체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워크
대상	프리터, 무직자
내용	• 프리터의 정규고용 추진 • 청년 헬로우워크의 프리터 지원: 원칙 45세 미만의 정규고용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헬로우워크를 전국 28개소, 청년지원코너(わかもの支援コーナー)를 전국 220개소 설치(2017년 9월 시점)하여 직업상담, 직업소개, 구인발굴,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지도, 구인정보 제공을 실시. 헬로우워크 방문이 끊기면 방문 권장. • 트라이얼 고용제도(トライアル雇用制度): 헬로우워크의 소개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트라이얼 고용'(1인당 최대 월급 5만 엔, 최장 3개월, 2015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거쳐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 • 청년무업자 등 직업자립지원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을 전국에 173개소(2018년 1월 시점) 설치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가에 의한 전문상담, 직업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기타 청년지원기관 연계 등 직업 확보를 위한 지원을 무료로 지원(합숙형식의 지원은 일부 유료) • 2018년도부터 175개소로 확충하여 취직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지금의 40세 전반 무업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정

* 출처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2018: 246-24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표 VI-16 신 잡카드 제도

명칭	신 잡카드제도(新ジョブカード制度)
운영주체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워크
대상	학생, 재직자, 구직자 등
내용	신 잡카드제도(新ジョブカード制度)는 2008년에 시작한 잡카드제도의 양식, 활용 방법을 수정하여 2015년 10월에 시작. 평생에 걸친 캐리어플랜닝과 직업능력 증명을 위한 도구. 개인의 캐리어업과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는 도구로 직업상담,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에 이용. • 평생에 걸친 캐리어플랜닝: 직업상담지원의 전제가 되는 개인이력, 직업경험, 직업생활설계를 축적하여 훈련 수강이나 직업선택에 활용 • 직업능력증명: 명허, 자격, 교육성과, 훈련성과, 직장에서의 평가를 축적하여 구직활동의 응모서류나 직업상담의 자료로 활용. 직업능력을 가시화하는 '직업능력증명' 기능

* 출처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2018: 246-24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표 VI-17 커리어업 조성금 제도

명칭	커리어업조성금제도(キャリアアップ助成金制度) =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업 지원 (非正規雇用労働者のキャリアアップ支援)
운영주체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워크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내용	기업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업을 위하여 전규고용 이행, 인재육성, 대우개선을 추진한 사업주에 보조금을 지급. 정규고용으로의 전환, 임금규정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수당 차이 시정 등 몇 개 대상이 있고, 이중 정규고용으로의 전환의 경우, 청년고용촉진법(若者雇用促進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사업주가 35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 • 유기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에 1인당 57만 엔, 대기업에 1인당 42.75만 엔을 지급 • 유기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무기고용이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나 무기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에 1인당 28.5만 엔, 대기업에 1인당 21.375만 엔을 지급

* 출처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2018: 246-24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4. 청년무업자와 은둔형 외톨이

1) 규모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지 못했거나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청년이 있고, 취업해도 퇴직하여 장기간 무업자로 살고 있는 청년도 있다. 아직 사회에서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신졸자’가 주류이므로 실업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은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무업자로 사는 청년도 존재한다.

(1) 청년 무업자

15-39세 청년 무업자(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고,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

는 자)의 규모는 2017년 시점에서 71만 명이었으며, 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1%였다.

표 VI-18 청년무업자 수

(단위: 만)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5-39세	54	60	79	78	82	81	81	80	82	83	79	80	83	79	76	75	77	71
15-19세	9	8	12	11	10	9	10	9	9	10	9	9	9	9	8	8	9	7
20-24세	12	13	17	16	18	16	17	16	16	16	15	15	17	15	14	14	14	14
25-29세	13	15	18	18	19	20	18	18	18	18	17	18	18	17	16	17	16	15
30-34세	10	13	17	18	18	19	18	18	19	18	17	18	18	18	18	17	18	17
35-39세	10	11	15	15	17	17	18	19	20	21	21	20	21	20	20	19	20	18

* 출처 : 内閣府(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청년무업자의 비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청년무업자의 비율이 높다.

표 VI-19 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청년 무업자의 비율

(단위: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1.3	1.4	1.9	1.8	2.0	2.0	2.0	2.0	2.1	2.1	2.1	2.2	2.3	2.2	2.2	2.2	2.3	2.1
남성	1.6	1.8	2.4	2.4	2.5	2.5	2.5	2.4	2.6	2.7	2.6	2.7	2.9	2.8	2.6	2.8	2.8	2.7
여성	0.9	1.0	1.4	1.4	1.4	1.4	1.4	1.6	1.5	1.6	1.7	1.7	1.7	1.5	1.6	1.5	1.6	1.6

* 출처 : 内閣府(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2) 은둔형 외톨이

일본의 모든 청년무업자를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법률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식 표현에 맞춰 은둔형 외톨이라 부른다)’로 볼 수는 없지만, 청년무업자의 상당부분은 은둔형 외톨이일 수 있다.

표 VI-20 내각부의 청년의 삶에 관한 조사의 문항20번

Q20 평소에 얼마나 외출합니까?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 ①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 3~4번 외출한다.
- ③ 자주 놀러 나간다.
- ④ 가끔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
- ⑤ 평소에 집에 있고 취미활동을 위해서만 외출한다.
- ⑥ 평소에는 집에만 있고 근처의 편의점에만 들른다.
- ⑦ 자기 방을 나가기는 하지만 집에서 나가지는 않는다.
- ⑧ 자기 방을 거의 나가지 않는다.

* 출처 : 内閣府(2016: 143).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일본 내각부는 “평소에 얼마나 외출합니까?”라는 설문에 위와 같은 선택지를 주고 ⑤, ⑥, ⑦, ⑧를 선택한 응답자를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보고, ⑥, ⑦, ⑧를 선택한 응답자를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보고 있다(厚生労働省, 2019: 2).

조사에 기초한 내각부 추계에 의하면,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의 절대적 규모는 69.6만 명(2010년 시점)에서 54.1만 명(2015년 시점),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의 절대적 규모는 23.6만 명(2010년 시점)에서 17.6만 명(2015년 시점)으로 축소하고 있다(内閣府, 2010:34; 内閣府, 2016:10).³¹⁾

한편으로 40-6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의 조사에 의하면,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40-64세가 61.3만 명 존재하고,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40-64세가 36.5만 명 존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内閣府, 2019:11).

(3) 등교거부와 중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서는 등교 거부 학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내각부의 백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 규모는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전년도를 상회했다(内閣府, 2018:90).

31) 이는 정신분열증으로 간주되는 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표 VI-21 등교 거부 학생의 규모

(단위: 만 명)

	'00	'02	'04	'06	'08	'10	'12	'14	'16
초등학교	2.6	2.6	2.3	2.4	2.3	2.2	2.1	2.6	3.0
비율	0.4%	0.4%	0.3%	0.3%	0.3%	0.3%	0.3%	0.4%	0.5%
중학교	10.8	10.5	10.0	10.3	10.4	9.7	9.1	9.7	10.3
비율	2.6%	2.7%	2.7%	2.9%	2.9%	2.7%	2.6%	2.8%	3.0%
고등학교	-	-	6.8	5.8	5.3	5.6	5.8	5.3	4.9
비율	-	-	1.8%	1.7%	1.6%	1.7%	1.7%	1.6%	1.5%

* 출처 : 内閣府(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 주) 여기서 '등교 거부 학생(원문에서는 '不登校')이란 연도 안에서 등교 거부를 이유로 30일 이상 학교를 결석한 학생. 여기서 '등교 거부'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이유나 질병으로 등교하지 않는 것은 '등교 거부'에서 제외됨.

고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학생 규모는 최근에 들어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퇴자 수는 2000년도 약 10.9만 명에서 2016년도 약 4.7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으며, 전체 고등학생에 차지하는 중퇴자 비율로 봐도 2000년도 2.6%에서 2016년 1.4%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2 고등학교 중퇴자의 규모

(단위: 만 명)

	'00	'02	'04	'06	'08	'10	'12	'14	'16
중퇴자	10.9	8.9	7.8	7.7	6.6	5.5	5.2	5.3	4.7
비율	2.6%	2.3%	2.1%	2.2%	2.0%	1.6%	1.5%	1.5%	1.4%

* 출처 : 内閣府(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 주) 2004년도까지는 공립 고등학교과 사립 고등학교만을 조사했음. 2005년도부터 국립고등학교,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의 통신제 과정도 조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등교 거부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의 '아동생도의 문제행동·불등교생도 지도상의 과제에 관한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生徒

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로 위와 같이 알 수 있으나, 대학생의 중퇴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퇴 규모에 대해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대학 중퇴자를 조사한 ‘각 대학 등의 수업료 체납이나 중퇴 등의 상황 조사(各大学等の授業料滞納や中退等の状況調査. 국립·공립·사립의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 전문학교 1225개 학교를 조사한 조사. 2009년도 공개)’나 2012년 시점에서 대학 중퇴자를 조사한 ‘학생의 중도퇴학이나 휴학 등의 상황에 대하여(学生の中途退学や休学等の状況について. 국립·공립·사립의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1191개 대학에 대한 조사. 2014년 공개)’³²⁾을 참고하여 짐작하게 된다.

이들 조사에 의하면 대학 중퇴자의 규모는 2007년 시점에서 학생 약 263.5만 명(중퇴자와 휴학자 포함) 중 6.3만 명(2.4%), 2012년 시점에서 2,99.2만 명(중퇴자와 휴학자 포함) 중 7.9만 명(2.7%)로 2%대 중반 수준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a:1).

대학 중퇴 이유를 보면 2007년도와 2012년도 모두 경제적 어려움, 학업부진, 취업, 전학이 많다. 또한 2007년도보다 2012년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중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文部科学省, 2014a:4).

표 VI-23 대학 중퇴 이유

(단위: %)

	학업부진	학교생활	취업	전학	해외유학	질병	경제적 이유	기타
2007년	12.7	5.1	14.4	14.9	0.9	6.1	14.0	31.5
2012년	14.5	4.4	13.4	15.4	0.7	5.8	20.4	25.3

* 출처 : 文部科学省(2014a:4). 学生の中途退学や休学等の状況について.

32) 2007년도와 2008년도 시점의 대학 중퇴자를 조사한 ‘각 대학 등의 수업료 체납이나 중퇴 등의 상황 조사(各大学等の授業料滞納や中退等の状況調査. 2009년도 공개)’도 있다. 이는 국립·공립·사립의 4년제 대학, 단기대학(2년제 전문대학), 전문학교 1225개 학교를 조사한 조사이다.

대학 휴학의 이유를 보면, 질병, 경제적 어려움, 해외유학이 많다. 해외유학에 의한 휴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휴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2007년도와 2012년도에서 똑같다.

표 VI-24 대학 휴학 이유

(단위: %)

	학업부진	학교생활	해외유학	질병	경제적 이유	기타
2007년	4.4	4.4	14.4	18.0	15.4	43.2
2012년	4.4	3.0	15.0	14.6	15.5	47.6

* 출처 : 文部科学省(2014a:5). 学生の中途退学や休学等の状況について.

2) 후생노동성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후생노동성은 보건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의 은둔형 외톨이 전담 상담창구가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이다.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는 2013년도부터 지역에 숨어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발견과 은둔형 외톨이 본인·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서 ‘히키코모리서포터(ひきこもりサポーター)’를 양성하고, 시정촌에서 가족이나 본인에게 ‘히키코모리서포터’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기타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에서 의사, 보건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상담·지원에 은둔형 외톨이를 연계하고 제공하고 있다(内閣府, 2017:85).

후생노동성은 2016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고용기관,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39세 청년에게 직업상담자에 의한 전문상담,

의사소통 훈련, 협력기업에 의한 취업체험을 제공하는 후생노동성의 위탁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아웃리치방식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内閣府, 2017: 86).

(1) 연혁

후생노동성은 은둔형 외톨이를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참여(의무교육을 포함하는 취학, 비상근직원을 포함하는 취업, 그리고 가정 외 교류)를 피하여 기본 6개월 이상 가정에 머물고 있는 상태(타자와 교류하지 않는 외출을 할 경우도 이에 포함)”로 정의한 바 있다(厚生労働省, 2010:6).

이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성은 은둔형 외톨이 해소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 본인과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본인의 자립을 돕고, 은둔형 외톨이 본인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움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으로 보고 있다(厚生労働省, 2018:3).

후생노동성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발전과정을 보면, 먼저 2009년도에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 설치운영사업’을 창설하였고, 이어서 2013년도에 ‘히키코모리 서포터(ひきこもりサポーター) 양성교육과 견사업’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에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에서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을 후방지원 하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교육사업, 시정촌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창설하였다(厚生労働省, 2018:3).

(2) 내용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 특화된 후생노동성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厚生労働省, 2018:3).

먼저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원기관에 대한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히키코모리지원 코디네이터(ひきこもり支援コーディネーター)’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담을 받고, 그들을 지원기관에게 연계하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유관기관의 연계망을 구축하면서 지원체제를 확보하고, 지원기관의 존재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정촌(일본의 기초지자체) 수준의 실시시판에 조언하는 역할도 있다.

다음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에 종사하는 인재 양성사업’ 역시 도도부현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원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의 품질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정촌 직원이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종사자에게 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히키코모리서포터’를 양성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어서 ‘히키코모리서포트사업’은 시정촌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민에게 가까운 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 들르기 편한 거점을 만드는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 외에 상담창구나 유관기관의 존재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거나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히키코모리서포터’ 파견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3) 최근 동향: 2018년도 예산의 개선

최근에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몇 가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8:4).

첫째, ‘히키코모리지원지역센터’는 도도부현 단위로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므

로 상담자의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원래 ‘히키코모리지원지역센터’의 역할은 상담자를 해당지역의 유관기관에게 ‘연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2015년에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그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개선점으로는 ‘히키코모리지원지역센터 설치운영사업’에서 기존의 기능 외에 유관기관에 대한 후방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즉,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에 의한 ‘취로준비지원사업’ 실시기관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원에 대한 조언을 하기로 했다. 그 외에 방문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히키코모리서포터’를 보내달라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히키코모리서포터’에게 방문지원 이외의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히키코모리서포터’의 역할을 시정촌도 주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사업을 한층 더 홍보해가기로 했다. 또한 ‘히키코모리서포터’에게 방문지원 외에 지역거점 운영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8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히키코모리서포터’ 양성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촌 직원이나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상담창구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보면, 사회생활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중간단계가 되는 거점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거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만들기 위한 지역자원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상담창구를 모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표방하는 수상한 단체가 있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각 시정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행정기관이 당사자와

함께 지원의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정촌에서 지역주민에게 창구의 존재를 알리기로 했다. 2018년도 예산 편성과과정에서의 개선점으로는 시정촌의 상담창구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고,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거점을 늘려가기로 했다. 지자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주민에게 안심감을 주기로 했다. 또한 ‘히키코모리서포터’에게 방문지원 이외에도 지원 거점에서의 업무나 직원채용시의 조언 등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4) 주된 유관기관

후생노동성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주된 유관기관은 교육기관, 취업지원 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교육기관으로서는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있고, 취업지원기관으로서는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후생노동성의 위탁기관)’과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 별칭, 헬로 워크. 후생노동성의 공용지원센터)’가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병원과 보건소가 있고, 복지기관으로서는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자립상담지원기관(‘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에 의한 기관), 정신보건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 아동청년종합지원센터(子ども・若者総合支援センター)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사업’(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과 ‘히키코모리서포트사업’(시정촌)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창구를 설치하고, 전화상담·면담·방문지원을 제공하여 내담자를 유관기관에게 연계하고 있다. 동시에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시정촌의 사업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정촌의 ‘히키코모리서포트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에

게 ‘히키코모리서포터’를 파견하고 있다. 시정촌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은둔형 외톨이를 돕기 위한 필수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받은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의 수요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시정촌은 그 외에도 지역의 복지자원이나 기타 상담창구를 소개하거나 지역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2013년 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자립상담지원사업’이나 ‘취로준비지원사업’에게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5) 실적

‘히키코모리지원센터’의 설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도부현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4월에 전국의 모든 도도부현(및 지정도시)에 설치되었다.

표 VI-25 히키코모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18	8	6	5	7	8	9	3	2	1
누적	18	26	32	37	44	52	61	64	66	67

* 출처 : 厚生労働省(2018:6)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について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에서 받은 상담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2.6배로 늘었다.

표 VI-26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상담 건수

(단위: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	34,312	54,470	69,701	83,211	90,794

* 출처 : 厚生労働省(2018:7)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について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가 유관기관에 연계한 상담건수를 보면,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NPO법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 상대적으로 많이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일정 부분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일반적 고용지원센터)에 연계한 건수보다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 연계한 건수가 많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지원보다 그 전단계의 취업준비지원이 필요한 내담자가 많다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NPO법인이 늘어나서 그런지 최근에 들어 NPO법인에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표 VI-27 히키코모리지원센터 연계 유관기관 상담 건수

(단위: 개소)

	'12	%	'13	%	'14	%	'15	%	'16	%
정신보건센터	656	19.5	915	18.7	1193	16.4	1314	17.7	1323	17.6
보건소	488	14.5	722	14.7	992	13.6	815	11.0	823	10.9
의료기관	361	10.7	442	9.0	710	9.8	813	11.0	723	9.6
NPO법인	339	10.1	397	8.1	848	11.7	1015	13.7	981	13.0
서포트스테이션	278	8.3	418	8.5	544	7.5	568	7.7	674	9.0
공공직업안정소	101	3.0	96	2.0	123	1.7	121	1.6	106	1.4
아동상담소	74	2.2	46	0.9	50	0.7	94	1.3	50	0.7
복지사무소	82	2.4	85	1.7	104	1.4	142	1.9	239	3.2
기타	981	29.2	1783	36.4	2706	37.2	2539	34.2	2601	34.6
합계	3360	100.0	4904	100.0	7270	100.0	7421	100.0	7520	100.0

* 출처 : 厚生労働省(2018:8).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について.

3) 문부과학성의 등교 거부 아동·청소년 지원

문부과학성은 등교 거부의 예방, 발견, 대처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고민이나 불안을 수용하는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등교 거부의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불등교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不登校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를 개최하고, 2016년 7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동학생 이해·교육지원시트(児童生徒理解・教育支援シート)’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지원,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 마련이다(文部科学省, 2016).

또한 문부과학성은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 외의 교육제도의 규정이나 아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프리스쿨 등에 관한 검토회의(フリースクール等に関する検討会議)’를 개최하고 2017년 2월에 교육위원회, 학교, 민간단체의 협력 아래 등교 거부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외에서의 지원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3월에 ‘불등교 아동생도에 의한 학교 이외의 장에서의 학습 등에 대한 지원의 확충에 대하여(不登校児童生徒による学校以外の場での学習等に対する支援の充実について)’라는 지침을 시달했다(文部科学省, 2017).

그리고 2016년에 제정된 ‘의무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義務教育の段階における普通教育に相当する教育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을 기초로 등교 거부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침을 2017년 3월에 정했다. 2016년도는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교육지원센터(教育支援センター)’ 설치를 추진했다. 2017년도는 학교 외에서의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후 ‘스쿨카운슬러(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

나 ‘스쿨소셜워커(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를 배치하는 등 교육상담체제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아동생도의 문제행동 등 생도지도 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중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력 격차(学力格差) 해소와 고등학교 중퇴자의 진학·취업 촉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중퇴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얻기 위한 학습 상담·학습지원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사례를 모으는 동시에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전개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1) 의무교육단계의 주된 지원

문부과학성의 ‘아동생도의 문제행동 등 생도지도 상의 각 문제에 관한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에서 2003년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 수는 126,226명이었으며, 그중 학교 내외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76,290명(60.4%)이었다. 10년이 지난 2014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 수는 122,897명이었으며, 그중 학교 내외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97,968명(79.7%)이었다. 즉,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不登校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2016:2).

또한 2003년에 학교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등교 거부 학생 수는 41,807명(전체 등교 거부 학생의 33.1%)이었고, 그중 ‘지도요록(指導要録,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학교의 교장이 작성하는 기록, 학생의 학적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기록)’에서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 받은 학생은 17,429명(학교 외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41.7%)이었다. 10년 지난 2014년에 학교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38,056명(전체 등교 거부 학생의 31.0%)이었고, 그중 지도요록에서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 받은 학생은 17,454명(학교 외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45.9%)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 받는 등교 거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不登校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2016:2).

학교 외부의 실천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실천도 점차 발전을 보이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5년 7월에 ‘구조개혁특별구역법(構造改革特別区域法)’에 의한 ‘불등교 아동생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설치에 관한 교육과정 탄력화사업(不登校児童生徒等を対象とした学校設置に係る教育課程弾力化事業)’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개 학교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가지는 학교, 이른바 ‘불등교 특례교(不登校特例校)’로 지정 하였다. ‘불등교 특례교’는 문부과학 대신(장관)의 인정 아래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등교 특례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는다. 2005년 7월부터는 등교 거부 학생이 가정에서 정보기기(ICT)를 활용한 학습을 받을 경우에 이를 출석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생도의 문제행동 등 생도지도 상의 각 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정보기기를 활용한 출석 취급은 2005년도 196명에서 2014년도 총 249명(초등학교 85명, 중학교 1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 이용이 충분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不登校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2016:2).

이와 함께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안교육이다. 2015년 3월 시점에서 의무교육단계의 등교 거부 아동이 다니는 민간의 단체는 총 474개 단체 존재했으며, 2015년의 조사에 응답한 319개 단체에 의하면 4196명의 아동이 재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전국에서 적어도 4196명의 아동이 이러한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4196명 중 55.8%가 원래 소속하는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취급 받고 있다고 확인되었다(日本經濟新聞社, 2015;

文部科学省, 2015b:8). 이러한 단체의 절반은 NPO법인이며, 약 20%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많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은 10%에 미달한다.

표 VI-28 의무교육단계의 등교거부 아동이 다니는 민간단체의 형태

법인격	단체 수	비율
NPO법인	146	45.8
학교법인	7	2.2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28	8.8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27	8.5
기타 법인(사회복지법인 등)	10	3.1
법인격 없음	70	21.9
개인	31	9.7
합계	319	10.0

* 출처 : 文部科学省(2015b:4). 小・中学校に通っていない義務教育段階の子供が通う民間の団体・施設に関する調査の結果(概要)

전체 단체들의 60%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이며, 비교적 최근에 많은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알 수 있다.

표 VI-29 의무교육단계의 등교거부 아동이 다니는 민간단체 설립 시기

(단위: 개소, %)

설립 시기	단체 수	비율
1969년 이전	4	1.3%
1970~1979년	7	2.3%
1980~1989년	26	8.5%
1990~1999년	69	22.6%
2000~2009년	137	44.9%
2010년 이후	62	20.3%
합계	305	100.0%

* 출처 : 文部科学省(2015b:5). 小・中学校に通っていない義務教育段階の子供が通う民間の団体・施設に関する調査の結果(概要)

한편으로 이러한 기관은 도쿄도(54개 단체), 가나가와현(45개 단체), 오사카부(27개 단체) 등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테현, 군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고치현 등 지방의 경우, 광역 자체에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 등 지역 편차가 크다(文部科学省, 2015b:18).

(2) 의무교육 이후의 주된 지원: 스쿨카운슬러 및 상담원 배치

고등학교 중퇴의 이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과 진로변경이 많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 중 학교로의 부적응으로 중퇴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지난 약 10년간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 중 진로변경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표 VI-30 고등학교 중퇴자 사유별 비율

(단위: %)

	'06	'08	'10	'12	'14	'16
학업부진	7.3	7.3	7.0	7.6	7.7	7.9
학교 부적응	38.9	39.1	39.0	40.0	34.9	33.6
진로변경	33.4	32.9	34.0	33.3	34.8	33.8
질병·사고	4.2	4.1	4.0	3.7	4.0	4.5
경제적 이유	3.4	3.3	1.9	1.6	2.3	2.6
가정의 사정	4.2	4.5	4.5	4.5	4.3	4.4
문제행동	4.8	5.1	6.0	5.7	4.5	3.9
기타	3.7	3.7	3.6	3.5	7.6	9.4

* 출처 : 内閣府(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기대 받는 것이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스쿨카운슬러는 심리상담으로 학생 개인의 심리를 지원하고, 상담원(스쿨소셜워커)은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친구들에게 개입한다. 문부과학성은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수준의 실천사례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8b).

표 VI-31 일본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의 역할

	스쿨카운슬러	상담원(스쿨소셜워커)
인재	학생의 임상심리에 높은 지식·경험이 있는 자	교육분야와 사회복지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자격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방법	카운슬링	소셜워크(아동의 가정이나 친구에게 개입)
배치	학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학교
직무	아동 개인의 카운슬링 보호자나 교직원에 대한 조언 사건·사고 발생 시 심리적 지원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 교직원과 함께 예방활동(스트레스 체크 등)	가정환경이나 지역자원봉사단체에 개입 개별사례 단위로 유관기관과 협력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나 시정촌과 협력 교직원에게 복지제도 활용 방법을 교육

* 출처 : 文部科学省(2015a) 学校における教育相談に関する資料

먼저 문부과학성은 ‘스쿨카운슬러 배치 등 활용사업(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活用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교육상담기관에 아동이나 학생의 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스쿨카운슬러를 배치하는 사업이며, 24시간의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실시주체는 도도부현이며, 도도부현은 공인 심리사(公認心理師), 임상심리사(臨床心理士), 정신과 의사, 아동·학생의 심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대학의 교원, 기타 이들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스쿨카운슬러를 선정한다(文部科学省, 2018d). ‘스쿨카운슬러활용사업’을 파견 받고 있는 학교는 지난 20년 사이에 급증했다.

표 VI-32 스쿨카운슬러 배치 학교 수(2017)

(단위: 개교)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파견학교	553	1,661	2,250	6,572	8,485	10,158	12,263	16,012	17,621	23,800

* 출처 : 文部科学省(2014b)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配置箇所数、予算額の推移

2017년 시점에서 스쿨카운슬러는 초등학교의 75.5%, 중학교의 95.1%, 고등학교의 85.8%에 배치되고 있으며, 비교적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I-33 스쿨카운슬러 배치 비율

초등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20.1%
			주 4시간 미만	29.0%
			수시로 배치	24.5%
	없음			26.4%
중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68.3%
			주 4시간 미만	19.5%
			수시로 배치	7.2%
	없음			4.9%
고등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37.8%
			주 4시간 미만	29.1%
			수시로 배치	18.9%
	없음			14.2%

* 출처 : 文部科学省(2018c) 学校保健統計調査(平成 29 年度 都道府県表)

한편으로 상담원의 배치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초등학교의 33.0%, 중학교의 38.7%, 고등학교의 11.2%에 배치되었음에 불과하다.

표 VI-34 상담원 배치 비율(2017)

초등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11.9%
			주 4시간 미만	5.2%
			수시로 배치	15.6%
	없음			67.0%
중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28.1%
			주 4시간 미만	2.5%
			수시로 배치	8.0%
	없음			61.3%
고등학교	있음	정기적 배치	주 4시간 이상	7.2%
			주 4시간 미만	1.4%
			수시로 배치	2.6%
	없음			88.8%

* 출처 : 文部科学省(2018c) 学校保健統計調査(平成 29 年度 都道府県表)

문부과학성은 2016년도 예산에서 ‘스쿨카운슬러 등 활용사업(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活用事業)’에 47.8억 엔(2015년도 예산 40.2억 엔)을 요구했고, ‘스쿨소셜워커활용사업(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活用事業)’에 10.1억 엔(2015년 예산 6.5억 엔)을 요구하는 등 두 개 사업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文部科学省, 2015a: 21).

문부과학성은 각 지자체의 상담원(스쿨소셜워커) 활용 사례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에 개입한 사례이지만, 아래와 같이 고등학생에 개입한 사례도 몇 개 소개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8b).

①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福島県教育委員会)의 경우

사례: 가난한 고등학생을 위한 상담원 활용사례

상황

고등학생인 형제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원룸에서 혼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가정은 한부모가구이지만, 학교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여 수학여행 비용을 비롯해 학교에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모로부터 받는 돈도 끊기고 식사도 못하고 있었다. 남동생의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남동생은 영양실조였던 것을 밝혀졌다. 형제의 생활은 위생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개입: 불안정한 가정

상담원은 학교에서 사례회의를 열고, 학교에 형제의 신분보증인에 대한 연락을 요청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신분보증인(형제의 고모)은 신속히 대응했으며, 상담원은 형제의 호적이 있는 지자체의 보건복지과와 협력하여 가정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

동시에 형제가 사는 지역의 주임아동위원(主任児童委員)을 사례회의에 부르고 협력을 받았다. 그 주임아동위원(主任児童委員) 중심으로 푸드뱅크에서 쌀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받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채소나 과일도 제공 받았다. 또한 형제에게 지역의 어린이식당(子ども食堂)의 정보도 제공하였다.

그 외에 부모에 대한 조언을 지역의 보건복지과에 의뢰했다. 지역의 주임아동위원과 민생아동위원에 부탁하여 형제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지도해달라고 의뢰했다. 또한 형제에게는 아르바이트 정보도 제공하였다.

성과

부모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으나, 보증인(형제의 고모)의 협력으로 남동생이 수학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고모가 형제에게 물건을 사줄 때도 있다. 원루에서의 생활도 개선되었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다. 형은 졸업 후에 취업하고, 남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남동생은 자립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주임아동위원은 지금도 형제를 살피고 있다.

② 이바라키현 교육위원회(茨城県教育委員会)의 경우

사례: 불안정한 가정

상황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수학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수학여행에 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생활보호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학생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학생은 어머니가 잘 못했음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상담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가출했고, 조부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원이 시작되었다.

개입

지역의 생활보호 사혜관리자, 아동복지과 상담원, 초등학교 부교장, 교육위원회 지도주사(指導主事), 아동상담소 상담원과 사례회의를 열고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진로 결정을 위하여 학생의 희망을 들으면서 조부모의 이해를 얻었다. 장학금제 도나 지원제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에게 제공했다. 학생 본인도 여동생과 남동생의 생활도 지켜야 한다고 관련기관과 확인했다.

③ 후쿠이현 교육위원회(福井県教育委員会)의 경우

사례: 등교서부

상황

고등학교 1학년인 N은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므로 학교 부교장, 담임교사, 스쿨카운슬러, 상담원이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5월의 연휴가 끝날 때쯤에 담임교사가 상담원에 상담했다. N은 야구를 하는 활발한 학생이었으나,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게임에 빠져 등교 거부하기 시작했고, 체력도 떨어졌다. 집단생활을 힘들어 하고 입학식도 결석했다. 담임교사와 상담원이 협력하여 부모와 학교 부교장에게 가정방문 허가를 받았다. 상담원이 학교에 오는 일정에 맞춰 가정방문 하여 N을 면담했다. 상담원은 N의 일상생활(생활습관이나 게임의 이야기), 교우관계, 취학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청취했다.

그때, N가 스쿨카운슬러에게도 상담할 수 있도록, N에 대한 정보를 상담원과 스쿨카운슬러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았다. 가정방문 했을 때의 정보를 학교의 부교장, 담임, 스쿨카운슬러들과 공유하고, 1주일 후에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원이 N을 면담했다. N은 스쿨카운슬러를 면담하기도 했고, 학교에 나오는 날이 늘었다. 6월에 들어 N의 결석이 다시 증가했으므로 담임교사와 상담원이 함께 다시 가정방문했다. N은 학교생활에 불만이 없고, 등교 의사도 있으나, 게임을 하니까 밤낮이 바뀐 상태였다. 상담원은 여름 방학에도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N은 9월도 등교하지 못하고 전기 수강과목이 모두 학점을 받지 못했다. N이 가을학기에 등교한다고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상담원은 9월말에 가정방문했다. N이 가을학기부터 순조롭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담원이 학교에서 N을 면담했다. 11월에 들어 다시 N의 결석이 늘었으므로 상담원이 다시 가정방문했다. 이후 N의 결석이 줄어 학교생활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담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담원이 정기적으로 N을 면담하고 지원했다. N은 가을학기의 수강과목을 모두 무사히 이수하였다.

④ 나가노현 교육위원회(長野県教育委員会)

사례: 성적 피해

상황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다. 여학생은 어머니, 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 어머니, 언니, 오빠는 일하고 있다. 중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와 오빠에게 몇 번 성적 학대를 받았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여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집을 쫓아내기도 했다. 여학생은 지각이 많았으나 성적이 좋았다. 인간관계도 좋고, 성격도 밝았으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신적인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다.

개입

교사는 여학생에게 스쿨카운슬러와 상담원에게 상담해보라고 제안했고, 학교 내 지원회의를 거쳐 먼저 스쿨카운슬러에 연결했다. 스쿨카운슬러는 상담원과 함께 면담하자고 여학생에게 제안했다. 상담원은 지역의 요보호대책지역협의회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요보호아동(要保護児童)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여학생, 스쿨카운슬러, 상담원의 셋이서 간담했다. 상담원은 여학생의 시설입소에 대한 강한 의사를 확인했고, 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사(児童福祉司)와 아동심리사(児童心理司)가 여학생을 면담하여 일시보호 및 아동양호시설(児童養護施設)로의 입소를 검토했다. 학교, 아동상담소, 시정촌의 요보호대책지역협의회, 스쿨카운슬러, 상담원이 사례회의를 열고 일시보호 전후의 준비에 대하여 협의했다.

(2) 고등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문부과학성은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은 3841억 엔이었으며, 이중 3708억 엔은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등(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等) 사업’이었으며, 133억 엔은 ‘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高校生等奨学給付金) 사업’이었다.

먼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은 2010년 4월에 시작한 제도이며,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학교 설치자에게 대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공국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고등전문학교(1~3학년), 전수학교(専修学校) 고등과정, 각종학교 중 지정 받은 외국인학교, 해상기술학교 등이며, 지원금으로는 수업료만 지불할 수 있다.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수학여행 비용 등은 대상이 아니며, 월 약 9900엔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입 약 910만 엔(약 9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현재 대부분 고등학생이 수급하고 있다. 특별히 저소득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를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1.5~2.5배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8a: 29).

표 VI-35 고등학생 장학금부금 지급액

구 분	국 공 립	사 립
공공부조 수급가구 전일제·통신제	연간 32300엔	연간 52600엔
비과세가구 전일제(첫째 자녀)	연간 82700엔	연간 98500엔
비과세가구 전일제(둘째 이후))	연간 129700엔	연간 138000엔
비과세가구 통신제	연간 36500엔	연간 38100엔

* 출처 : 文部科学省(2018a: 29) 2019年度文部科学関係予算(案)のポイント

다음으로 ‘고등학생 등 장학금부금’은 저소득가구(공공부조 수급가구, 주민세 비과세기준의 가구)에게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예를 들면, 교재 구입비용, 학용품 구입비용, 통학용품 구입비용, 입학용품 구입비용, 교과 외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한다. 도도부현이 주는 ‘고등학생 등 장학금부금’의

3분의 1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 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큰 15세 이상 23세 미만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장학금을 증액한다.

(3) 대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무이자장학금사업(반납해야 하는 장학금)과 2018년부터 시작된 ‘급부형 장학금사업’(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 있다. 무이자장학금사업의 사업규모는 3715억 엔, ‘급부형 장학금사업’의 사업규모는 140억 엔이며, 사업규모로 보면 아직 큰 차이가 난다.

먼저 ‘급부형 장학금사업’의 대상은 비과세수준의 저소득가구이다. 일정한 성적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즉, 문부과학성의 “각 학교의 교육목표에 비추어볼 때 높은 학습 성적을 받은 학생”, “교과목 이외의 활동에서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고, 성적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학생”,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진학 후 우수한 학습 성적을 얻을 학생”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학생을 고등학교에서 대상을 추천한다. 지원액은 자택에서 공국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월 2만 엔, 자택 외에서 공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자택에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월 3만 엔이다. 자택 외에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월 4만 엔을 지급한다. 아동양호시설 퇴소자에게는 입학일시금으로 24만 엔을 지급하고, 국립대학에서 수업료 감면조치를 받았을 경우 장학금에도 감면된다. 수급인원은 2018년도에 22800명이었다가 2019년도는 41400명으로 늘었다(文部科学省, 2018a: 30).

다음으로 무이자장학금사업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장학금이며, 많은 대학생에게 개방된 장학금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특별히 배려한 장학금은 아니며, 대학 졸업 이후에 반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표 VI-36 대학생 장학금 유형별 내용

	무이자 장학금	유이자 장학금
인원	56.4만 명	76.5만 명
사업비	3715억 엔	6762억 엔
월 대여액	학생이 선택 (2만엔, 3만엔, 4만엔, 5.4만엔)	학생이 선택 (2~12만엔 중 1만엔 단위)
대여기준	성적: 3.5/5.0(비과세수준이면 성적이 무관) 소득: 3인가구 기준 약 700~1290만 엔	성적: 평균 이상 소득: 3인가구 기준 약 870~1670엔

* 출처 : 文部科学省(2018a: 30) 2019年度文部科学関係予算(案)のポイント

5.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등교육 이후의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에서 2018년도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은 54.8%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기존의 추천입시뿐 만 아니라 AO입시로 입학하는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둘러싼 제도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을 둘러싼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8)에 의하면 ‘1인 1사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와 기업의 관계가 희박해졌고, ‘교내 선발제도’는 이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비롯한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하거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은 5.3~5.4만 명이며,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6~7%가 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 생활에 진입하거나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은 최근에 들어 약간 감소했으나, 10년 전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물론 대학(학부)을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68.4%(2009년)에서 77.1%(2018년)로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학부과정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나 취업도 진학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이 14.4%(2009년)에서 8.5%(2018년)로 감소했다. 대학 졸업자에서는 최근에 교육기관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9세 청년 무업자(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고,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의 규모는 2017년 시점에서 71만 명이었으며(전체 15-39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1%)였으며, 2009년부터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교육기관에서의 노력에 눈을 돌리면 한편으로 2018년도에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통신제)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국립 고등학교 15.0%(20개 학교 중 3개 학교), 공립 고등학교 84.0%(4127개 학교 중 3465개 학교), 사립 고등학교 45.9%(1435개 학교 중 659개 학교)이며, 사립학교에서는 인턴십이 저조하지만(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2), 2008년 시점에서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통신제)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국립 고등학교 15.8%, 공립 고등학교 63.7%, 사립 고등학교 36.0%였으므로 고등학교에서의 인턴십 실시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 2008:1). 물론,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도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높을 뿐, 아직 “많은 학생이 인턴십을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에서도 “재학 중에 한번이라도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34.9%(2018년 시점)이다. 또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의 인턴십 체험기간은 2013년 “1일” 31.0%, “2~3일”이 50.7%, “4~5일” 12.8%, “6~10일” 2.4%, “11~29일” 2.5%, “30일 이상” 0.5%로 대부분 “1일” 또는 “2~3일”에 불과하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9).

일본에서는 2018년 조사에 의해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40-64세가 적어도 36.5만 명 존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内閣府, 2019:11).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줄었으나, 숨어있는 중고령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가 인식되면서 꾸준히 청년 무업자에 대한 관심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지원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신졸응원 헬로우워크’나 ‘청년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등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나타난 점이 예전과 다르다. 교육기관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위한 ‘신졸응원 헬로우워크’,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시간이 지난 청년을 위한 ‘헬로우워크·서포트스테이션’ 등이 그것이다.

또한 2017년 시점에서 스쿨카운슬러는 초등학교의 70%, 중학교의 90%, 고등학교의 80%에 배치되고 있으며, 비교적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담원(스

쿨소셜워커)의 배치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초등학교의 약 30%, 중학교의 약 40%, 고등학교의 10%에 배치되었음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상담원 확충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정책이나 직장체험의 확충과 별도로 복잡한 가정환경에 개입하면서 꼼꼼히 한 사례, 한 사례에 개입하는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적 지원의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자를 위한 ‘급부형 장학금사업’(반환할 필요 없음)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무이자장학금사업(반환해야 함)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장학금이지만, 저소득층을 특별히 배려한 장학금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급부형 장학금사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앞으로의 정책 확대와 기존 정책의 점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지만, 노동시장이 청년 구직자에게 호의적인 현제도 일본이 꾸준히 청년 무업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 제7장 결론

————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청년정책의 접근방향(approach)

지금까지 5개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사례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교에서부터 일자리까지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과정을 전체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외사례에서의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예방적 접근, 대상중심적 접근, 연령통합적 접근, 연계협력적 접근, 부처통합적 접근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접근이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청년들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시기에서부터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진로 변경은 학업중단과 이탈(ELET)과 관련이 있으므로 진로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변경의 사다리(flexible ways to switch between programmes)’를 설계한 국가들도 있었다. 이들 국가는 사후적으로 진학, 취업, 훈련을 벗어난 청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학교 시기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대상중심적 접근이다. 스웨덴은 ‘청년 중심(With youth in focus-a

33)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policy for good living conditions, power and influence)’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양호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핵심목표 아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모든 정부의 결정과 행위는 청년의 관점(youth perspective)’에 기초해야 한다. 정부의 청년 정책의 목표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림 Ⅶ-1. 해외사례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접근

셋째, 연령통합적 접근이다. 각 나라마다 청년의 연령정의나 정책대상의 연령규정 등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었다. 미국의 경로 프로그램은 연령과 상관없이 현재 정규교육 중이거나 최근 졸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교육이 비단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다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스웨덴 청년정책에 따른 교육 부문의 접근방법 역시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학교과정을 마친 사람들, 즉 출발선 위에서 있는 대상자들 모두 서비스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 통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연계협력적 접근이다. 이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진학, 취업, 훈련 과정에서 정부, 학교, 기업, 지역사회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계협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정보통신, 재정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립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고용주, 대학교, 인력개발시스템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간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은 견습훈련에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실습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부처통합적 접근이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에는 다양한 주무부처들이 연관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교육부가 주무부처지만, 세부사항을 담당하는 여러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미국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YCC)의 경우에도 미국 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진행 중에 있다. 부처통합적 접근은 정부부처들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들과 기업, 지역기관들 간의 협력까지 확장되고 있다.

2)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 방법

각 국가들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는 물질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일자리 지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방법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지원 방법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지원 대상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원 형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2. 해외사례의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접근 및 지원정책

첫째, 물질적 지원은 주로 현금지원으로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업과 견습에 대한 생활비지원(수당지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업과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사회적 지원은 일본의 헬로우워크센터와 스쿨카운셀러의 형태와 같이 청년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셋째, 교육지원(교육과 훈련지원)은 주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스웨덴의 무상교육, 독일의 전문적 직업교육 및 견습제도, 미국의 잡콕스와 같은 고숙련 노동자양성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넷째, 진로지원은 진로에 대한 보장(guarantee)의 형태로 영국의 9월 보장 프로그램(September Guarantee)과 같은 청년보장제도, 미국의 청년진로연계 프로그램과 경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지원은 영국의 지방정부 사례에서와 같이 직업훈련 후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형태이다. 일자리 지원은 단기간에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의 매칭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진로와 취업지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고급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일자리 지원의 방향은 단기간의 저임금, 저기술 일자리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로서의 훈련과 일자리 제공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미국]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2013). *How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an help students be college and career ready: A primer. College & Career Readiness & Success Center at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acteonline.org/wp-content/uploads/2018/03/CTE_Today_Fact-Sheet_January2018.pdf.

Association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2018). Fact sheet: CTE today!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acteonline.org/wp-content/uploads/2018/03/CTE_Today_Fact-Sheet_January2018.pdf.

Association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2019). *About CTE*.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acteonline.org/about-cte/>.

Baggio, S., Iglesias, K., Deline, S., Studer, J., Henchoz, Y., Mohler-Kuo, M., & Gmel, G. (2015).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status among young Swiss me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2), 238-243.

- Balestreri, K., Sambolt, M., Duhon, Ch., Smerdon, B. & Harris, J. (2014). *The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d success organizer*. College & Career Readiness & Success Center at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College enrollment and work activity of 2014 high school graduates*.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www.bls.gov/news.release/hsgec.nr0.htm>.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 *Youth unemployment rate, 11.5%: employment-population ratio, 53.2 percent in July 2016*.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ls.gov/opub/ted/2016/youth-unemployment-rate-11-point-5-percent-employment-population-ratio-53-point-2-percent-in-july-2016.htm>.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8). *Unemployment rate rose to 4.0 percent in June 2018*.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ls.gov/opub/ted/2018/unemployment-rate-rose-to-4-point-0-percent-in-june-2018.htm>.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a).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mong youth – summer 2019*.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ls.gov/news.release/pdf/youth.pdf>.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b). *The employment situation – August 2019*.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mpst.pdf>.
-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89-309.

- Carcillo, S. Fernández, R., Königs, S. & Minea, A.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4. OECD Publishing.
- Career &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2014).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care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www.ctsos.org/wp-content/uploads/2019/03/2016-Final-Definition-NCC-CTS-JULY-16.pdf>.
-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College- and Career-Ready Standards.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ed.gov/k-12/reforms/standards>.
- Desilver, D. (2016). *Millions of young people in the U.S. and EU are neither working nor learning*. Pew Research Center.
- Dougherty, S. M. (2016).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Does it improve student outcomes?*. The Thomas B. Fordham Institute.
-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2019).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Youth Program*.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youth.workforcegps.org/resources/2017/08/29/08/48/FactSheet>.
- Eyster, L. & Nightingale, D. S. (2017). *Workforce development and low-income adults and youth: The future under 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14*. Urban Institute.
- Goldman-Mellor, S., Caspi, A., Arseneault, L., Ajala, N., Ambler, A., Danese, A. & Wong, C. (2016). Committed to work but vulnerable: Self-perceptions and mental health in NEET 18-year olds from a

- contemporary Britis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2), 196-203.
- Henderson, J. L., Hawke, L. D., Chaim, G., & Network, N. Y. S. P. (2017).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Mental health, substance use, and disengagement in a multi-sectoral sample of service-seeking Canadian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5, 138-145.
- Maxwell, Whitesell, & Bellotti (2017). *Youth CareerConnect: Early Implementation Findings*. Mathematica Policy Research.
- Meeder, H., & Suddreth, T. (2012). *Common Core State Standards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Bridging the Divide between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chieve, Inc.
- Miller, C., Cummings, D., Millenky, M., Wiegand, A., & Long, D. (2018). *Laying a foundation: Four-year results from the National YouthBuild Evaluation*. MDRC.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t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The structure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01/fig1.asp>.
- Perkins Collaborative Resource Network (2019). *Perkins V*.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cte.ed.gov/legislation/perkins-v>.
- Schochet, P. Z. (2018). *National Job Corps study: 20-year follow-up study using tax data*. Mathematica Policy Research.
- The White House (2014) *Fact sheet: Youth CareerConnect*.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4/07/fact-sheet-youth-careerconnect>.
- U.S. Census Bureau (2014). *Young adults then and now: Full report*.

-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census.socialexplorer.com/young-adults/#/report/full/nation/US>.
-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Job Corps (2016). *Policy and requirements handbook*. Job Corps.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a). *Pathways Programs Handbook*.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hiring-information/students-recent-graduates/reference-materials/pathways-programs-handbook.pdf>.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6b). *The Pathways Programs: Their use and effectiveness two years after implementation*.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hiring-information/students-recent-graduates/reference-materials/report-on-special-study-of-the-pathways-programs.pdf>.
- Youth CareerConnect (2019). *Youth Careerconnect Grant Program: A model for youth workforce development and college prep*.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youthcareerconnect.workforcegps.org/resources/2019/03/22/13/27/Model_for_Youth_Workforce_Development.
- Youthbuild (2019a). *U.S. Department of Labor Youthbuild*.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youthbuild.org/department-labor-youthbuild>.
- Youthbuild (2019b). *About Youthbuild USA*.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youthbuild.org/about-youthbuild-usa>.

[영국]

Abed, A. W. (2019).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 - UK ONS Stats For August 2019*. Accessed on 30 August 2019 from <https://www.youthemployment.org.uk/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or-training-neet-uk-ons-stats-for-august-2019/>.

Ben Gadsby & Kelly Loftus (2017). *Impossible? Improving careers provision in schools*. Accessed on 2 September 2019 from <https://www.teachfirst.org.uk/sites/default/files/2017-10/Careers-policy-report.pdf>.

Cabinet Office (2014). *Youth Engagement Fund: prospectus*. UK: HM Government.

Careers and enterprised (2019). *Understand the Gatsby Benchmarks*. Accessed on 2 October 2019 from <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schools-colleges/understand-gatsby-benchmark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New careers and enterprise company for schools*, Accessed on 2 September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careers-and-enterprise-company-for-school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a). *Careers strategy: making the most of everyone's skills and talents*. UK: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b). *Supported internships*. UK: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Participation in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ccessed on 2 September 2019 from <https://www>

w.gov.uk/government/statistics/participation-in-education-training-and-employment-2018.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a). *NEET Statistics Annual Brief: 2018, England*. Accessed on 30 August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atistics-neet>.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b).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 England: July 2019*. Accessed on 2 September 2019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5291/Apprenticeships_and_Traineeships_release_July19_main_text.pdf.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6). *Jobcentre Plus support rolled out to schools*. Accessed on 2 September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bcentre-plus-support-rolled-out-to-school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7). *DWP single departmental plan: 2015 to 2020*. Accessed on 3 September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wp-single-departmental-plan-2015-to-2020/dwp-single-departmental-plan-2015-to-202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19). *New Enterprise Allowance: start your own business*. Accessed on 3 September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ew-enterprise-allowance-campaign>.

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2018). *Adult education budget funding and performance-management rules*. UK: 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European Commission (2017). *Youth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England)*. Youth Wiki. Accessed on 5 September 2019 from

-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youthwiki>.
- Government UK (2017). *Universal Credit: full service and live service*. Accessed on 3 October 2019 from <https://www.gov.uk/guidance/universal-credit-full-service-and-live-service>.
- Government UK (2019a). *Help with moving from benefits to work*. Accessed on 2 October 2019 from <https://www.gov.uk/moving-from-benefits-to-work>.
- Government UK (2019b). *16 to 19 Bursary Fund*. Accessed on 30 August 2019 from <https://www.gov.uk/1619-bursary-fund>.
- HM Treasury (2018). *Funding from EU programmes guaranteed until the end of 2020*. Accessed on 3 October 2019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nding-from-eu-programmes-guaranteed-until-the-end-of-2020>.
-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Mavoieproeurope (2019). *UNITED KINGDOM*. Accessed on 23 September 2019 from <http://mavoieproeurope.onisep.fr/en/initial-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in-europe/united-kingdom/>.
- Medway Council (2017).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18-25 year olds(including apprenticeships)*. UK: Medway Council.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a).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UK: August 2019 Statistical bulletin*. Accessed on 20 September from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notinwork/unemployment/bulletins/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ortrainingneet/august2019>.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b). *Young people's career aspirations*

versus reality.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demography/types/articles/youngpeoplescareeraspirationsversusreality/>.

Powell, A. (2018). *NEET: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Accessed on 10 September 2019 from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6705#fullreport>.

Somerset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2019). *NEET Prevention*.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somerset-ebp.co.uk/schools-and-colleges/neet-prevention.htm>.

statista (2019). *Youth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2020-2050 by age*.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45928/population-of-the-uk-by-age->.

The NHS Long-Term Plan (2019). *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services*. Accessed on 21 October 2019 from <https://www.longtermplan.nhs.uk/online-version/chapter-3-further-progress-on-care-quality-and-outcomes/a-strong-start-in-life-for-children-and-young-people/children-and-young-peoples-mental-health-services/>.

The Telegraph (2018.09.01.). *British students are too focussed on getting top grades to go on years abroad, university body says as figures show UK behind Europe and US*. Accessed on 21 October 2019 from <https://www.telegraph.co.uk/news/2018/09/01/british-students-focussed-getting-top-grades-go-years-abroad/>.

UK Parliament (2019). *T-Level: Reforms to Technical Education*.

Accessed on 10 September 2019 from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7951>.

Year out group (2019). *Gap year statistics to help take the leap*.

Accessed on 10 September 2019 from <https://yearoutgroup.org/gap-year-statistics/>

[독일]

한국교육개발원 (2015). *해외교육동향, 독일편* (연구자료 CRM 2017-178-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해외교육동향, 독일편* (연구자료 CRM 2017-186-04).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Ausbildung (2019). *Ausbildung mit 30+*. Accessed on 18 September 2019 from <https://www.azubi.de/beruf/tipps/ausbildung-ueber-30>.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a (2019). *Bildungsketten*. Accessed on 24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mbf.de/de/abschluss-und-anschluss-bildungsketten-bis-zum-ausbildungsabschluss-1074.html>.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 (2019). *Neue Chancen für Studienabbrecher*.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mbf.de/de/neue-chancen-fuer-studienabbrecher-1070.html>.

Bundesagentur fuer Arbeit (2019). *Angebote der Agentur für Arbeit*. Accessed on 24 September 2019 from <http://berufswahlpass.de/fuer-schueler/angebote-der-agentur-fur-arbeit/>.

Jobstarter (2019). *Ausbildungsmanagement - Service für Betriebe*. Accessed on 2 October 2019 from <https://www.jobstarter.de/de/ausbildungsmanagement.html#section1921>.

Karrierebiber (2019). Accessed on 25 September 2019 from <https://karrierebibel.de/arbeitslos-nach-studium/>.

Statistik der Bundesagentur (2019). *Qualifikation und Arbeitslosigkeit in regionaler Betrachtung*. Accessed on 2 October 2019 from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cher-Content/Statistische>

-Analysen/Statistik-angewendet/Statistische-Woche-2017/Generische-Publikationen/Hintergrundinfo-Qualifikation-und-Arbeitslosigkeit-in-regionaler-Betrachtung.pdf.

[스웨덴]

Almi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almi.se/>

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csn.se>.

Folkbildningsråd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folkbildningsradet.se>,

Insy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www.insyn.se/>.

Jordbruksverk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jordbruksverket.se>.

Linnaeus University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lnu.se>.

MUCF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mucf.se>.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myh.se>.

Nordic Council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norden.org>.

Regeringskansli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regeringen.s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kth.se/innovation>.

Skolforskningsinstitut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skolfi.se>.

Skolinspektione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skolinspektionen.se>.

Skolverk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

skolverket.se.

Sofisam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sofisam.se/>.

Specialpedagogiska skolmyndighete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spsm.se>.

Statens medieråd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statensmedierad.se>.

Statistiska centralbyrå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scb.se>.

Sveriges Riksdag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riksdagen.se>.

The Nordic Council of Ministries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nordicinnovation.org>.

Tillväxtverk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tillvaxtverket.se>.

Ung Företagsamh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ungforetagsamhet.se>.

Universitetskanslersämbet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uka.se>.

Universitets- och högskoleråde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uhr.se>.

Universitet-och högskolerådet Athena utbyten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utbyten.se>.

University of Linköping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liuinnovation.se>.

University of Stockholm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suinkubator.se>.

Verksamt (2019). Accessed on 10 October 2019 <https://www.verksamt.se/>.

[고등교육법]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hogskolelag-19921434_sfs-1992-1434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교육법]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kollag-2010800_sfs-2010-800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부모규약]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aldrabalk-1949381_sfs-1949-381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사회복지서비스법]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ocialtjanstlag-2001453_sfs-2001-453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특정 기능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93387-om-stod-och-service-till-vissa_sfs-1993-387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9052-med-sarskilda-bestammelser-om-var_d_sfs-1990-52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일본]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 (2008). 平成19年度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状況等調査結果(概要).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nier.go.jp/shido/centerhp/i-ship/h19i-ship.pdf>.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進路指導研究センター (2019). 平成29年度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状況等結果(概要).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nier.go.jp/shido/centerhp/i-ship/h29i-ship.pdf>.
- 堀有喜衣 (2016). 高校就職指導の社会学: 「日本型移行」を再考する. 勁草書房.
-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 子供・若者白書.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2honpenpdf/pdf/b1_sho2_4.pdf.
-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chousa.pdf>.
- 内閣府 (2017). 平成29年版 子供・若者白書.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b1_03_02_02.pdf.
- 内閣府 (2018). 平成30年版 子供・若者白書.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30honpen/csv/z3_03.csv.
-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平成30年度).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s://www.jil.go.jp/kokunai>

/statistics/databook/2018/documents/Databook2018.pdf.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8). 「日本の高卒就職システム」の変容と模索. 労働政策研究報告書, 97.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 「日本の高卒就職システム」の現在: 1997年・2007年・2017年の事例調査から. 労働政策研究報告書, 201.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s://www.jil.go.jp/institute/reports/2018/documents/0201.pdf>.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 高校生の就職・新卒採用に関する現状: 90年代以降の高卒就職の変化と今後の課題 2019年5月8日 規制改革推進会議 保育・雇用ワーキング・グループ.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s://www8.cao.go.jp/kisei-kaikaku/suishin/meeting/wg/hoiku/20190508/190508hoikukoyou01.pdf>.

文部科学省 (2014a). 学生の中途退学や休学等の状況について.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10/__icsFiles/afieldfile/2014/10/08/1352425_01.pdf.

文部科学省 (2014b).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配置箇所数、予算額の推移.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4/11/14/1341643_1.pdf.

文部科学省 (2015a). 学校における教育相談に関する資料.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20/gijiroku/__icsFiles/afieldfile/2016/02/12/1366025_07_1.pdf.

文部科学省 (2015b). 小・中学校に通っていない義務教育段階の子供が通う民間の団体・施設に関する調査の結果(概要).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a_menu/shotou/tyousa/__icsFiles/afieldfile/2015/08/05/1360614_02.pdf.

- 文部科学省 (2016). 不登校児童生徒への支援の在り方について(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375981.htm.
- 文部科学省 (2017). 不登校児童生徒による学校以外での学習等に対する支援の充実について.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07/houkoku/attach/1388331.htm.
- 文部科学省 (2018). 平成30年3月新規高等学校卒業者の就職状況(平成30年3月末現在)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ousotsu/kekka/k_detail/___icsFiles/afieldfile/2018/05/18/1404976_001.pdf.
- 文部科学省 (2018a). 2019年度文部科学関係予算(案)のポイント.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_icsFiles/afieldfile/2018/12/21/1412042_01.pdf.
- 文部科学省 (2018b). 平成29年度 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活用事業実践活動事例集.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___icsFiles/afieldfile/2018/11/09/1410232_001.pdf.
- 文部科学省 (2018c). 学校保健統計調査(平成29年度 都道府県表).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download?statInfId=000031685246&fileKind=0>.
- 文部科学省 (2018d). 平成30年度学校基本調査(確定値)の公表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_icsFiles/afieldfile/2018/12/25/1407449_1.pdf.
- 文部科学省 (2018e). 平成30年6月4日付け 30文科高第186号文部科学省高等教育

- 局長通知.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6/05/1282953_02_1_1.pdf.
- 文部科学省 (2018f). 平成30年度国公立大学・短期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の概要. Accessed on 22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b_menu/houdou/31/03/1414952.htm.
- 不登校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2016). 不登校児童生徒への支援に関する最終報告 : 一人一人の多様な課題に対応した切れ目のない組織的な支援の推進.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6/08/01/1374856_2.
- 荻谷剛彦 (1991). 『学校・職業・選抜の社会学—高卒就職の日本的メカニズム—』東京大学出版会.
- 日本経済新聞社 (2015). フリースクールに小中学生4000人超 文科省の実態調査.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05H81_V00C15A8CR8000/.
- 日本労働研究機構 (1998). 新規高卒労働市場の変化と職業への移行の支援. 調査研究報告書, 114.
- 全国高等学校校長会就職対策委員会 (2017). 高校生の就職に関する状況及び新たなキャリア教育の推進. 平成29年度全国高等学校校長協会就職対策研究協議会基調報告.
-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9.pdf>.
- 厚生労働省 (2018).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について. Accessed on 15 October 2019 from https://www.mhlw.go.jp/jigyo_shiwake/dl/h30_jigyoyou05a_day2.pdf.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 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자·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자문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태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해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해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7-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 졸업예정자

인 쇄 2019년 12월

발 행 2019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54-4 94330

979-11-5654-252-0 (세트)



연구보고 19-R17-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